

격월간 중국을 주제로/발행처: 중국어문선교회/서울·서초구 방배본동 756-7
전화: 594-8038·533-5497/발행인: 박성주/발행일: 1994.1.2

격월간

1994.1/2 120

중국을 주제로

중국어문선교회

통권26호



정기구독 신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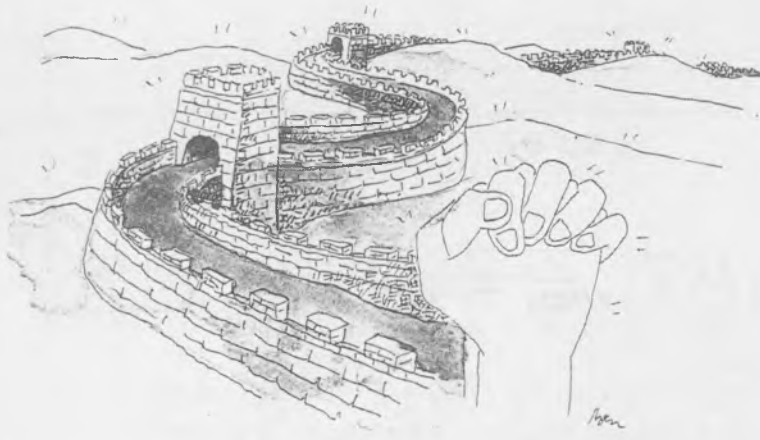
● <중국을 주께로>의 구독은 중국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선교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구체적 헌신의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전 중국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체적 헌신의 하나가 바로 <중국을 주께로>를 성실히 읽는 것입니다.

● <중국을 주께로>를 받아보시려면,

-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에게는 회원 1인에 한하여 1부씩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본회 (TEL. 533-5497, 594-8038)로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 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우송해 드립니다.
- ▷ 대금은 1부당 2,500원이며(1년 구독은 15,000원), 보내 드린 지로용지의 '기타'란에 '회지 대금'이라고 쓰신 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장승원 그림

격월간

중국을 주제로

1994.1/2 통권26호



표지설명:
중국소수민족인 하니족(哈尼族)의 축제. 풍부하고 다채롭게 잔치상을 길게 차려놓고 부페식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들은 동심주(同心酒)를 함께 마시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낸다. 하니족은 운남성의 남부지역에 분산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102만명에 달한다.

발행인 칼럼/ 21세기 중국교회의 전망 • 박성주 장로/ 2

말씀/ 교회와 선교 • 김영재 목사/ 3

중국의 종교정책/ 애국 종교단체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 6

중국교회의 이해/ 중국, 정부와 교회의 줄다리기 • 黃恩炬 / 11

중국의 신화/ 중국에서 신화 상황화의 연구 • 小鳳/ 19

탐방/ 중국선교의 밑알 장안원 교회/ 28

중국 소수민족을 알아/ 중국 소수민족의 종교신앙(III)/ 30

중국지식인과 기독교/ 공산주의에서 기독교로/ 36

천지에서 온 소식/ 오늘도 직업을 찾아 방황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 강성광 / 41

중국기독교 인물소전/ 董顯光/ 48

1P 묵상/ 복음을 위하여/ 53

최근 중국교회 인물/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정광훈/ 54

중국의 교육/ 중국 북경에 유행하는 귀족학교/ 56

오늘의 중국/ 중국인의 인간관계, 그 실상 • 함기수/ 60

중국 유학안내/ 중국대학 현황과 유학절차 • 박명수/ 67

중국선교의 발자취/ 중국교회의 회고 • 방지일 목사/ 77

대륙성도의 간증/ 내 머리에 주님의 은혜의 관을 씌우시다. • 曾莎/ 80

중국어로 찬양을/ 你們要去要去/ 85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主的晚餐/ 86

중국선교 참고도서/ 88

중국여행상식/ 거리에서 맛보는 중국요리/ 90

최근 중국동향/ 92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100

알림/ 102

21세기 중국 교회의 전망

서기 2000년까지 이제 겨우 6년 남았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신년특집으로 유명 미래학자들을 초청하여 21세기를 진단하느라 분주하다. 이것은 서점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미래 연구서적들이 서점 한 모퉁이를 장식하는가 하면 대형 서점들이 발표하는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대개 한 두권의 미래 연구서적들이 끼여 있는 것을 본다. 이처럼 21세기를 연구하고 전망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21세기 교회에 대한 미래 연구서적들이 번역 출간되면서 교계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된 하워드 A. 스나이더의 『21세기 교회의 전망』과 베다니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된 조지 바너의 『21세기 교회를 잡아라』이다. 앞의 책은 로잔 대회 주강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명한 선교학자가 쓴 것으로 선교적 관점에서 세계 교회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뒤의 책은 일반 마케팅 전문가로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미국 교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21세기의 전망』은 중국 선교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저자가 전망한 21세기 세계 교회의 10가지 주요 동향 가운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바뀔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스나이더 박사는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로써 무엇보다도 공산 치하에서 보인 중국 교회의 경이적이고도 건실한 성장을 손꼽는다. 그러면서 그는 21세기 중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미칠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전망을 하였다:

첫째,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교회의 성장물을 결정할 것이며, 둘째, 중국 교회는 중국이 새로운 사회질서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며, 셋째, 중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새로운 활력과 리더쉽, 그리고 조직 구조의 출원지가 될 것이며, 넷째, 중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신학과 자기 이해에 주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 되기까지 여러가지 개연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중국에서 일고 있는 부흥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며, 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중국 교회는 계속 성공의 가도를 달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억압과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위축될 것인가? 중국 교회는 앞으로 세계 교회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자고 이래의 물질주의에 매몰될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현재 이러한 변수들을 다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교회가 향후 세계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는 중국을 단순히 거대한 선교의 시장으로만 보고 교세 확장적 집단 이기주의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국 교회의 건실한 성장에 선교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중국 교회의 어깨에 세계 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박성주 장로
중국어문선교회 대표

교회와 선교



김영재

이제 하나님의 세계 선교 계획은 세계적 무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선교역사는 이제 세계의 기독교 회로 그 체제, 신학, 성격, 범위가 확대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선교의 모체인 안디옥 교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서 세계선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모체로써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 세계주의적 교회였습니다(13:1).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동서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로마제국의 세번째 큰 도시였고 동방에서 제일가는 수도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리아인,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아프리카지역의 사람들이 혼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본문에도 바나바, 사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흑인)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 등 여러 류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 생동감 넘치는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신앙 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11:19), 그 결과 열심히 복음을 외치는 전도 운동이 있었고, 많은 회심자와 개종자가 일어났고(11:21), 바나바와 바울같은 옳은 지도자가 목양했고(11:22~25), 성경중심의 교회였고(11:26),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습니까(11:26).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뻗는 교회, 곧 주는 교회였고(11:27~30), 예배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13장 2절에 '주를 섬겨'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용어입니다. 정기적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성경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핍박을 감수하고 있는 교회요, 전도와 회개의 역사를 통해 신자가 증가하는 교회요, 바른 지도자의 말씀속에 예배와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활성화 되는 교회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에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의 교회였습니다.

3. 영적 자원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13:1~2).

첫째, 그것은 바로 유력한 신앙의 인격자원

입니다.

여기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 본명은 요셉인데, 구제와 봉사 정신이 강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루살렘 교회 여러 형제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겸손했고 세계 역사와 무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초청해 안디옥에서 동역할 정도의 미덕을 가진 자였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구레네 시몬’이란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아닙니까?

‘루기오’가 있습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앞에 나오는 ‘시므온’과 함께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은혜 체험의 유능한 교사일 것입니다.

또한 ‘마나엔’이 있습니다. 그는 헤롯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 아닙니까?

둘째, 저들에게는 영적 일치라고 하는 목적론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역 감정이나 혈통(민족)의 장벽이나 계급의식, 빈부귀천의 배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전파, 복음선교를 위한 목적에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이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목적앞에 마음과 몸과 재능이 일치함은 교회가 받은 선교의 유력한 자원입니다. 목적에 하나가 되는 영적 일치감, 이것이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는 산실입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 13:2).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들이 특별히 선교사 파송을 위한 금식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 공적 예배생활에서 일어난 자원적인 감동 행위였습니다.

그 때 성령의 지시가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전체는 결과론적으로 성령께서 세계 선교의 계시를 주신 일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대하고 중대한 것은 선교 비전이 하나님 자신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선교계시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받은 본질적이지요 근원적이지요, 우주적인 사명입니다(행 1:8).

1. 세계 선교는 신적 소명의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13장 2절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으로 부르신 선교사 소명입니다. 저들은 선교사로서 인격적인 방면의 자격이 구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끈기와 인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융통성,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동적이지요 적극적인 성격 등이 갖추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선교사로서 영적인 방면에도 자격이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즉 구원에 대한 확신, 풍부한 성경지식, 구령에 불타는 열

정,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력 등이 갖추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따로 세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갈 1:15). 임명을 뜻합니다. 봉헌을 뜻합니다(롬 12:1).

저들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선택했으니, 교회는 그들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그들의 생애를 주를 위하여 바치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2. 선교회원은 전교회의 신자였습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바로 ‘안디옥 선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전 교인이 선교의 구성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는 지상에서 행해진 모든 시대, 모든 경우의 선교운동은 교회가 ‘선교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는 바로 선교 운동 그 자체요 선교 운동의 본부요 기지입니다. 교회 중심의 선교 운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3. 세계 선교는 교회의 임직과 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13:3).

이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의식입니다.

첫째, 그것은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신령한 일은 주의 힘으로 되기를 바라는 영적 소원임을 보여 줍니다.

둘째, 선교사 임직은 안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식을 따라 선교사직을 부여하는 예식입니다(6:6 ; 8:17). 이것은 그가 공인으로서 움직이는 책임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춘(長春) 시내 치마누 한족교회 내에 조선족 교회가 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환담을 나누고 있는 조선족 성도들의 모습.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독자적인 교회 설립을 소망하고 있다.

셋째, 선교사 지출이 따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내니라’는 말로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전도자를 파송할 때 저들의 선교비를 자연스럽게 담당했을 겁니다.

교회와 선교 !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센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운동은 교회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상에 자리잡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 선교의 기지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직접 가든지’(go) 아니면 ‘보내든지’(send)하는 본질적 사명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의의요, 가치요, 목적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받은 최종, 최고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모든 세계에 교회가 받은 선교운동이 구심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안디옥 선교회’였습니다.

애국 종교단체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서 론

종교 신앙 자유는
국민의 자유다.
국민은 종교 신앙할
자유도 있고
종교를 신앙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당 종교정책의 선전을 철저히 시행하
여 여러 성도들이 당면한 금후 당의 종교
활동의 관점을 더욱 잘 이해하고 파악하
게 하려고 특별히 종교 학습자료를 편집
하였다.

그 내용은 «신 시기 당의 종교정책»과
«심양시 종교 활동장소 관리·잠정적인
규정»이다.

각 종교 활동장소에서 진지하게 조직
하여 학습하고 철저히 집행하기를 바란
다.

심양시(深陽市)우홍구(于洪區) 종교사무국
1993년 7월

신 시기 당의 종교정책

당의 11기 3중전회(三中全會)이래 각급
당위, 정부와 애국 종교단체의 공동 노력
의 결과로 당의 종교정책은 점차적으로
철저히 집행, 실현되었고 종교 공작은 현
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종교 활동장소를 개방하고 배려하였으
며 애국 종교단체를 회복 건립했다. 또한
국민의 종교 신앙 자유의 권리와 정상적
인 종교 활동과 종교단체의 합법권익은
법률과 정책의 보호를 받았고, 종교를 이

용한 불법 범죄 활동은 법에 의해 처리되
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의 종교 활동은
정상적이다.

또한 종교계 인사의 애국주의, 사회주
의 의식이 높아졌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
의 지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당
과 정부의 종교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도
록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민족단결을 옹호하며 조국
통일을 촉진하고 국제왕래를 전개하는
등의 방면에서 대단히 유익한 일을 감당
했다.

당이 영도하는 종교계 애국 통일 전선
은 한층 공고해지고 강화되었으며 각 민
족 종교대중은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
신문명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종교공작을 한층 원
활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몇 규정을
제정하였다.

1. 종교 신앙 자유 정책을 전반적으로 정 확하고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

종교 신앙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은 당과 정부의 종교 문제에 대한 장기적
인 기본 정책이다.

종교 신앙 자유는 국민의 자유다. 국민
은 종교 신앙할 자유도 있고 종교를 신앙
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며 어떤 국가, 기

관, 사회 단체와 개인들이 강제로 시민에게 종교를 신앙하라, 종교를 신앙하지 말라 할 권리가 없으며 종교를 믿건 안 믿건 멸시해서는 안된다. 종교는 반드시 법률과 정책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국가의 정상적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국민은 종교 신앙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반드시 자기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거나 국가통일, 사회 안정, 민족단결, 사회와 전체 이익에 손해를 주거나 기타 시민의 합법적 권리에 방해되는 위험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행정, 사법(司法), 학교 교육과 사회 공공 교육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의무교육 실시 활동을 방해하거나 절대 18세 이하의 소년,아동을 입교시켜서는 안되며 이미 폐지된 종교적 봉건 특권과 압박 착취 제도를 회복해서는 안된다.

신자와 비신자간에 서로 존중하며 단결하고 대다수의 군중이 종교를 믿지 않는 곳에서는 소수 믿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다수의 군중이 종교를 믿는 곳에서는 소수 종교를 믿지 않는 군중의 권리를 보호하며 신자와 비신자 군중을 단결시켜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사업에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2. 법에 의하여 종교 사무를 집행, 관리해야 한다.

법에 의하여 종교 사무를 집행, 관리한다는 것은 정부의 종교에 관련된 법률과 법규 및 정책의 철저한 실시와 행정관리 및

감독의 집행을 가리킨다. 정부는 법에 의하여 종교단체와 사관교당(寺觀教堂)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종교 조직 인원의 정상적 교무활동을 보호하고 믿는 군중의 정상적 종교 활동을 보호하지만, 불법분자들이 종교 활동을 빙자하여 혼란을 조성하거나 위법 범죄를 행하는 것을 방지, 제지하며 국외 적대세력의 종교를 이용한 침투를 막아야 한다. 종교 사무를 집행, 관리함은 종교 활동이 법률과 법규 및 정책 범위에 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종교 활동장소는 마땅히 법적으로 등기해야 한다. 법적으로 등기한 종교 활동장소는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종교사무 부문의 행정지도하에 애국 종교 단체와 종교 교직원 민주 관리 원칙에 의거하여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새로 종교 활동 장소를 세우려면 반드시 현 이하의 인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칭(自稱) 전도사의 전도활동과 기타 각종 불법 전도활동을 철저히 금지한다.

불법적으로 설립한 경문(經文)학원, 신학원은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 우리 나라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독립, 자주, 자변(獨立, 自主, 自辨)이라는 교회의 원칙을 견지하여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마땅히 평등 우호(友好)의 기초 위에 종교 방면의 국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정확히 전개하되 국외 종교 적대세력이 우리 나라 종교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 어떠한 국외 종교단체나 개인이 국내 종교 사무를 간섭하거나 사무기구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불허한다.

외국에서 온 종교 서적, 녹음 녹화된 제품과 기타 선전품은 정부 관계 부문이

새로 종교 활동 장소를 세우려면 반드시 현 이하의 인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칭(自稱) 전도사의 전도활동과 기타 각종 불법 전도활동을 철저히 금지한다.

**어떤 사람도
외국으로부터 온
침투적 목적을
가진 종교 전도
경비를
접수해서는
안된다.**

규정한 관리 방법에 의거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무릇 4항 기본 원칙(중국 공산당이 견지하는 4개 원칙 즉, 사회주의, 인민민주전제, 중국공산당 영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것과 정부를 반대하는 등의 반동 내용이 있는 선전품은 법에 의거하여 몰수한다.

어떤 사람도 외국으로부터 온 침투적 목적을 가진 종교 전도 경비를 접수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종교단체와 사원과 교회당이 국외 종교조직과 성도들이 보낸 거액의 현금을 접수할 때는 성, 일급 인민정부 혹은 사무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종교단체가 국외의 종교 조직과 종교인사를 초청하거나 초청 받아 나가고자 할 때는 성 일급 인민정부나 국무원 종교 사무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중대한 대외(對外)활동은 반드시 국무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비종교 단체에서 종교 배경을 지닌 유명한 종교 인사를 초청하여 여행하며 접대하려면 종교 사무소 부문에 알려야 한다.

3. 애국 종교 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애국 종교단체는 당과 정부가 종교계 인사를 단결시키고 교육하는 다리이다.

애국 종교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당의 종교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으로서, 종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조직적 보증이다.

일부 지방에 애국 종교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그들 자신의 건설에 힘쓰고 자신의 특성과 기준에 따라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그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

하도록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과 봉사와 사회 공익사업을 잘 하도록 권면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들의 사무용 가옥, 경비, 일부 교역자의 생활의 곤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그들로 하여금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모든 애국 종교단체는 당과 정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국가 법률을 준수하며 자기수양의 전통을 빛내고 항상 교역자에 대해서 애국주의, 사회주의, 시사정책, 국가법률, 법규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끊임없이 옹호 향상시키고 독립, 자주, 자변(自辨)의 원칙에 대한 자각성을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4. 종교를 이용하여 범죄 활동하는 것을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

시민의 종교 신앙 자유 권리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종교를 이용하여 파괴 활동을 하는 반혁명 분자와 기타 형사범죄자를 반드시 법적으로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

각급 공안 부문은 유력한 대책을 채택하여 종교 문제를 빙자해서 군중을 선동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며 국가 통일을 파괴하는 활동을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

법률을 위반하는 자는 법적으로 처리하고 외국 적대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는 주모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불법적인 종교조직은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위법활동을 하는 종교장소는 그 사안이 경미할 때는 비평 교육하여 기한내로 고치도록 하고, 거듭 경고해도 고치지 않으면 엄중히 법적으로 처리한다.

5. 심양시 종교 활동장소 관리 임시 규정

제1조 :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권익을 보호하여 종교 활동장소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세운다.

제2조 : 본 규정에서 말하는 종교 활동장소란 정부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개방한 불교사원, 도교 궁관, 이슬람교 청진사(伊斯蘭教 清真寺), 천주교(天主教), 기독교 예배당(이하 사관교당(寺觀教堂)이라 칭한다) 및 종교 활동을 가르킨다.

제3조 : 무릇 본래 행정구역 내 모든 활동장소는 마땅히 종교사무 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완료하면 종교 활동장소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애국 종교 조직과 종교적 인원들이 민주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 어떤 사람이건 제멋대로 종교 활동장소를 설립하지 못한다. 정부의 허락없이 하는 종교 활동장소는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 거절하는 자는 종교사무 부문과公安부문이 합동하여 해산시킨다.

제5조 : 어느 기관과 개인이라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개방(開放)된 종교 활동장소를 차지(占用)해서는 안된다.

제6조 : 종교 교역자와 신도 군중의 종교 활동장소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종교 조직은 종교 활동 시간, 규모, 횟수를 타당성 있게 안배하여 사회 질서, 생산 질서, 작업 질서, 교육연구 질서 그리고 인민 군중의 생활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합법적 종교조직의 동의 없이 세운 교역자와 전도자는 종교 활동을 주취하거나 참석하지 못하며 어떠한 종교조직과

개인도 종교 활동장소 밖에서는 설교와 전도를 할 수 없다.

제7조 : 종교 활동은 반드시 국가 법률과 관계된 규정을 준수하고 독립, 자주, 자연의 교회원칙을 견지하며 아래 몇 가지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

① 《네 가지 기본원칙》을 반대하고 국가통일, 국내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② 금전을 사취하고 부녀를 간음하거나 시민의 신체건강에 해로운 위법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③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행정사무, 사법업무, 학교교육과 사회공공교육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④ 어떤 사람에게도 억지로 입교하고 출가케 하거나 절(寺庵)에 가서 경을 배우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⑤ 폐지된 봉건 특권과 종교착취 압박 제도를 회복해서는 안된다.

제8조 : 종교 활동장소에서 신도들이 자원해서 헌금이나 시주를 접수할 수는 있으나,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에서 접수한 외국 교회 조직과 성도들의 기부 금품은 관계된 규정대로 집행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와 개인들은 어떤 방식과 명의로든 외국 종교 단체와 종교 인사의 재물, 종교서적, 선전품, 음향 및 비디오 제품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9조 : 사관교당(寺觀教堂)은 자양기업, 서비스업과 사회공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사관교당의 소유로 하되 개인과 기타 단위는 무상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 : 종교 활동장소는 관리 조직의 동의를 없이는 종교 활동장소에 진열, 전시 활동과 상업과 서비스업 등 활동을 해

무릇 본래 행정구역 내 모든 활동장소는 마땅히 종교사무 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의 종교 인사는 정부의 허락하에 정식으로 개방된 종교 활동장소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서는 안된다.

제11조 : 사관교당(寺觀敎堂)은 정부 종교사무 부문이 발행한 종교서적 및 종교용품, 종교예술품을 위탁, 판매 할 수 있다. 그러나 봉건적 미신용품, 선전품 및 외국 종교 선전품을 제멋대로 인쇄, 복사, 판매, 배포해서는 안된다. 국외 종교 방송은 들을 수 없다.

제12조 : 사관교당(寺觀敎堂)은 반드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젊은 종교 교직자를 양성해야 하며, 종교 교직원은 사적으로 신도를 거느려서는 안된다.

제13조 : 종교 활동장소를 뜯어 옮기거나 재건축할 때는 마땅히 정부 종교 사무 부문의 동의를 거친 후, 부동산, 도시 건설 등 관리 부문의 허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 종교 활동장소는 마땅히 각종 안전 규정 제도를 마련해 안전 보위 업무를 강화하고 치안과 안전방화(安全防火) 조직을 설립해 반드시 소화용구도 갖추고 수시로 집행 상황을 검사하여 유사시에 재난방지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15조 : 외국의 종교 인사는 정부의 허락하에 정식으로 개방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외국 종교 조직과 종교 인사는 우리 시의 종교사무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에서는 정부의 종교사무 부문의 동의가 없이는 외국 손님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유관 종교 방면의 자료를 공급할 수 없고 군중에게 외국 방송이나 T.V프로그램을 보여 줘서는 안된다.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종교 조직과 종교 인사의 교류는 마땅히 상호 존중, 상

호 불종속, 상호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 종교 활동장소에 외국 종교 인사를 유숙시켜서는 안되며 국내외 종교 교역자는 마땅히 정부 종교사무 부문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거쳐 호구 등기 수속후에 유숙할 수 있다.

제17조 : 불교사원, 도교 궁관은 정원관리를 실시하여 그 임의로 증감해서는 안된다. 만약 정원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정부에 보고해서 비준을 얻어야 한다.

종교단체와 사관교당 관리조직이 교역자를 임용, 청빙, 인사이동을 하거나 수련생이나 수녀, 하리판(海理凡)을 받아들이고 출가도제(出家徒第)를 받아들이며 머물게 하거나 종교 대학의 학생을 선발 배치할 때는 반드시 정부 종교사무 부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8조 : 이상의 규정을 어기는 자는 당지역의 정부 종교 부문과 유관 부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 치안 질서와 공공 안전을 파괴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 조례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형법에 저촉된 자는 사법기관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9조 : 본 규정 실시중에 유관 문제가 있으면 시(市)종교사무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 규정은 발포한 그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자주 : 위 글은 최근 중국 심양시 우흥구 종교 사무국에서 발행한 종교관련 법규 소책자를 입수, 번역한 글이다.

이 소책자를 통해 중국의 종교정책의 구체적 시행점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본 정신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번역 :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중국, 정부와 교회의 줄다리기

黃恩炬

**중국정부는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종교관을
기초로 삼아 종교를 해석하고
이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국민의 종교사상을 통제하고 공산정권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즉,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종교관을
기초로 제정된 종교정책은
기독교의 활동범위 및 발전을 제한하는
일종의 정치 수단이다.**

머리말

중국정부의 신도에 대한 태도는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종교관 및 통일전선정책에서 다진 종교정책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역으로 삼자교회 및 가정교회, 이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교회를 통하여 신도의 정부에 대한 태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정부가 신도를 보는 시각

중국정부는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종교관을 기초로 삼아 종교를 해석하고 이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국민의 종교사상을 통제하고 공산정권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즉,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종교관을 기초로 제정된 종교정책은 기독교의 활동범위 및 발전을 제한하는 일종의 정치수단이다.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종교관

1. 마르크스, 레닌의 종교관

마르크스, 레닌에 따르면, 인류의 환상에서 기원한 종교는 인류의 생산방식이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공포심리에서 발생된 것이며 ‘아편’과 ‘저질 술’로 간주되는 마취적 특성이 있다.

피착취 계급은 이것에 의지하여 자아 소외현상을 일으키며 생활의 압력과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착취계급은 종교를 이용하여, 불완전한 경제제도하에서 파생된 경쟁과 위기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그들은 스스로 종교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종교로써 피착취 계급의 반항력을 전환하고자 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역사유물론으로 종교를 이해한다. 그들은 종교가 인류 생

**정부
감독하에서의
일체의
종교 활동만이
'정상적 종교
활동'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
단체에
속한다는
것이다.**

산방식의 발전에 상응하여 생산, 연속, 그리고 소멸한다고 본다.

즉, 공산주의의 이상사회가 실현되어 경제생활이 절대보장되고 착취투쟁이 없다면 자연히 종교는 존재가치를 잃고 소멸될 것이다.

2. 모택동의 종교관

모택동의 종교관은 마르크스, 레닌의 종교관에서 다져졌으며, 이 외에도 더욱 실효적인 측면에서 종교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켰다. 그는 말하기를, 종교는 국가 사회에 공헌이 있을 때 존재가치가 있으나 만일 국가를 침해한다면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평등 조약에 의해 중국에 침투한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도구의 역할을 맡았기에 바로 이것이 모택동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원인의 초점이 되었다. 그가 거절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다만 그것과 제국주의의 연계성에 있다.

모택동은 <통일전선> 이론을 제창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항한다. <통일전선> 이론에 따르면, 공산당은 더 강대한 적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잠시 기타의 비공산 세력과 연맹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맹의 쌍방이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고 강대한 적을 이기기 위해 하나의 행동노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코 본질적으로 서로 용인할 수 있거나 투쟁이 소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적이 소멸된 후 이 동맹의 맹방(2차적인 적)은 주요 적인 투쟁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종교정책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종교관은 중국

종교정책의 중심내용을 결정지었다.

종교정책의 제정 및 실시는 여러 시기의 요인에 영향을 받았고 기본노선 외에도 역시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바, 다음에서 그 특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전제성(專制性)

전국성종교주도문건(19호문건)에서 명시하기를 “일체 종교 활동의 장소는 모두 정부 종교사무국의 행정지도하에 둔다.”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약칭 양회)는 실로 중국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기독교 단체이다.

정부 감독하에서의 일체의 종교 활동만이 '정상적 종교 활동'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단체에 속한다는 것이다.

종교사무국의 지도를 받는 양회의 조직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삼자교회(三自教會) → 양회(兩會) → 종교사무국(宗教事務局) → 국무원(國務院) → 통전부(統戰部) → 당중앙(黨中央) 이와 같이 각 계층관계에서 당 중앙이 삼자교회의 최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

2. 제한성(制限性)

중국은 1982년 개헌 중, 제 36 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조문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할 뿐, 결코 실제적인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성종교주도문건 (19호 문건 및 6호 문서)은 더욱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제한하는 법규조문을 명시하고 있는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 활동장소의 장소에서의 부흥회, 전도, 유인물(전도지)의 유포 선전 및 기타 정부주관부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종교서적의 출판 발행을 금지한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입교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절대로 국가행정, 사법, 학교교육과 사회 공공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공산당원은 종교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종교 활동에 참가해서도 안된다.

이 외에도 지방성의 종교문건은 더욱 엄격하게 종교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운남성에서 통과된 [삼정(三定)]과 하남성, 절강성 일대에서 통과된 [십불준(十不准)] 정책 등이 있다.

3. 정치성(政治性)

50년대의 삼자운동(自治, 自養, 自傳)정신은 실로 정부에 의해, 중국 교회와 외국기독교 세력이 연결되는 것을 단절시키는 일종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정부는 기독교 군중이 국외 침투세력과 연합하여 반정부 세력이 된다고 본다. 정부와 삼자회가 제창하는 ‘반제, 애국, 애교’ 구호의 의도는, 신도의 사상을 개조하여 정부에 복종하고 공산정권을 지지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것을 기초로 삼아 제정된 19호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 세력(로마 카톨릭 및 기독교 총회 포함)은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침투활동을 자행하고 있고 중국대륙으로 복귀하려고 한다. 외국 종교 중 어떤 적대 세력의 침투도 강력히 제거하여야 한다.

●어떠한 외국종교조직도 어떤 방식으

로든지 우리 나라에 종교를 선전하거나 혹은 종교선전 자료를 밀수하여 배포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한다.

●우리 나라의 어느 종교단체와 종교계 인사 및 기타 단체, 개인을 막론하고 외국 종교조직이 제공한 보조금과 포교 경비를 일체 받아서는 안된다.

4.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주의의 성격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주의는 종교정책의 주요내용으로 다져졌는데, 19호 문건과 6호 문서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 소멸론: 인류 역사상 종교는 결국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장기발전을 거쳐 모든 객관적인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무신론: 중국 공산당은 무신론자이므로 무신론의 선전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물 변증법: 그들(종교인)이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의 세계관을 점차 수립해 가고 종교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통일전선: 어떤 유신론도 마르크스주의와는 모두 대립적 관계에 있지만, 정치행동상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와 애국적 종교 신도는 오히려 연합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

5. 시대성(時代性)

상이한 역사발전단계의 정치형태와 권력자의 변천 등이 종교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관건이 되었고 동시에 종교정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입교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전국성의 종교 문건 외에 연해 각 지방은 모두 부유한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종교문건을 반포하였다. 즉, 이것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종교정책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라 하겠다.

책 시행상의 차이를 형성하였는데 각각의 시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 기	정치형세	종교정책 방향
1928~1949	국공내전	용인, 억압
1949~1958	입국초기	단결, 타격
1958~1960	대약진	집중, 개조
1960~1966	당정 분가	용인, 느슨함
1966~1978	문혁 시기	투쟁, 소멸
1978~1982	개혁개방 초기	회복, 정돈
1982~1989	개혁 시기	실행, 정돈
1989~1993	6·4이후, 경제개혁	타격, 안정

6. 인치성(人治性)

삼자회의 주석 정광훈은 여러 번 정협(政協)과 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의 정치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역간부의 기독교에 대한 공격행위를 지적하며 이러한 좌경노선은 중국교회의 기초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제 8 회 정협에서, “현재 곳곳에서 종교에 대한 무질서한 반대, 탄압, 제재, 핍박하는 세력들이 난무하고 있다. 양회는 매년 구조를 호소하는 서민층 기독교인의 편지를 천여 통 이상이나 받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의 <亂收費-함부로 돈을 징수함> 현상은 아주 심각하며 이러한 풍조가 이미 기독교까지 위협하고 있다. 간부들은

불법집회를 구실로 삼아 신도에게 최고 인민폐 천 원에 달하는 벌금을 거두어들이며 중간에서 사복을 채우고 있고, 이외에도 <신도증>, <활동증명서>등의 발급으로 재원을 늘이고 있다. 이렇게 신도들에게 막무가내로 벌금을 징수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7. 지역성(地域性)

개혁 개방에 의한 무역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연안지역은 비교적 느슨한 종교정책을 취하는 데 반해, 내륙 외진 곳의 종교정책은 상당히 긴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지방에서 신도를 핍박하는 사건이 언제나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근래 하남성에서는 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불법집회의 구실로 고발되어 투옥된 사건이 생긴데 반해, 올해 광주의 대마참교회에서 공안국에 의해 소요를 겪은 경우는 비교적 적었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 구두로 한번 경고를 받았을 뿐이다.

전국성의 종교 문건 외에 연해 각 지방은 모두 부유한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종교문건을 반포하였다. 즉, 이것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종교정책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라 하겠다.

기독교도가 정부를 보는 시각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는 중공정권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교회의 특색 및 정부에 의해 받은 제재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삼자교회

1. 거둬드는 모순

삼자교회는 양회와 종교사무국의 지도를 병행하여 받으며, 정부와 신도의 좁은 틈에서 쌍방의 평형을 얻어야만 그 임무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양회의 정부에 대한 태도에는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 일찍이 1980년 남경회의에서 정광훈은 가정교회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오히려 긴축적인 종교정책을 취하여 가정교회의 행동에 대해 계속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6·4 기간 동안에 양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서명한 우편물을 통해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후 6·4 진압시 양회는 정부의 압력에 의해 최초의 입장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았다.

정광훈은 여러 차례 정치회의 석상에서 합법적 기독교 활동에 대한 관리들의

공격에 대해 항의를 표했으나 그의 의견은 항상 정부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그는 인대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나, 그의 개방적인 언변으로 인하여 오히려 제8회 인대에서 비난받고 관직을 떠나게 되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역할과 기독교적 역할을 겸한 삼자지도자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 직면하여 모순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2. 복음의 효과

정부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삼자교회는 현재 7천여 개로 증가되었고 집회장소는 2만여 곳, 신도수는 1949년의 80만 명에서 현재 6백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말하자면 삼자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학대를 받은 정도와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삼자교회는 현재 7천여 개로 증가되었고 집회장소는 2만여 곳, 신도수는 1949년의 80만 명에서 현재 6백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북경의 삼자교회의 성가대원들이 예배 전 연습에 임하고 있다. 삼자교회는 정부의 승인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교회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때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제재로 교회의 자주권이 상실되는 모순적 양상을 띄기도 한다.



광주(廣州)의 대마참교회 예배 장면.
가정교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는 정부의 잣은 횡포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다.

어떤 삼자교회의 신도는 사실상 매우 자유롭게 교회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 열매도 풍성하다.

3. 월권행위

어떤 지역의 삼자교회는 종교 신앙이 없는 종교 간부를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하였으며, 어떤 곳에서는 교회의 활동이 간부에 의해 소란스럽게 저지된다. 어떤 교회의 행정과 조직은 완전히 정부관리의 제재를 받아 일체의 자주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삼자회에 의한 월권 행위로 설명되며, 정부관리들이 전국성 종교문건의 <종교사무에 관해서는 법률에 의거 수행 관리한다>는 정신을 위반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간부들의 월권행위로 인해 정부의 제재와 억압을 받은 교회는

완전히 자주권을 잃고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어 영혼들이 메마르고 교회의 발전이 정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주객전도

삼자교회의 특색은 신도들의 <애국, 애교>를 고취하는 것이다. 정부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신도들이 힘을 다해 사회봉사에 참가하여 고아와 과부, 노약자를 돌보고 다리를 놓고 길을 정비하여 공무를 중히 여기고 법을 준수하며 노동생산 등의 행동으로 조국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주의'는 대부분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하여, 교회에서 쓰임 받은 인력, 재력 등이 교회의 본질적 임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들어 중국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삼자교회를 통해 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를 끌어들이는 등 경제개혁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고취시키고 있다. 삼자교회의 신도들은 정부의 경제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근년에는 모두 적극적으로 교회의 기업들을 발전시키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진력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남성 개봉시 삼자회는 삼자 숙박시설을 설립하였다('88년).

●광둥성 양강시 기독교 청운당은 유치원을 설립하였다('90년).

●산둥성 교주시 삼자회는 음식점, 의류점포의 설립으로 순수입이 일만여 원에 달했다.('90년)

●북건성 삼자교회는 1억 7천만 원의 외국 자본을 끌어 들였다.('93년).

삼자교회는 경제개혁의 기운에 부응하

여 교회기업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진력함으로써 조국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으로 인해 비록 교회의 경제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만일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운남의 한 신도에 의하면 교회가 예배당을 석탄 판매소 측에 석탄을 저장하도록 빌려줘 성전이 더럽혀지고, 석탄판매가 교회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

가정교회

가정교회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집회를 갖는 신도 단체를 가리킨다. 그들의 등록은 삼자교회에 대한 반응과 정부의 구속, 체포, 진압에 대해 갖는 태도 등 가정교회 신도들과 정부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1. 등록 문제

가정교회의 등록 문제는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등록파

이 유형의 가정교회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부에 등록을 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종교 활동이 보장되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교회재산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순서를 기다리던 어떤 가정교회는 정부에 의해 등록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공안국에 의해 단속당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태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2) 중립파

이 유형의 가정교회는 정부의 제재를 받

길 원하지도 않고 등록도 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적 진보적이고 자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큰 규모의 삼자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로부터 성경과 찬송가를 대신 구입하거나 이들 삼자교회의 목자를 초빙하여 집회처소에서 설교를 하게 함으로써 피차간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들은 정부에 대해 결코 소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정부에 의해 간섭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3) 상흔파

이 유형의 가정교회는 신도의 대부분이 정치운동 기간 삼자교회를 떠났거나 혹은 삼자교회와 합류하지 않는 신도 지도가 이끌고 있다. 그들은 정부에 의해 핍박받고 투옥되고 신도간에 피차 고소하고 의심하는 고통을 경험하였다. 이런 상처로 인한 영혼의 음울한 그림자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정부와 삼자교회를 믿지 않게 하여 정부를 절대 지지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4) 저항파

이 유형의 가정교회는 삼자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선 정부를 따르고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리에 위반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부에 등록하기를 거부하고 삼자교회와도 거리를 둔다. 심지어 극단적인 어떤 신도들은 정부와 삼자교회를 성경상의 마귀, 음녀와 동등하게 간주하기도 한다.

2. 박해사건

1) 뱀같이 지혜롭게

가정교회 신도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

가정교회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집회를 갖는 신도 단체를 가리킨다.

생명의 위협에 직면할지라도 그들은 위로부터의 모든 압력을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들기처럼 순결한” 지혜로 정부를 대한다.
<사례>

1990년 2월, 대마참 가정교회의 지도자 임현고가 공안당국에 의해 교회를 차압당하고 심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정부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대모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삼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양회의 영도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안원이 그에게 자아비판을 다시 하도록 명령하자 그는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시다. 단지 문건을 위반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2)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견디어 냄.
가정교회의 신도는 정부의 박해에 대해 도저히 근본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없고 심지어 자위의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

생명의 위협에 직면할지라도 그들은 위로부터의 모든 압력을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박해하고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중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붙들으로써 사랑으로 대한다. 수많은 종교박해중에서도 그들이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지체들간의 위안과 격려였다.

<사례>

1993년 3월 신문의 소식에 따르면, 섬서성 순향현 도원 소촌에서 약 30명의 신도가 공안당국에 의해 구타, 감금, 체포를 당하고 벌금을 물었으며, 그중 1명의 지도자는 심한 구타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1993년 8월, 하남성에서는 천 명의 가정교회 신도가 공안원에 의해 투옥되어 벌금으로 인민폐 천 원을 물고서야 석방되었다.

3)전력을 다해 주를 섬김

1989년 탐방소식에 따르면 한 자매가 기독교 선전물을 전달한 관계로 체포되어 4개월의 구금을 당했는데, 옥중에서 수십 명의 죄수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결론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종교관은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다지는 기초가 되었고 종교정책의 주요내용이 되었다.

<전국성종교주도문건>에 의하면 각종 종교 활동은 최고 주권자인 정부의 관찰 범위를 떠날 수 없다. 지방성의 종교문건은 지방정부의 기독교인에 대한 대처가 일치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종교정책을 실시하면서 인치성, 지역성 및 시대성의 특색에 따라 정부가 각각 다른 배경 아래서 기독교인을 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삼자회 지도자의 정부에 대한 태도에 는 거듭되는 모순이 있으며, 삼자교회의 신도들은 정부에 의해 각기 다른 정도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애국』, 『애교』 양자의 좁은 틈 사이에서 평형을 얻고 공헌을 하려고 노력한다.

가정교회의 신도들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정부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사명을 감당하고 용감하게 고난을 짊어지는 정신은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것이다.

(〈守望中華〉 제116기 중에서)

번역:남궁양석(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중국에서 신학 상황화의 연구

小 鳳

**사회와 교회에
있어 당면한
특수한
사회상황과
복음(신학)이
중국에서 어떻게
상황화되어가고
있는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서 언

복음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근대 선교학의 중요과제이다.

어떻게 복음을 제3세계에 알리고 뿌리 내려 발전케 하는가는 전통문화와의 대화(토착화라고 일컬음)에 집중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당면한 사회, 정치 등에서 오는 도전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 신학, 독일의 희망 신학 등 모두가 신학상황화의 성과이다.

그러나, 1972년 신학교육기금 보고서가 이런 개념들을 제출한 이래로 연이어 야기되는 문제와 토론들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할레브레인(Haleblan)은 이것을 7개 문제로 귀결시켰다.

- ① 상황화의 정의
- ② 상황화와 토착화의 구별
- ③ 상황화의 합법적 집행인
- ④ 혼합주의
- ⑤ 상황화의 한계
- ⑥ 복음의 핵심
- ⑦ 성경해석법 등이다.

사회와 교회에 있어 당면한 특수한 사회상황과 복음(신학)이 중국에서 어떻게 상황화 되어가고 있는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진택민 역시, 「80년대 초기가 되어서야

중국의 교회와 신학가들이 비로소 이런 사상(상황화)과 접촉하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비록 아직 완전하게 상황신학이 세워지진 않았으나 이런 십여 년의 노력이 공헌한 바는 있다. 필자는 곧 할레브레인씨가 제기한 것 중의 4개 항목(필자는 아래의 4개 과제가 중국 신학자들의 비교적 분명한 성과와 특색을 갖춘 것이라 생각한다)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 중국 교회의 성과를 평가해 보려 한다.

상황화의 정의

『상황화는 우리들과 제 3세계의 특수한 상황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토착화로부터 어떤 전통문화의 어휘들이 복음의 메시지와 어우러져 겹쳐 쓰는 경향이다. 비록 상황화가 이런 일들을 소홀하게 다루지 않지만, 동시에 제 3세계 국가 앞에 당면한 역사 시각의 특성, 세속화, 과학기술화 그리고 인권 평등을 얻기 위해 갈등하는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상황화가 토착화의 진로와는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전자는 당면사회의 상태에 대해 우호적이다. 비록 이런 정의를 내렸어도 상황화의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 사실 중국에서는 일찍이 50년대 진택민

이 신학의 정의를 내릴 때 이미 상황화의 관념을 포함시켰다.

『신학은 교회 영성 경험의 이론으로 역사상 어떤 특수 시대 가운데 처한 교회의 종교경험의 총체적 결말이다. 그러나 신학은 특정한 역사조건의 제한을 받게 된다. 시대와 민족, 국가의 상황에 따라 그 시대와 그 교회와의 특수경험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몇 년 전에 심이번이 홍콩에서 한 차례의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상황화에 대해 『상황화는 토착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 전통의 문화와 결합되는가의 문제 외에도 상황화는 우리들의 신학사상과 우리들이 처한 현실 환경, 그리고 현실의 사회변혁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라는 분명한 정의를 내렸었다.

이 정의와 보고서의 정의는 매우 일치하는데 서로 다른 사회상황을 구분하였을 따름이다(심씨는 사회변혁을 강조하고, 보고서는 현대화 사회와 인권을 강조하였다).

근래의 <金陵神學誌>에서는, 감보평(關保平)의 <신학 상황에 대한 연구>를 신고 상황화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했다.

『신학의 상황화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현재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아울러 우리들의 존재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상관 결과는 반드시 교회의 일들을 지도하고 그것이 전진하는 방향에서 신앙의 실천을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방법론에서 감씨는, 『비록 상세한 논설은 없지만 상황화는 반드시 전통(사도들이 남긴 것을 가르침)과 변증관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즉 그 의미는 바로 상황과 전통이 서로 배척할 수 없으며, 상황신학은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하는 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큰 원칙상에서는 상황화의 관건이 참여된다.

『신학은 상황화가 반드시 상황과 상호관련되어야 하며 이런 상관은 참여로써만 오는 것이다. 참여를 통해 구체적 상황 가운데 이르러야만 상황을 건립할 수 있고 신학이 비로소 상황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심이번은 총체적 5개 사실로 결론짓고 있다.

- (1) 서민층 인민들의 생활이 개선됨.
- (2) 사회의 죄악이 근절됨.
- (3) 중국의 사회혁명자가 숭고한 품격



귀양(貴陽) 삼자기독교교회의 예배당 전경.
마르크스 종교이론을 근거로 삼은 삼자신학은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정치적, 도덕적 조화를 표방하고 있다.

을 갖게 됨.

- (4) 인민이 단결하여 공통으로 분투하는 목표가 있음.
- (5) 중국의 사회가 큰 곡절을 경험한 후, 현재의 새로운 발전국면에 처함.

등으로 결론 지었다.

진택민은 미국에서의 세미나 중에 근 12년 간 중국상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 (1) 종교의 관용정책
- (2) 종교의 부흥
- (3) 후 종파기
- (4) 신도가 사회주의 사회 가운데서 간증하다
- (5) 문화 기독교도 현상
- (6) 해외와의 교류로 전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다.

중국에 대한 신학자들의 간략한 견해에 의하면, 현재의 상황은 바로 신중국-문혁 四人幫의 좌경화 이후 중국사회는 중국특유의 사회주의에 따라서 건설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나아가 번영하고 부강하고 있다.

상황화와 토착화의 구분

상황화란 단어가 나타난 후, 서양학자들은 더욱 노력하여 토착화와의 구별을 분명히 정리해야 했다.

결국 토착화를 유보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갈래다. 중국에서는 이런 논쟁이 결코 심각하진 않다.

진택민은 『토착화, 상황화 및 문화를 덮어쓰는 문화유입의 사이에서의 실제 구별은 학술상의 구별보다는 훨씬 적다. 사실상 그것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



호북성 무한에 위치한 삼자기독교회 소속 중남신학원. 방학중이라 책상으로 문을 폐쇄하고 있는 모습.

으며 항상 사람들에게 의해 동의사(同義詞)로 보여져서 인용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중국의 신학 토착화와 상황간에 비록 구별이 있다 해도, 「이것이 아니면 저것」(either-or)의 취사선택은 아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진택민은 토착화가 비교적 평면식이며 시간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제4의 공간」이 부족함을 서술하고 있다. 감보평은 양자의 관계를 비교적 분명히 설명했다.

『토착화 혹은 중국화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교회는 중국에서 마땅히 중국문화 전통의 토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하며 외래문화의 산물로서 중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상황화는 신학을 지칭하는 말로써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서양신학을 빌려 쓰지 않고 자신의 특정상황에 근거하여 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황화된 신학은 교회의 토착화를 위해서 기초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

토착화의 증점은 교회가 복음을 중국 문화 토양에 뿌리내리는 것이고, 상황화

의 중점은 신학이며 이것은 교회의 토착화를 이루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심이번의 두 편의 문장으로부터 이런 구별을 지을 수 있다.

<유가사상과 오늘날 중국의 신학사상>에서 심씨는, 복음신앙과 유가의 인세관(人世觀), 인관(仁觀)과 천인관(天人觀)을 비교하는 동시에 비판하였다. 이것이 토착화의 작업이다.

심씨는 『중국교회가 신학사상 중에 있다』에서 전통교의와 현재 신중국의 상황과의 관계를 반성 했는데, 예를 들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과, 성령의 역사의 사회적 측면 등 이런 것이 상황화의 과제라는 것이다.

상황화의 합법 집행인

그렇다면 누가 상황신학의 건립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 비록 서방학자들이 최종적 집행인은 현지인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혼합주의의 출현을 방지하는 데는 외국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 중국의 목자와 신학자들은 모두 일치되는 긍정적 답안을 갖고 있다.

『중국의 종교는 마땅히 중국인이 처리하며 외국인이 지배해서는 안된다.』

『신학반성과 응답의 임무는 마땅히 중국 기독교도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중국 신도들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상황화를 집행할 사람들로서, 어떠한 외국의 도움도 모두 거절했는데 가장 분명한 예가 바로 삼자운동이다.

정광훈은 세계 신의중 연맹에서의 1차 발언 중 분명히 삼자의 의의를 설명하기를 “삼자 운동의 전체 의의는 중국의 교회로 하여금 중국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했다.

정광훈의 기타 발언으로부터 삼자운동의 기초이론을 4개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 독립이란 반드시 교회도 독립해야 함을 암시한다

오늘날 국가는 자주 독립했으나 만약 기독교가 자주독립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타인에게 의지하면 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일종의 외국 점령지가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2) 성경근거

신약시대 많은 지역에서 교회가 생기고 신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인도되어진 것이 지방성이며 모두 본 지역의 색채와는 각기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하는 상황에서 서로 평등했고 수직 복종의 관계는 일체 없었다.

(3) 효율의 근거

과거 1937년 이래로, 중국기독교도의 숫자가 70만 명에서 4백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중국 기독교도들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외에 삼자운동도 중국 신도가 증가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4) 전세계 교회의 진의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중국교회는, 외부에 의지하는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보편적인 세계 교회와의 상호관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광훈은 삼자운동이 「하나님이 중국을 위해 예비한 것」, 「교회본성에 부합되어 역사 조류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형용했다.

외국이 베풀어 준 도움에 대해서는 삼자를 위배하지 않거나 교회 독립자주에

영향이 없는 상황 아래선 받아 들일 수 있으나 만약 원칙에 위배 된다면 모두 거절할 것이고 반 중국적인 침투작업이라 단정하겠다고 하였다.

복음의 핵심

할레브레인은 이 모든 것이 상황화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문화를 초월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중국신학자들의 답안을 검토해 볼 때, 오늘날 이르기까지 완비되고 정돈된 계통신학 저작이 없다는 난제가 존재하며 선언과 성경을 참고로 한 설교, 강의, 문장 등으로부터 찾을 수 밖에 없다. 복음의 요소가 구도화된 하나의 그림으로 대두되어 심지어 신학의 모형으로까지 여겨진다.

이 그림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진택민의 묘사인데, 『하나님과 사람, 두 개의 초점(중심)을 둘러싸고 구성된 타원형의 신학 체계는 점차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원심이 되고 인류사회가 원주가 되는 원형체계로 개조될 수 있다.』

즉,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시며, 성육신 하심으로써 가지고 온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이다. 만약 원심이 원주의 정위점으로 된다면, 화해는 현재 인류사회(더욱이 중국)를 유지하는 근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화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하에서 전통교의에 대해 새로운 반성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최후의 종말에 이르러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초에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자연과 은혜... 만약 우주를 끊임없이 변화되는 연속과정으로 간주한다면 창조, 진화, 구속과 최후의 완성은 더욱 간단하며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화합은 전통으로 하여금 신학적이원론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사회각도를 통틀어 포함한다.

바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몸 위에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인자(人子)가 되는 과정 중에서, 중국교회는 본체론의 단계로부터 하나님과 사람, 믿음과 행위, 영혼과 육체, 하늘과 인간,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 하나님 안에 감취진 하늘에 속한 생명과 땅 위에 나타내는 입신처세 등의 모순적관계를 해결하며, 그것들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계신 곳에 통일을 이루게 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평론

필자가 이런 신학 상황화의 성과를 평론할 때, 확실히 조천은(趙天恩)이 언급한 곤란한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삼자가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을 대신하여 신학상에서의 변호를 하는지, 혹은 기독교도(삼자가 대표가 됨)가 사회주의 국가의 압력하에서 생산된 진실을 반영하는 것인 지의 문제이다. 필자는 그들의 논설에 따라 그 특색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1. 신학 상황화의 문제점

사실 20년대부터 중국에서 복음(신학)이 끊임없이 상황화가 되어서 사회로부터의 도전에 망설여야 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화합은 전통으로 하여금 신학적이원론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사회각도를 통틀어 포함한다.

**신학이 실제로
신도들의
생활실천을
지도하고 상황과
상관관계하에서
선지자의
비판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현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그 출발점
이다.**

다시 말해 신학사상의 중점은 변화이
다.

왕유번(汪維藩)은 40년 이래의 신학사
상을 총결하여 3단계의 크라이막스로 결
론을 내렸다.

첫째, 5. 4 전 후기 : 기독교가 중국사회
의 심리건설과 인격조성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둘째, 1956년 전후에 출현한 기독교가
사회주의 중국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셋째, 중국교회와 중국민족이 공통으로
큰 재난과 시련을 겪은 후 인식론의 단계
가 본체론의 높은 단계까지 끌어올려졌
다

그러므로 신학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있어 상황화는 필수적 과정이다. 이것 역
시 그들의 신학사고에 사회성과 시대감
각의 특색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음을 표
현하는 것이다. 이 방법론 혹은 신학에
대해 설명할 때 분명한 것은 실천과 참여,
경험으로 귀결되어 일종의 경험신학이
되며 서양 전통 사유성의 계신신학과 구
별되어진다는 것이다.

사부아(謝扶雅)는 『전자의 행위로서
믿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후자는 안다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양자가 서로 다
르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경험신학의 장점은 신학(신앙)
을 생활화하며 신도의 생활과 신앙이 활
발하게 대화하도록 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단, 아래의 2가지는 검토해 볼만하다.

(a) 상황이 전면적이지 못함.

필자는 심이번과 진택민의 묘사한 상
황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다고 생
각하나 근 10여 년의 중국 사회의 상황

을 반영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여겨진다.
경제개혁이 확실히 어느 정도 인민의 생
활을 개선한 것에는 의심할 바가 없으나
그 후에 사회문제가 도리어 증가하고 있
으니 바로 중국사회의 곤경을 잘 반영하
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제도와 경제개혁으로 출현한 부조
리, 경제개혁에서 도출된 사회범죄 문제,
학생운동으로 나타나는 의식형태의 반항
과 민주주의 추구, 문화의 부흥으로 지식분
자들이 사상의 탐색을 나타내고 종교에
대해 호소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결코
전면적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님을 분명
히 나타내며, 이런 사회문제가 더욱 현재
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신학이 실제로 신도들의 생활실천을 지
도하고 상황과 상관관계하에서 선지자의
비판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현상태
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b) 상황으로부터 성경을 해석

상황화 가운데 본문(text)과 상황
(Context)과의 평형점을 찾기란 매우 힘
들다. 비록 감보평이 하나님은 상황에 대
해 말씀하시고 상황으로써 하나님의 계
시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실제와
정 가운데서는 자주 상황으로써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정광훈이 삼자를 위해 제출한 성경적
근거는 결국 얼마나 독립정책의 수요에
기초하는 것인가?

또한 바울의 신학사상은? (필자는 사
도행전 15장에 기재된 예루살렘 회의에
서 기본적으로 토론된 문제는 이방인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베드로, 바울 등의 논증에 하나님의 은혜
로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결
코 교회가 독립자주를 요구한 원인에 기

초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진택민은 이전에 서술하기를 “우리 신 학교에서 나이 많은 한 선생님이 말세론에 대해, 스스로 깨달아 전 천년설에서 후 천년설로 전환하였다. 왜냐 하면 그는 신중국을 긍정하므로 이러한 국가, 사회, 인민들이 하루 아침에 허물어지리라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년 왕국의 토론은 성경구절의 해석을 취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실정을 취한 것인가? 만약 후자에 의거한다면 세계 각 지방이 똑같이 합리적으로 그들의 천년 왕국관을 지킬 것이 아니겠는가!

2. 토착화의 한계

상황화와 토착화의 구별을 처리하는 가운데 중국의 신학자들은 분명히 구분할 뿐 아니라 양자의 효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온 이후 20년대까지 발표한 대량의 본색 신학 저작이 성과를 거두어 지금의 상황화에 참고가 되는 것은 확실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 토착화에 대해 2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다.

(a) 상황화로써 토착화를 제한함.

심이번이 쓴 <유가사상과 오늘날 중국의 신학사상> 가운데의 토론방향은, 말쑤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화해관과 일치하나 기독교 신앙과 유가의 심충적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력과 타력의 문제, 인생론의 토론 등으로 들어 홍콩, 대만의 토착화 토론과제와 비교해 볼 때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b) 모델(유형)은 여전히 한계를 지님.

<금릉신학지>에서 토론된 <기독교와 중국문화>의 문장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유가를 비평하는 것과 유가를 보충하는 스타일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왕유번(汪維藩)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격으로 중국 인격을 재창조한다」고 했으며, 鑑珠는 유가 윤리로부터 생산된 부정적 인간본성을 비판한 후에 기독교 안에서 비로소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인」의 숨은 뜻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 등 모두가 이런 완전한 모델(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라 지적했다. 근래 홍콩, 대만의 학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분명히 뒤떨어져 있다.

3. 삼자의 한계

중국에서 신학자들은 자기의 사명이 신학상황화의 집행자라는 데 매우 분명한 태도를 지닌다. 그러나 삼자 운동으로 건립된 상황신학(삼자신학)은 일종의 격리되고 봉쇄된 상황의 국면을 명확하게 표현해내며 서양신학자들에게 이런 상황신학이 혼합주의 혹은 차복음성(次福音性)이 아닌지 걱정을 금할 길 없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삼자 신학의 성경적 근거가 해외 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이(삼자신학자)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시키고 회생시켜 성경을 Proof-text로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케 한다.

이런 한계들, 즉 (a) 해외의 도움을 거절함으로써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 효과가 저하되며 (b) 단독의 의식 형태를 이름으로써 신학사고를 형성하는데 대한 장애물로 존재 (c) 공통성이 부족한 신도의 영적 경험 등을 초래하게 된다.

**삼자신학의
문제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가
순종과 죽음을
통해 화해와
구속을
성취했다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데 있다.**

4. 복음의 핵심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화해가 복음의 핵심(신학의 원점)이 되며 중국신학자들의 상황화의 성과이며, 또한 장래 조직신학의 방향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다. 이 핵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반드시 엄격하고 신중하게 성경 진리와 부합하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우선, 필자가 이 화해의 소식을 의심하는 이유는 이것이 시의적절한 필요에서 기인된 것인가? 아니면 심층적인 반성에서 기인한 신학의 성과인가에 대한 불분명함에서 비롯된다.

정광훈은 ‘화해의 소식’ 가운데 복음의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간과 그로 하여금 화합케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오늘날 중국 사회가 이미 대 구도의 계급투쟁 단계에서 안정 단결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리스도 화해의 복음이 건설의 단계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문제가 결코 충분히 결정된 사실은 아니다. 왜냐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 계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화해의 소식이 성경 진리에 부합되는지에 있다.

화해 신학의 기초는 우주의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가 사랑으로써 전 우주에 대해 본질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그리스도 역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이며, 바로 그의 사랑이 우주(세계)에 대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의 가장 구체적 표현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으며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부

터 이 화해(우주의 그리스도의 사랑)는 영과 몸을, 영에 속한 것과 세계에 속한 것을, 하늘과 땅, 그리고 금생과 영생의 대립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신학의 신도들에 대한 구체적 지도는 바로, 「신학의 임무는 마땅히 화해이며, 그것은 좋은 쪽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에 인민들과 분리되었던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다시 수많은 중국 인민들과 서로 동일시 하고 화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크리스천과 믿지 않은 자가 모두 원주상에 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된 중심점에 의지해서 관계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삼자 크리스천과 신학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민의 입장에 서서」 다른 한편의 크리스천에 대해서도 배척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 되어진다.

만약 이런 화해 신학이 통일전선정책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내용만으로 말한다면 어떤 관념들은 찬성할 만한 것이다. 예컨대 창조와 구속관계, 우주적인 화합, 영혼과 육체의 합치관 등이다.

그러나 그들 신학의 문제는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며, 그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 화해와 구속을 성취했다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데 있다.

성육신 하신 것과 십자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그렇다」와 「아니다」인 것이다. 바르트(kal barth)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

이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이며 인간의 불의를 대표하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렇다」라고 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죄인을 의롭다 일컫는 사실을 대표한 것이라 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로부터 「그렇다」까지, 심판으로부터 의롭다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심판」이 없는 화해관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며 여전히 인간의 자의에 불과하다!

삼자의 화해 신학은 바로 이 십자가의 「아니다」를 소홀히 했으며 인간과 사회의 비판을 잃어버렸다.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얻는 복음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칭하는 복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삼자와 화해 신학의 결과는 바로 포용주의와(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의 차이임) 사회진보주의(인간의 「그렇다」)에서 분명히 나타나지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독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이 점은 진택민의 말에서 똑똑히 나타난다.

「나에게 있어 기독교는 독특한 것이며 또한 내 개인이 믿기로 선택한 것이지만 기타 여러 이유들로 인해 다른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꼭 나처럼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미 믿음을 갖고 헌신한 크리스천으로써,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이는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요 온 인류 사회를 위한 것이다.」

결론

중국의 이러한 특수 상황에 직면하면서 여러 차례의 정치운동, 의식형태의 제재, 경제 개혁의 사회, 종교가 정부에 의

해 조정을 받고, 지식분자가 곤고한 탐색을 받는 것,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단결하고 건국 하는가 등등, 신학하는 자들이 상황화 과정중에서 당면한 문제 역시 독특할 것이다. 예컨대 어떻게 상황화 신학을 만드는가 역시 독특한 방향이 있다. 필자가 그들의 신학사상 성과를 점검할 때 비판할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긍정적인 것은 신학의 상황화 진로인데 신학 반성을 순 추리사고로부터 신도들의 교회에 들어가는 구체적 신앙 실천, 그리스도론을 기타 교의의 진로에 연관시키는 것 등이며, 부정적인 것은 복음 핵심의 완전성의 결점이다. 지나친 성경해석으로 상황화와 상황에 대한 측면이해가 선지자의 비판성을 잃어버리게 된 점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중국에서의 상황신학이 끊임없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 진정 중국에서 상황의 복음 신학이 수립되는 것이다.

번역자 주

- * 복음상황화; 복음을 현 중국 상황에 맞게 전파하여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말함.
- * 복음토착화;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한도내에서 중국 고유의 문화와 조화시킴으로써 중국에 그 복음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을 말함.

(『中國與教會』 97기 중에서)

번역:이성철(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중국선교의 밀알 장안원교회

동대문구 장안동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안원교회.

마치 잘 알고 지내는 이웃 아저씨처럼 우리 기자 일행을 맞이해 준 민선규 목사와 첫 만남은 편안했다.

교회도 목사님을 닮았을까? 시골 둔덕에 자리잡은듯한 수더분한 인상의 교회 건물이 웬지 마음을 폭 놓아도 괜찮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다.

주위의 아파트 단지가 지은 지 20년에 다 되온다니까, 아

파트 종교부지에 세워진 교회 건물도 그만큼의 연륜을 지닌 셈이다. 거의 개척하다시피 해서 고생도 많았는데 이제 좀 안정되어 간다는 설명. 그래도 규모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감당한 중국선교의 역할은 만만치 않은 터였다.

어떻게 중국선교에 뛰어들게 되었을까?

민 목사의 설명은 이러했다. 지난 87년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서 중국선교를 위해 활약하시던 어떤 한국 목사님의 방문을 받았다. 중국 동북지역의 모 삼자교회의 목사님이 교회신축을 위해 한국교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이 삼자교회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알게 된 유명한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지원을 부탁하는 편지를 수차례 띄웠건만 통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안원 교회에서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권유였다.

소요경비는 약 3,000만원. 그때 당시 장안원교회 1년 예산의 1/3이 넘는 거금이였기에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민 목사와 장안원교회가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우연찮은 만남 때문. 민 목사가 다른 일로 극동방송에 갔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유관지 목사로부터 한 삼자교회의 지원 요청에 관한 내용을 듣고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권유받았던 바로 그 교회였다는 것이다.

이때 민 목사는 이것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느꼈다고 한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재정적으로 지원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이 일을 맡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해외의 교회가 중국 내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극히 위험시 되었고, 실제로 이 일을 추진했던 그 중국 교회의 목사님은 종교국에 불려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장안원 교회가 그 중국교회를 지원할 때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또 그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았기에 결국 중국 당국으로부터도 결과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일을 시발로 여러 삼자교회를 돕게 되었는데 그 속에는 한족 삼자교회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 여파로 조선족 교회 설립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비록 공식적인 교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마 장안원교회가 중국의 삼자교회와 실질적인 교류를 튼 최초의 교회가 아니었나 싶다.

아무튼 구체적인 어려움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작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역을 행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은 능히 짐작할 만한 일.

민 목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중국 선교를 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금을 적립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 점점 어려워지는 북한의 형편 때문에 중국 국경을 넘는 도망자가 급증하리라는 예견을 하면서 그들을 받아 보살피 주는 성경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할 곳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일은 한 교회만으로는



역부족이니 여러 교회가 연합 협력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때를 위해 기금 조성을 할 수 있었으면 했다.

이 제안은 어쩌면 획기적인 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의 사역에 급급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막상 그런 필요에 도달해서 아무 손을 쓸 수 없다면 아마 그때는 너무 늦은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일에 이제 교회들이 속속 나서야 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하기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국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장안원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중국 선교에 있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너도 나도 이름 내고 빛을 내기를 즐겨하는 풍토에서 마치 들꽃처럼 피어 향기를 전하고 있기에 우리는 장안원교회에서 그렇게 편안했는지도 모른다.

글 • 한영혜

중국 소수민족의 종교신앙(II)



소수민족은 여전히 강한 가족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백족(白族) 어머니의 활짝 웃는 얼굴과 어린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태족(傣族)

보편적으로 소승불교를 믿으나 원시 귀신숭배신앙의 잔재도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기독교를 믿기도 하나, 어떤 지방에서는 관제(관우), 관세음, 龍神, 龍樹 등을 믿는 곳도 있다. 또 백문(伯門, 남자무당), 사낭(師娘, 여자무당) 등으로 불리우는 교직자들은 점복, 병치료 등을 하기도 한다.

소승불교에서 남자는 일생중에 한 번은 출가하여 승려의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새 사람 혹은 교화를 받은 사람으로 되어 가정을 이루거나 직업을 가질 권리를 얻게 되며, 그렇지 아니하면 사회의 멸시를 받게 된다. 승려가 환속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고 쉬우며 환속한 승려는 본래의 신분에 따라 새로운 칭호로 불리게 된다.

리수족(傈僳族)

노강(怒江)지구의 리수족은 원시 자연숭배와 만물정령사상을 갖고 있으며, 내지의 리수족은 대부분 조상숭배사상을 갖고 있다. 내지, 변경지역 모두 장례, 절기행사, 질병치료 등에 무당(리수족은 니말(尼帕) 혹은 니고말(尼古帕)로 부름)을 청하여 가족을 잡아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신복을 행한다.

일부 소수 리수인들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기도 한다.

와족(佤族)

대부분 만물정령의 원시종



포의족(布依族)



장족(壯族)



서족(畚族)

교사상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소승불교나 기독교신앙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자연, 인간, 생물, 무생물 등이 모두 精靈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며 화복(禍福)과 안위(安危)가 정령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납호족(拉祜族)

만물정령, 다신숭배의 원시종교와 대승불교를 믿으며, 일부 소수인들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고 있다.

공통적으로 액하대신(厄霞大神)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액하를 우주인류를 창조하고 만물을 주재하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으로 믿고 있다. 또한 모발(募撥, 무당)이 있어 혼인상제 등의 예식이나 질병, 출생, 생육 등의 문제를 점복으로 판단하고 있다.

납서족(納西族)

보편적으로 東巴教(達巴教라

고도 한다)를 믿는데 이는 일종의 다신교로서 천지, 산수, 풍화 등의 자연이나 만물을 정령시한다. 질병, 혼인상제, 절기 등을 만나게 되면 동파(무당)를 청해 경을 읽는다.

명대에 라마교가 여강(麗江)지구 들어온 후 일부가 믿기도 한다. 도교, 기독교 등도 들어 왔으나 신자는 많지 않다.

경파족(景頗族)

보편적으로 만물 정령적인 다신교를 믿으며 귀신이 행복이나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식이 매우 성행하고 있다. 무당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이외에 병치료도 한다. 제사의식에는 사묘에 제사, 음식헌납, 헌물, 귀신부르기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농업생산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파인 중 소수는 기독교를 믿기도 하나

태족과 인접하는 지역에 사는 경파족은 소승불교를 믿는다.

포랑족(布朗族)

다신교와 조상숭배 신앙을 갖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포랑족은 소승불교를 믿고 있다. 대부분의 각 촌락에는 절이 있으며 배불 활동도 성행하고 있다. 아동들은 아홉살 전후에 절에 들어가 일정기간 승려생활을 하는데 사회적 여론은 승려생활을 거치지 않으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기독교를 믿기도 한다. 포랑족의 종교활동 주관자는 백마(白摩, 무당), 화두(伙頭), 승려 등이다.

아창족(阿昌族)

양하(梁河)지역의 아창족은 아직까지도 원시적 영혼, 귀신숭배나 조상숭배 사상을 갖고 있으며 호랍살(戶臘撒

지구의 아창족은 소승불교와 함께 부락신을 믿고 있다. 각 촌락 부근에는 부락신목이 있으며, 매년 춘경기나 추수기에 한 차례씩 부락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부락민의 보호와 가축의 흥왕, 곡식의 풍성한 수확 등을 빌고 있다.

보미족(普米族)

보미족은 조상숭배, 라마교, 자연숭배 등의 신앙을 갖고 있다. 무당을 ‘한규(韓規)’, ‘사화(師華 혹은 師西華라 함)’ 등으로 부르는데 각지에서는 무당을 불러 산신, 수신 등에게 제사하는 제사의식을 행하고 있다.

매년 명절, 혼인, 출산, 여행, 수확 등 시기에는 무당을 초청해 제사, 독경, 기도 등을 통한 재난방지나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다.

노족(怒族)

주로 원시종교, 자연숭배 등의 신령사상을 믿는데 인간의 생노병사, 천지재앙 등을 모두 귀신의 작용으로 믿고 있다. 무당을 碧江에서는 ‘米亞樓’ 혹은 ‘禹古蘇’, 福貢에서는 ‘尼瑪’ 혹은 ‘達施’, 貢山 북쪽에서는 ‘納木紗’ 등으로 부르고 있다. 무당들은 각종 종교의식, 점복술, 귀신을 쫓는 일 등을 할 뿐 아니라 무의(巫醫)의 역할을 겸하여 병도 치료하고

있다. 藏族과 인접한 貢山 북쪽의 노족은 라마교를 믿는다. 일부 노족은 천주교, 기독교 등을 믿고 있다.

덕앙족(德昂族)

소승불교와 원시신앙을 독실히 믿고 있다. 배불신앙도 매우 성행하여 비교적 큰 촌락마다 사찰, 부처, 승려 등이 있다. 일부 자식이 많은 덕앙족인은 6, 7세의 어린아이를 사찰로 보내 동자승을 시키고도 있다. 이들은 십여 년 동안의 승려생활을 거쳐야 비로소 승직이 승진되어 ‘부처’(승직명)의 칭호를 갖게 된다. ‘부처’는 경전의 독송을 맡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으나 결혼은 할 수 없다. 명절이나 장례 등의 행사에는 승려를 불러 독경을 행하고 있다.

소승불교 중에서도 윤교파(潤教派) 신자는 닭, 돼지 등을 기르거나 살생을 할 수 있으나, 좌저(左底), 다열교(多列教)파 신도들에게는 가축사육, 살생, 음주, 타인에게 욕하기 등이 금지되어 있다.

독룡족(獨龍族)

만물정령, 자연숭배 사상을 갖고 있으며, 자연계의 산천, 하류, 큰 나무, 거석 등은 모두 사람들의 숭배대상이 되고 있다. 제사나 점복을 행하는 무당을 독룡족에서는

‘납목사(納木紗)’ 혹은 ‘탈목사(奪木紗)’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들은 전적으로 종교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근로에 참가하고 있다. 소수의 독룡족은 기독교를 믿고 있다.

기낙족(基諾族)

만물정령과 조상숭배의식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무당은 두 종류가 있는데, ‘포랍포(布拉胞)’, ‘막비(莫丕)’ 등이다. 막비는 일반적으로 닭, 돼지 등을 죽여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자격만이 있고 포랍포는 소의 각을 떼서 의식을 치를 수가 있다. 포랍포의 위치는 막비



요족(瑶族)의 어린이들.
동생을 돌보고 무거운 짐을 드는 등
가난한 살림을 꾸리는데 어린이들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보다 높고 독특한 점복술을 행한다. 이 두 무당은 종교 활동 이외에도 약초를 통한 무속치료를 행하고 있다. 종교 활동과 사람들의 생산 활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묘족(苗族)

자연숭배, 귀신숭배, 조상숭배 등을 행하며, 신령(神靈)에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재난 방지와 사악함을 없애는 기도를 행할 때 무당이 귀신을 쫓는다. 천주교, 기독교를 믿는 이도 있다. 귀주, 호남, 운남 등지에 기독교 교회당이 있고 선교가 되고 있는 지역 중에는 묘족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포의족(布依族)

조상숭배와 다신신앙을 갖고 있으며 자연숭배를 주로 하고 있다. 그 중에는 부락

신, 산신, 수신, 석신, 수목신 등이 가장 보편적이며 번개신, 문신, 부뚜막신, 토지신, 연못신 등도 많이 숭배한다. 천주교와 기독교를 믿는 이도 있다.

동족(侗族)

다신신앙으로 자연물, 고목, 거석, 우물, 다리 등이 모두 숭배대상이다. 여신 '살세'(薩歲, 부락을 창립한 시조 모의 의미)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며 대부분 촌락에 살세묘가 있다. 닭점, 풀(草)점, 계란점, 소라점, 쌀점, 역술점 등으로 길흉을 점치고 있다.

수족(水族)

다신신앙이며 자연물, 우물, 거석, 고목 등이 모두 숭배대상이다. 섬기는 귀신의 이름이 무척 많다. 생사, 질병, 재앙시에는 모두 여자무당을 불러 점을 치고 경을 읽

으며 가축을 죽여 제사를 지내는데 어제(魚祭)가 특징적이다. 점치는 방법에는 주로 계란점이 있다.

청말 경, 수족지구에도 천주교가 전파되었으나 신자는 극소수이다.

걸노족(仡佬族)

조상숭배를 주로 하고 있고, 고목신, 산신, 토지신 등을 믿고 있는데, 조상숭배 의식은 각지마다 모두 다르다.

어떤 지역에는 제단이 없으며, 어떤 지역에는 부엌에 한 조각 작은 목판이나 지전 몇 장을 붙여 놓고 조상의 신위를 표시하기도 하며,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제일 가까운 언덕을 조상이 변신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부엌 가마솥 앞에서 조상의 이름을 외우거나 제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걸노족은 대부분 사묘, 사원, 보살 등이 없으며 종교조직 기구와 문자화 된 교리가 없다.

19세기 이후 천주교가 전래되었으나 널리 전파되지는 못하였다.

장족(壯族)

산신, 수신, 토지신, 부엌신, 태양신 등의 다신, 자연숭배 사상이 성하다. 당대(唐代) 이후 불교, 도교 등이 차츰 장족지구에 들어왔다. 근래 이래 일부 지역에서는 천주교, 기독교를 믿고 있다.



서장(西藏)의 좌시(座市) 풍경
개혁 개방의 영향으로 소수민족들의 상품경제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요족(瑤族)

신앙상태가 비교적 복잡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원시 자연숭배와 조상숭배, 토tem 숭배가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무교와 도교를 믿는다. 도교의 요족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커서 장례, 제사 등의 의식에는 기본적으로 도교의 법에 따라 진행하여 그 중 일부를 원시종교의 의식으로 섞었을 뿐이다.

무라오족(仡佬族)

도교를 주로 믿으며 불교도 믿고 있다. 무라오족 지구에는 불교사원이 많고 규모도 거대하다. 일반 민중들의 일상생활에는 도교가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병이 나거나 자연 재해가 생기면 도교의 법사를 불러 귀신을 쫓는다. 도교는 또한 모산교(茅山敎), 매산교(梅山敎) 두 파로 나뉘어 지는데 무라오족에서는 매산교의 법사를 많이 청하여 종교행사를 가지고 있다.

모난족(毛南族)

도교와 다신교를 믿는다. 발원과 감사예불은 모난인의 가장 주된 종교활동이며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고 일반적인 소원들도 신앞에서 아뢰는 것을 보편화하고 있다. 만약에 발원한 일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감사



고산족(高山族) 추장

의 예참(禮參)을 드려야 한다. 또한 발원의 규모도 매우 성대하여 심지어는 36마리의 축생을 제물로 잡아 올리며 3일 밤낮을 행하는 의식도 매우 성하다. 소수의 모난인은 기독교를 믿는다.

경족(京族)

주로 도교를 믿는데 불교와 무속이 혼합된 색채를 띄고 있다. 극히 적은 인원이 천주교를 믿는다. 종교 활동 담당자는 사부(측, 일종의道士)와 강생동(降生童)으로 불리는데 각 마을에는 3, 4인의 사부와 5, 6인 혹은 그 이상의 강생동이 있다. 장례때에 사부를 모셔 제례를 행하는 이외에 강생동은 재

앙을 없애고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기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상숭배와 다신교가 성한데 숭배하는 대상은 대부분 바다와 관련이 있는 신이다.

토가족(土家族)

주로 민간 종교(귀신, 조상 숭배)를 믿는다. 과거에는 주로 토왕을 믿었으나 각 촌락에는 토왕묘가 없다.

매년 봄에는 융숭한 토왕제 의식을 거행한다. 이 밖에 자연 숭배사상도 있어 매번 사냥시마다 꼭 산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도교는 토가족의 종교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



서족의 민간 무용

다. 천주교, 기독교 등도 토가족 지구에 전파되어 있다.

여족(黎族)

대부분 지역에서는 조상숭배를 주로하고 자연숭배를 병행해 닭뻐짐, 계란짐 등이 성행되고 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토템신앙의 흔적도 있다. 사람의 질병을 조상이나 산귀신 등의 작용으로 보고 '낭모(娘母)', '도공(道公)' 등을 칭해 가축을 잡아 제사지내 귀신을 보낸다.

도교도 여족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쳐 도교의 신사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근래 들어 소수의 여족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서족(畬族)

대부분 조상숭배를 하고 있다. 주로 믿고 있는 것은 시조인 반호(盤瓠)이며, 집집마다 반호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토템신앙의 흔적도 있다. 그밖에 귀신도 믿는데 여족에 있어서의 귀신 관념은 중요한 통치력을 지니고 있다. 일부 여족은 불교를 믿으며 사원을 건축하기도 하였다.

고산족(高山族)

주로 영혼숭배와 조상숭배 토템숭배 등을 하고 있다. 조상의 영혼을 신으로써 숭배하고 조상의 교훈을 신의 뜻으로 받들어 그 교훈을 범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전래된 후 일부

고산족은 기독교를 믿는다.

각 지역마다 많은 제사형태가 있다. 평지에 사는 고산족은 수확제, 파종제, 구충제(驅蟲祭) 등을 지내고 산지와 연해지역의 고산족은 수렵제, 어제(魚祭) 등을 지낸다. 무속이 비교적 성행하여 다양한 점복 방법, 새점, 물점(水占), 꿈점, 죽점(竹占), 표주박점, 음식점 등 각종 형태의 무술이 있다.

(『中國民族指南』 중에서)

번역/배다니엘

(중국어문선교회 협력간사)

공산주의에서 기독교로

- 한 중국지식인의 마음의 여정 -

무 명

**모택동이야말로
중국인민을 구한
큰 별이며
공산당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맹목적인 모택동 숭배

나는 신과 인간이 뒤바뀐 시대, 사람과 귀신이 뒤바뀐 시대에 성장했다. 소년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조차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인간을 신처럼 받들어 왔다.

나는 시가와 음악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찬미시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찬송가의 가락도 듣지 못하고 자라왔다.

대부분의 중국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맹목적으로 모택동 주석의 말을 따랐고 공산당과 노선을 같이 했다. 모택동이야말로 중국인민을 구한 큰 별이며 공산당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갑자기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시골로 내려가 빈농에게 주어지는 재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큰 환난 중에 나는 모택동을 찬미하는 수많은 시와 노래를 지었다. 지금 나는 한 평범한 인간을 신처럼 받들어 노래했던 것을 참회한다. 당시 중국의 재난의 근원이었던 「造神運動」에 내가 한몫 거들은 셈이었다.

역사의 비바람을 겪으신 나의 부친은 모택동과 임표의 진면목을 명확히 꿰뚫고 계셨다. 그런 몸서리쳐질 정도의 어두운 세월 속에서 아버지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해 본 적이 없

었다. 어쩌다 가족들에게 이런 견해를 노출시키게 되면 당장 나와 내 형의 비판을 받곤 했다. 나는 회개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님의 영혼이 안식하길 기도한다.

나는 대대로 학문을 하는 집안에 태어났다. 해방 초기의 토지개혁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신분계급은 아직 구분되지 않았는데, 우리 집안은 자유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조그만 땅뽕기를 세놓은 정도였다. 그러나 동 주민회의에서 암묵적으로 우리 가정을 상공업 겸 지주 집안으로 변경시켜 놓았다.

나는 스스로 한 번도 공산주의 청년단과 공산당의 조직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는데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성실하고 정직한 자로 반정부 활동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후 어떤 사람이 단체에 가입을 추천하자 이 청년회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나의 이성

나는 모택동과 마르크스 레닌의 저작을 읽기 시작했다. 그 후에 「工農兵學員」으로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여 문학과 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리게 된 것은 마르크스의 <1844년 경제학 철학원고>로부터였다. 마르크스의 청년시절의 저작인 이 작품은 자본주의 조건하의 異化勞動을 분석한 내용으로, 인간의 해방



중국인들은 여전히 모택동을 '중국을 구한 큰 별', '새 시대의 창조자'로 숭상한다. 자신이 모는 트럭에 모택동 초상화를 붙이고 다니는 청년.

과 인간의 본질적인 역량의 전면적 실현을 주장했다.

그는 공산주의가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일의 분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 오늘은 낚시를 내일은 사냥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부와 사냥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저작의 번역자 주광잠(朱光潛) 선생의 해석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사람은 그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고, 사물은 그 용도를 다 발휘하는 사회'이다. 이런 자유로운 유토피아는 사람에게 매우 유혹적이다.

나는 내 재능으로 볼 때 문학가 혹은 예술가로 진출하면 내 적성에 맞을 뿐더러 이 사회에 봉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강제로 농민이 되어야 했다.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며 개인의 발전을 억제하고 사회의 인재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느낀 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여, 공산주의 이상을 위하여 분투할 것을 다짐했다.

중국 공산당 제11차三中全회의는 스스로 자기 역사의 착오에 대한 진실한 검토를 표명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확한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개방 개혁은 중국에 한 가닥의 생기를 가져다 주었다. 모택동도 신의 위치에서 내려졌다. 그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인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나는 1985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

다.

처음으로 성경을 읽다.

이와 동시에 나는 북경대학 증문과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을 밟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서양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문학적인 각도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은 다른 하나의 새로운 정신적 영역이었고 완전무결한 정신세계였다. 공산당으로부터 인민의 혁명투지를 마취시키는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불리는 기독교가 나에게 그 어떤 독약도 아니었고 나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이 지혜의 책이며 아름다움과 진리가 충만한 책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나의 주요 연구과제는 그리스의 비극이었다. 이는 서방문화의 양대의 큰 원천 중 하나로서 반항과 진취적인 면이 있는 반면, 개성원칙을 지나치게 복돈음으로 인해 개인주의로의 팽창과 격렬한 사회경쟁을 초래하는 잔인한 일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미추아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 남편과 낳은 자식을 죽여 보복함으로써 인류사회에 영원히 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는데, 이런 행위는 희랍정신 중의 하나인 중용의 정신에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으로 대표되는 히브리 문화가 펼치는 봉사 정신과 언어규범, 인간성, 인생태도 등을 인류가 모두 갖고 행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세상을 구하는 복음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때, 기독교의 박애정신과 마르크스가 제창하는, 오직 전 인류를 해방해야 만이 무산계급을 해방할 수 있다는 사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단식하는
학생들의 안위를
근심하게 되었고
정부의 냉담함에
분노를 느꼈다.**

서양문명의 발전과 희랍정신과 히브리 정신의 대립 상호보완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나는 기독교 또한 인류의 진보적인 문화 중의 하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을 뒤로하고...

1989년 나는 호남성의 모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나는 몇 년 동안의 당 조직생활을 통해, 큰소리만 치고 거짓말과 과장된 말을 하는 당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 내의 부패로 엉망이 된 관료들은 되어 당내에서 서면으로 내리는 강령지침과는 전혀 판판으로 행동하였고, 당 중앙에서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거꾸로 된 현상은 중국의 지식층을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했다.

'89년의 천안문 사태 때 지식분자 특히 젊은 학생들의 애국적인 정열과 그들의 비감한 정신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단식하는 학생들의 안위를 근심하게 되었고 정부의 냉담함에 분노를 느꼈다.

내 아내도 인도주의 정신이 농후한 교사였다. '89년 5월의 마지막 날, 내 아내는 북경 천안문 광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겠다는 두 학생을 보고 그들이 격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을 보호하려고 같이 북경으로 갔다. 그때는 순진하게도 계엄군들이 학생들에게 총을 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다행히도 내 아내는 6월 1일 학생들을 데리고 무사히 북경을 떠날 수 있었다.

6월 4일의 총소리는 중국인의 꿈을 깨웠고, 일부 양심이 잠들어 있던 중국 사

람들의 도덕적인 의분을 불러 일으켰다. 그날 밤 나의 아내는 학교에서 거행된 애국 동포의 추도식에서 정부의 만행을 질책하는 연설을 했고 나는 공산당을 탈당한다는 선언을 했다. 탈당 성명에서 나는 "중국 공산당은 이제 내가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당이 아니기에 오늘부터 나는 중국 공산당에서 탈당한다"고 썼으며, 서명하기를 "1989. 6. 4은 당의 수치, 나라의 수치, 군대의 수치의 날이다." 라고 하였다.

6월 5일에 거행된 전 도시 차원의 군중 집회에서 나의 아내는 다시 한 번 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죄가 되어 3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나는 이미 탈당 하여 당 조직에서 해고되고 교사자격증도 박탈당했으며 월급도 두 급이나 낮아졌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의 역경 속에서 신에게 빌어 보았고 점도 쳐 보았으며 하나님에게도 도와달라고 구해보았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열성적인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특히 내가 강단에서 미학을 강의할 때나 학생들의 공개적인 집회에 나타날 때마다 청년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는 나에게 위로와 자신감을 주곤 했다.

나는 진, 선, 미의 추구가 기독교의 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식층 중에도 비열하고 추악한 위선자가 있었다. 내 아내가 재판을 받을 때 중공 당 지부 서기가 갑자기 법원에서 사실을 날조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었다. 이때 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사야 42 : 3)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공의가 언제쯤 이 땅 위에 이뤄
지겠나이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조금
도 없는 사람들은 어떤 나쁜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신앙의 파멸

내가 공산주의 신앙을 전적으로 부정해
서 중국 공산당을 탈당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때 단순히, 중국 공산당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당으로 당 자체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
이었다. 당의 이익과 인민의 이익사이에
충돌이 생길 때 인민들의 이익을 희생시
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처음 당을 가입
할 때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

1989. 6. 4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당의 이
런 사상과 내 사상은 더욱더 일치하기
어려웠고, 그런 비인간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에 동의할 수 없었다.

내가 탈당한 뒤, 동 구라파의 급속한 변
화와 소련의 해체 등 국제적인 정세 변화
가 나타나면서 나의 마음 속에는 종교를
갖고자하는 갈망이 일어났고 전에 믿던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성적인 뉘우침을
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적 유토피아와 역
사상에 있었던 대동 사상적 유토피아 사
이에는 질적인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잉여가치설 이론에 관해 새로운 인식
을 갖게 되었다. 내가 요즘 알게 된 한 친
구는 다년 간 자본론을 연구하였는데 그
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의 노동가치관
은 광범위한 면에서 정신노동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다. 그러나 정신노동에 종사
하는 지식층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력의

소유자들이다. 즉, 공산주의의 기둥인 잉
여가치설의 결함이 공산주의 이론의 모
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연
구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무산계급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무사 공평하고 조직
적인 계급이다. 그리고 무산계급 혁명은
탁월한 지도급 인물을 배출해 내었다. 이
런 구조는 사실상 기독교의 원죄설과 상
반적인 성선설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
람을 하나님처럼 높이 세우고 구세주의
지위까지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사실상, ‘인간은 성인이 아니니 누가
과실을 범하지 않겠는가?’

권력이 일단 감독과 절제력을 상실하
면 반드시 부패와 실수를 낳게 마련이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 부패를 낳는다’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나는 공산주의 신
앙은 중국의 많은 지식층과 노동자 농민
속에서 이미 파멸되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옛 신앙이 파멸되자 중국에는 신앙 위
기가 나타나고 있다. 죄악의 범람과 나약
한 법제도의 무력함은 일종의 자율적인
도덕정신을 결핍되게 만들었다. 많은 지
식층들은 중화민족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중국인의 국민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믿
고 있다. 즉 권력 숭상의 노예성과 무법
천지의 도둑 근성을 말한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것에 대한 의심할
바 없이 좋은 구원의 처방이다. 내가 수
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누가 범죄를 하든
지 모두 네가 범죄를 하는 것과 같다」라
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학생들
은 아연실색하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
고 하였다.

나는 공산주의
신앙은 중국의
많은 지식층과
노동자 농민
속에서 이미
파멸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중국사람들이
얼마나 죄와
회개의 의식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느낀다.
국민성을
개조하려면 우선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이 말은 영국의 시인 존 돈 (John Donne, 1517~1631)의 시, 「죽음의 종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든지 다 당신을 위해서 울리는 것이다」를 인용한 것이다. 돈의 시구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비분에서 비롯된 시인의 인도주의 정신과,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연관성의 심각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자 놀랍게도 몇 학생들이 나의 말에 납득을 하게 되었다.

나는 중국사람들이 얼마나 죄와 회개의 의식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느낀다. 국민성을 개조하려면 우선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과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책임을 지셨던 것이다.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를 믿을 때만이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후, 마치 작은 새가 쉴 수 있는 숲을 찾고 망망한 바다의 고독한 배가 조용한 부둣가를 찾듯이 나는 해외에서 떠돌게 되었다. 나는 생존을 해야 했고 영적인 안식, 정신적인 고향을 찾아 쉬고 싶었다. 이 당시 내가 기독교의 루터 교에서 찾은 것은 금욕주의도 방탕주의도 아닌 바로 내가 줄곧 추구했던 바로 그런 것이었다.

托馬斯·澤赫納(Thomas Trahernee, 1637~1674)는 <그리스도 상리학>의 시구에서 이렇게 묘사한다.

「일체의 유희, 취미, 연회, 쾌락과 즐거

운 음악, 무용, 미술은 모두 적당한 곳에 깃들여 있다. 언어나 마음의 걱정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절제된 가운데서 그것들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찾게 된다. 나는 이런 신성한 미를 사모한다. 나는 이 신성한 미를 교회에서 찾았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리도 신비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많은 위대한 문학자, 과학자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경건하게 나아가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발작크는 그가 글을 쓰는 데 비취진 빛은 두 개의 영원한 태양, 즉 종교와 왕권이라고 하였다. 톨스토이는 마태복음에서 지상낙원을 만드는 길을 찾았다. 심지어 20세기의 과학자 에디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우주의 위대함과 비교할 때 사람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

‘천지에 의탁한 하루살이, 망망한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은 것.’

햄릿의 대사 가운데,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는 말이 아직도 내 뇌리를 치고 있다. 무엇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기독교가 인정하는,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태도와 그에 따른 공적 때문인가? 어떤 위대한 영웅이 세운 공헌도 결국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독교는 방대하고도 깊다. 나는 지금 이 세계를 향해 막 들어섰다.

오 하나님 !

나는 지금 당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中國與教會」, 97기 중에서)

번역/장요섭(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오늘도 직업을 찾아 방황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강성광

지난 호에 중국의 노동자(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도시 및 연안 공업지역으로 직업을 찾아 농촌을 떠난 농민 노동자들을 말한다) 문제를 약간 다룬 적이 있었다. 그때는 구정이 지난 일정 기간 동안 수백만의 농민들이 광주시 등 큰 도시로 몰려 혼잡을 빚었던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썼었다. 그러나 그 후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주 보며 느끼는 노동자들의 이동현상이, 구정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년 내내 계속되는 탈 농촌현상 및 중국 인구이동의 한 단면이라 규정 지을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의 유동 외지 노동자는 약 5~6천만 명 된다고 한다. 즉, 농촌 인구 8~9억 중 노동자 인구 3억의 1/5이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노인들과 어린이들만 남아 농사일을 하고 있는 마을도 적지 않은 편이다.

중국에는 현재 이런 많은 노동자의 출현과 유동으로 소위 노동자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 한 예로 광둥성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한 월간 잡지 가운데서 “打采工(돈 벌이 하러온 노동자들)”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인 현상을 좀 더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급속한 경제 발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간과하기 쉬운 상당수 중국인의

현실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자의 흐름과 방향

중국을 기차로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큰 역전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명씩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사람들이 떼지어 자리를 잡고 있거나 줄 서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기차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중·동부를 관통하여 깊은 내륙에서 상해에 이르는 중요 교통로가 되고 있는 장강을 통한 여객선에서도, 자리가 없어 갑판까지 장사진을 친 대부분이 시골사람, 즉 노동자행렬이다.

지난 여름 장강을 여행하다가 이런 외지 노동자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실태와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과 같이 교제를 나눈 15명 내외의 사람들은 50대 후반이 되어 보이는 농민, 30대 후반처럼 보이는 27세의 건장한 시골청년, 그리고 20세 전후의 농촌처녀들이었는데 그들은 농촌에서 일만 했기에 거친 손, 모양새 등이 중년부인 내지는 남자와 같은 모습들이었다. 또한 11세된 어린 소년도 끼어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광둥성 광주 지역이었다. 여자들은 이미 가서 일할 공장이 연결되어 있었고, 어린 소년을 비롯한 남



수 백만의 외지 노동자들이 광동성과 상해 등지로 몰려 들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망과 좌절감으로 방황하고 있다.
역 앞에 임시로 설치된 천막안에서 카드놀이로 열중하고 있는 외지 노동자들.

자들은 무작정 가는 것이었다. 그들로부터 그들의 고향을 등지고 무작정 노동자의 대열에 끼 수밖에는 없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일행 중의 한 아가씨는 자기 친구가 자기 남편을 찾으면 전해달라는 편지를 보여 주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광둥지역으로 돈 벌러 가서 1년 가까이 소식이 없자, 어려운 살림이야기, 남편 건강에 대한 염려, 안부 등을 안타깝게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였다. 이들은 모두 사천성의 농민들이었는데 사천성은 1억 2천만 명의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성으로 최소한 1천6백만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천성 사람들의 이 행렬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외지 노동자 행렬의 적지 않은 부류가 소위 '동공(童工)'이라고 하는 미성년 노동자이다. 농촌지역에서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중퇴한 남녀 중학생, 심지어는 소학교 중퇴자, 아예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한 청소년 등이다. 이들은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 또는 동행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고향을 등지고 돈을 벌

기 위해 몇 십 원의 차비만 움켜쥐고 무작정 노동자 대열에 끼었다. 향수의 고통과 일일이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겪으며, 구정 때 많은 돈을 모아 농촌의 부모님에게 전해 드리기 위해 여러 공장이나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한다. 필자도 우연히 이런 동공을 목격한 적이 있다.

9월경에 광주(광동성)에서 심천 가까운 한 도시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중간에 12세 남짓한 소년과 15~16세 정도 보이는 소녀 두 명 등 모두 세 명의 동공이 버스를 세워 탔다. 그러나 한참 가는 도중에 차장이 버스비가 모자라니 내리라고 으박지르자, 그들은 가진 것이 그것뿐이니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었다. 사정을 물어 보았더니 그들은 귀주성에서 광동성까지 겨우겨우 도착하여 취직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는데 교통비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다. 차가 정차할 때 그들이 내리려고 하여, 필자가 차장에게 그들의 모자라는 차비를 주고서 그들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라고 하자, 그들은 마침 길거리에서 그들의 고향 사람을 만났다면 그냥 가버렸다. 그 버스 승객의 대부분

**이 외지
노동자들의
근원지는
사천성, 호남성,
운남성, 귀주성,
화둥지역의
안휘성, 절강성,
강서성, 호북성,
강소성, 하남성
등이고, 이들의
목적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둥성,
상해시, 복건성
및 연안
도시지역들
이었다.**

이 외지 노동자들이었다. 내 옆에 앉았던 청년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가 일하고 있는 공장에 찾아가 취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 예는 “류리산”이라는 14세 된 소녀의 사연인데 그녀는 행운아였다. 그녀는 도시 생활의 유혹을 받고 고향을 떠나 광주에 가서 공장에 취직하였는데, 1년 후 산골 고향에 돌아 왔을 때는 시골 터를 벗은 세련된 모습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농촌에서는 거금이라 할 수 있는 2,000원(인민폐)을 부친에게 드렸다. 이 소식은 온 산골 마을의 큰 화제가 되었고 특히 소녀들의 마음을 크게 동요시켰다. 그 해 구정이 지난 후 그녀 또래의 6명의 어린 소녀들이 부모의 권유에 따라 학교를 자퇴하고 산골 마을을 떠나 소녀 노동자대열에 참여하였다.

광둥성 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20만의 미성년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이들이 그 지역 노동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전체 노동자의 7%를 상회하는 수치이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외지 노동자들의 근원지는 사천성, 호남성, 운남성, 귀주성, 화둥지역의 안휘성, 절강성, 강서성, 호북성, 강소성, 하남성 등이고, 이들의 목적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둥성, 상해시, 복건성 및 연안 도시지역들이었다. 광둥성의 93년 후반기 통계에 따르면 천만 명 이상의 외지(다른 성) 노동자들이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광둥성의 동관시는 상주인구 200만 명 중 70만 명 정도가 외지의 노동자라고 한다. 상해시도 약 250만 명의 외지노동자가 주요 노

동력을 충당하고 있고, 복건성, 해남성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둥성 및 일부 지역을 향한 노동자의 행렬이 이들 지역들의 노동력 수요 한계에 부딪혀, 최근에 개방과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동북지역 및 서북지역으로 향하기도 한다. 물론 이곳 노동자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넓은 땅에 비하여 인구가 적은 이 지역이 경쟁이 심한 광둥지역보다 일자리 구하기 쉽고 수입도 좋다고 한다.

노동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구정 후 약 한 달 기간을 제외한 평상시의 노동자 행렬은 상당 부분이 미리 연락을 취해 일 자리를 확보 내지는 확인하고 출발하는 경우이고 그 방향도 동북 및 서북지역 등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외지 노동자 행렬의 최고조기가 되는 구정 후 한두 달 간의 기간은 기존의 큰 주류대로 광둥성 및 상해 지역 등지에 수백만이 동시에 몰려 큰 혼잡을 이루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망과 좌절감에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를 볼 수 있다.

중국의 농촌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되리라 본다. 특히 1억 3천만이 넘는 잉여 농촌 노동력 인구가 언제든지 외지 노동자들의 행렬에 기여들 준비를 하고 있다.

노동자가 중국 농촌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78년 중국의 경제 개방과 개혁 이래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많은 노동력을 창출하여 큰 고용효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특히 근래 몇 년 간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상당한 노동력의 흡수는 매우 고



광주역에서 할 일 없이 행선지를 기다리는 수많은 외지 노동자들.

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농촌 정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없으며 공업화를 이루는 것보다 어려운 난제가 농촌 문제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도시 및 연안 개방지역에서의 농촌 잉여 노동력의 점차적인 흡수는 농촌의 심각한 경제상황의 숨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현재 농촌 경제의 구원병은 노동자라는 결론이 나온다.

사천성의 20개 지역이 넘는 현(한국의 도와 같은 행정 단위)에서 받아들이는 1년 간 각 지역의 농민 노동자의 송금액이 인민폐로 1억이 넘는다고 한다. 이 수치는 현의 농산물 생산 총수입에 버금가는 액수이다.

93년 상반기에 중국의 13개 내륙성에서 동일한 이유로 농민 항의 및 시위 사

태가 발생했었는데, 그 원인은 외지에 나가 있는 노동자 식구로부터 송금된 돈이 지방 우체국에서 이자유용 등의 목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농민들은 그 돈으로 자녀 학비를 내고 농사 자금으로도 쓴다. 이들은 농촌 경제의 숨통을 이어가게 할 뿐 아니라 공업 경제 발전의 주역이기도 하다.

근래 중국의 급성장의 주요 원인은 풍부한 단순 노동력을 의존한 2차 산업의 흥기 때문이다. 중국의 상품이 세계시장을 잠식하는 이유도 대부분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연안 개방지역의 값싼 노동력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광둥성은 1천만 명의 외지 노동자의 피땀의 산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천대받는 노동자들이지만 이들이 농촌 및 경제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의 도시 사회 문화에 끼치는 영향 및 문제점

노동자의 긍정적인 영향 못지 않게 대도시 및 경제 발전 지역에 끼치는 그릇된 영향도 심각하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직 도시 문화에 때문지 않은 순수한 농촌의 젊은 청년들이지만, 도시 지역에 많은 수가 몰려들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극한 상황 속에서 강도나 도둑으로 변하는 등 점차적으로 악하게 되어 사회 치안의 큰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원인 때문에 독신으로 돌아다니거나 기거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미 결혼한 성인

만약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이 도시 호적으로 바꾸려면, 광둥성 광주시 같은 곳에서는 인민폐 5만 원 이상을 도시 건설비 및 기타 항목으로 지불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남자 등이 독신으로 장기간 외지에서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농촌 호구, 도시 호구제를 엄격하게 실시하므로 농촌 사람이 도시에 와서 임시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아예 호적을 옮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교육(국민학교, 중학교) 등의 문제 때문에 완전한 도시 이주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심각한 주거환경 및 노인 부모를 돌봐야 하는 문제 때문에 모든 식구가 도시로 이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이 도시 호적으로 바꾸려면, 광둥성 광주시 같은 곳에서는 인민폐 5만 원 이상을 도시 건설비 및 기타 항목으로 지불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심천 특구는 더 많은 이적비를 필요로 한다.

이런 도시와 농촌간의 제도, 인적 교류의 한계등 구조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흐름은 도시지역 치안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 한 예로 광주시의 치안은 심각하기로 이름이 나 있다. 그 주 원인이 노동자들의 활약 때문이다. 앞에 언급했듯이 소수의 노동자이지만 그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도시 질서에 크나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얼마전 12월 초 상해시에서 전차 폭발물 사건이 발생하여 여러 명이 생명을 잃고 크게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범인은 외지 노동자라고 한다.

이상의 경우가 남자 청년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문제라면 소녀 및 부녀 노동자들이 끼치는 영향은 도시지역의 적지 않은 가정을 불안하게 한다. 대부분 문화수준이 낮은 시골 아가씨들은 정조 관념이 없어 쉽게 유부남들과 가깝게 되어 광주시 같은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및 생활 환경과 문제점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주요 동기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싶



중경에서 무한으로, 장강(長江)을 따라 가는 배 안의 중국 농촌 젊은이들. 무더운 여름인데도 긴소매 옷을 입고 있다.



오늘도 꿈을 찾아 도시로 도시로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서였다.

지난 11월 중순경 심천의 한 완구 공장
에서 불이 나 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화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2월 13일 복건성 복주시의 한 방
직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0명이 사
망하고 12명이 화상을 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이런 사고에서 숨지거나 화상을
입은 자들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여공들
이다. 그리고 이런 많은 사망자 및 부상
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 보면 그들의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들은 큰 기
대를 갖고서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갖은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일 자리를 찾는다.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많은 차이
가 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일 자리를 쉽게 옮기거나 버리
지도 못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하
려 애를 쓴다. 하지만 이들의 작업 환경
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중국 관방매체인 「CHINA DAILY」
지에 의하면, 93년 1월부터 8월까지 1만 1
천6백 명이 공업 현장에서 여러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수치는 92년도 동기간에
비례하여 11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공업사고 중에서 화재 사고가 제일 많은
데, 93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2만
8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1500여 명이
숨지고 5만 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
억 4천만 원(인민폐)의 재산 피해가 있었
다고 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무시했기 때문이
다.

몇 년 전 광둥성 동관시에서 화재가 나
백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25
평 남짓한 숙소에서 100명 이상의 공원이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심천 완구공장 화재사건의 사망
자 숫자가 많은 원인도 도난 방지 등의
이유로 모든 건물을 철창으로 봉하고, 원
래 4개 있던 출입구도 다 막고 한 곳만 남
겨 놓아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한 많은 여
공들이 변을 당하였기 때문이다(마치 그
들은 감옥에서 살며 일하는 것 같았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생활 환경도 상상하
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그 한 예로
올해 24세 된 산서성에서 온 “아몽”이라
는 여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기
를, 그녀와 외지 여공들은 매우 협소한
숙소를 쓰고 있는데 작은 침대 하나에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잠을 자고 100명
이 1인용 화장실 1개, 1인용 욕실 1개를
사용하며, 식당은 아예 없어 거리에 들고
나가 먹는다고 한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노동시간도 제한이 없는 편이다. 한
달에 하루 정도의 휴일이 대부분이고 지

**중국과
중국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중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들을
도우며 그들의
육적, 영적
필요에 부응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난번에 언급했듯이 광둥성 동관시의 한 전자제품 생산공장에서는 아침 7시 30분부터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일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무리한 야간 작업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당 삭감 내지는 사퇴를 종용 당하기 때문에 무리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수당도 매우 적은 편이다. 한 공장의 예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야간 작업 노임이 인민폐 2원(한화 200원)이라고 한다.

그들이 밤낮없이 일한 한 달 수입은 많이 받는 사람은 6백~7백 원(인민폐), 적게는 2백~3백 원(인민폐)도 있다. 그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혹사 당하는 원인은 첫째, 그들의 대부분이 문화수준이 낮아 기존의 노동법의 규례를 따져 항의하지 못하고, 자체 노조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정부에서 외국 투자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간섭하지 않거나 지방 관리 부패현상으로 뇌물을 받고 외국 자본가의 편을 들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용주는 대부분 홍콩 기업가들이다. 돈 버는 것만 생각하여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수 많은 외지 노동자들을 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기계나 경제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억 3천만 명에 달하는 농촌의 잠재적인 실업 농민들과 400만에 이르는 도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쓰고 있다.

맺는말

중국은 최근 2~3년 간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이며 연 10% 이상의 고도 성

장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가운데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국을 방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과 중국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중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들을 도우며 그들의 육적, 영적 필요에 부응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수천만의 외지노동자 뒤에는 8~9억의 거대한 농촌 인구군이 있다. 지난번에도 농촌 문제를 다루었듯이 농촌 전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반면에 도시지역 및 경제발전 지역에는 중국 전지역에서 온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가능한한 좋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방도를 찾는다면 그 성과는 무한할 것이다. 우선 많은 사람을 고용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급선무이고, 그 다음이 적절한 노동 환경이다.

근래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그 중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며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뿐 아니라 더 큰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董顯光박사(1887~1971)는
민국 시기에 가장 뛰어난 언론
인이자 외교관으로 국가에 많
은 공을 세웠다.

그리고 만년에 외교계에서
은퇴한 뒤로는 여러 교회를 섬
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는 자로 여생을 바쳤다. 그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글로써 예
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대만에
수많은 복음의 씨를 뿌렸다.

그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사
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는 탁
월한 평신도였던 것이다.

동현광 선생은 淸 光緒 13년
(1887)에 浙江省 寧波縣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기독교 장로
회 배경의 농민 가문이었다. 부
모님은 독실한 신자였고 어렸
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기도하
는 자세를 가르쳤다. 이 때부터
동현광은 평생 동안 그의 믿음
을 지키고 살게 되었다.

동현광의 가정은 농사를 생
업으로 했기 때문에 생활 형편
이 매우 어려워 그가 10살이
되도록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근검절약으
로 가까스로 소주(蘇州)에 있
는 教會國民學校에 진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계
속하여 상해에 있는 淸心中학
교(The Lowrie High School)
와 上海중학교(The Anglo-
Chinese College)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였다. 이 교육기
간을 통해 그는 우수한 중작



董顯光
(1887 ~ 1971)
浙江省 寧波縣

국가와 교회에
공을 세운
뛰어난
언론인이자
외교관

과 영작 능력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淸 光緒 31년(1905) 동현광
은 상해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영과 부근의
봉화 용진학교에서 영어를 가
르치며 교편을 잡게 되었다. 공
교롭게도 이 학교에서 그는 제
자이자 친구가 된 장개석 총통
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때
나이 19세였다.

다음해(1906) 동현광은 가르
치는 일을 그만 두고 상해로
가 「상무인서관」에서 일했다.

光緒 32년(1907) 교회의 도
움으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리 파크 대학(Park College)
에서 유학했으며, 그리고 다음
해에는 새로 생긴 미주리 대학
(University of Missouri)으로
 옮겨 신문학을 전공했다. 이곳
에서 4년 간의 힘든 과정을 마
치고 민국 원년 (1912)에는 뉴
욕의 콜롬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1년을 더 연
구했다. 그는 콜롬비아대학 시
절, 유명한 뉴욕 타임즈 신문
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곳에서 신문사의 실제적인
업무들을 처리해 볼 기회를 얻
게 되었다.

민국 2년(1913) 동현광 선생
은 귀국하여 북경에 있는 상해
신문사에서 북경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동시에 참의원의 영
어 통역과 번역을 맡은 비서로
일했다.

2차 혁명이 일어난 후 국부 손문 선생의 소개로 상해에 돌아와 영자신문인 국민일보(China Republican) 부편집장을 맡게 된다. 이 때부터 그는 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민국 3년부터 5년(1914~1916)까지, 그는 북경으로 다시 가서 영자신문인 북경일보(Peking Daily News) 편집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전국 석유험회 영어 통역 비서로 일하였고 1915년에는 미국에 가서 교섭 업무를 맡기도 했다.

민국 6년(1917) 그는 상해의 밀라드 평론주간지(Millard's Review)의 북경 특파원을 지냈고 다음 해에는 편집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북경과 천진 일대에 머물면서 몇몇 기관의 영어 통역 비서로 일하기도 했다.

민국 9년(1920) 동현광 선생은 관직에 진출, 정치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후 북양 정부의 교통부 고문과 철도 경제 재무위원회 수행비서의 직책 등을 맡았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2등 大綬寶光勳章(대완보광훈장)을 포함해서 세 차례나 훈장을 받는 기회도 가졌다.

5년 간의 관직 생활을 경험한 동현광 선생은, 민국 14년(1925) 다시 신문사로 돌아왔고 天津庸報(천진용보)에서 6

년 동안 편집장을 역임했다.

민국 15년(1926)에는 해외사 무국 고문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민국 18년부터 19년(1929~1930)까지 해군 장군 두석규(杜錫珪)의 통역관 자격으로 세계를 돌아볼 기회도 가졌다.

민국 17년(1928) 국민당의 북벌사업이 이뤄지자 중국의 정치중심은 남쪽의 호녕 일대로 옮겨졌다. 이에 동현광도 상해로 돌아와 계속 신문사 일을 맡았고 이때부터 그는 신문사 행정관리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후, 상해대륙보(China Press)의 사장과 시사신보(China Times), 대만보(Ta-wan Pao)



장승원 그림

그리고 시사뉴스센터(Shun Shia News Agency)의 발행인 역할을 하면서 상해의 여론을 주도하였다.

7·7 항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동현광은 이미 상해에서 언론을 주도하여 일본 당국과 선전전을 펼쳤다. 그는 먼저 공동조계지 내에 반일위원회를 조직하여 온원영(溫源寧), 유신은(劉湛恩, 호강대학교장) 등과 함께 반일 선전사업을 전개하여 일본의 침략 음모를 타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국 26년(1937) 7·7 항일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정부 당국은 대일 선전전의 풍부한 경험을 참작하여 동현광을 군사위원회 제5부 부부장으로 임명했고 또 그에게 국제 홍보부를 세울 것을 명령했다. 이에 동현광은 위기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갔으며 업무달성을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다.

민국 27년(1938) 10월 하순에 무창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하여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최후까지 남다가 군대를 따라 무창을 떠나기도 하였다. 그들은 20일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고서 장사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후방의 중경까지 내려갔다.

민국 28년(1939) 동현광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항일전쟁의 소식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고 당시 많은 외국 기자들이 주재하고 있던 상해로 잠입하여 외국 기자들에게 중국의 항전 상황을 설명해 주고 또 자세한 내막도 알려 주면서 국제적인 여론이 중국에 유리하도록 이끌었다.

동현광은 또한 중경에서 전심전력을 다해 국제홍보부를 세우려 했으며, 외국 기자들을 위한 기자 회견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신문보도와 뉴스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구미 각국들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항일전쟁시기에 그는 업무상 세 차례 외국을 방문했다. 민국 31년(1942)에는 蔣 위원장을 수행하고 2주 동안 인도를 방문하여 간디 수상과 회담을 가졌으며, 같은 해 말에는 蔣 여사를 모시고 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했다. 다시 민국 32년(1943)에는 蔣위원장을 수행하고 이집트를 방문하여 카이로 회담에 참석했다.

민국 36년(1947) 동현광은 초대 공보처장관에 임명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48년에는 행정원 정무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대륙이 중국 공산당에게

함락되자 동현광도 국민당 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넘어와야만 했다. 그는 대만에서 중앙일보(中央日報)회장과 중국 방송공사 사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 당시 이 두 언론기관은 모두 국민당이 운영하는 언론기관이었다. 그때가 민국 39년(1950)이었다.

민국 41년(1952) 8월, 그는 주일대사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40여 년간의 신문기자 생활을 청산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는 4년 동안 주일대사를 역임하였고, 민국 45년(1956) 4월에는 다시 주미대사로 임명되어 2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다가 민국 47년(1958)에 주미대사를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은퇴하였지만 정부 당국은 그를 총통부 고문으로 추대했다. 그때 나이 70세였다.

동현광이 신문기자로서,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위에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의 신앙생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은 경건하였다. 국내에서 공부할 때나 해외에서 유학할 때, 그는 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 중국 정부가 수도를 남경으로 정



했을 때 그는 남경의 凱歌堂교회의 초대 안수집사 회장직을 맡았다. 원래 남경 凱歌堂교회는 당시 국민당 정부 수석으로 있던 장개석과 그의 부인이 섬기던 교회였는데 그 뒤 항일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중경으로 수도를 이전하였고, 다시 대륙이 공산당에게 함락되어 대만으로 옮겨오기까지 남경 凱歌堂교회도 여러 차례 옮겨졌다. 동현광은 그 와중에서도 시종일관 그 교회 신자로 등록하여 예배를 드렸다.

민국 47년(1958) 그는 정식으로 정계에서 은퇴하고 나자 이제는 ‘천국대사’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바치기를 원했던 것이다.

민국 48년(1959) 그는 부인과 함께 미국에서 돌아오는 중에 유럽과 중동지역을 거쳐 대만으로 왔다. 특별히 이때 성지순례를 한 것은 그들이 여러 해 동안 꿈꾸어 오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그 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와 내 아내는 직접 그 성지의 유적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이 땅에 내려 오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뒤 동현광은 정말로 자신이 약속했던 말을 실천에 옮겼고 “천국대사”의 사명도 힘을 다해 이루어갔다.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대만 기독교 발전사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대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부터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으로 귀국하자마자 곧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5개월 동안 대만 각지를 2차레나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고, 교회의 교육기관인 교회병원, 육아원, 신학원 등도 돌아보면서 풍부한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그는 교

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인터뷰한 뒤 그들의 말을 토대로 많은 자료를 모았다.

이 작업이 끝나고 그는 집필에 들어가 8개월 뒤에 영문판 <대만 기독교회사>를 완성했다. 영문 제목은 <Christianity in Taiwan: A History> 였는데 조금 후에 중문판 <基督教在臺灣的發展>으로 번역해 민국 51년(1962)에 출판했다. 이 책이야말로 대만의 기독교 교회사를 가장 완벽하게 서술한 책이며, 역사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현광은 대만 기독교회사를 쓰는 일 외에도 여러 교회의 초청을 받아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데 힘썼다.

대만으로 돌아오면서 그와 부인은 먼저 중화부녀기독교회가 속해 있는 판교 지역의 선교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민국 49년(1960) 5월에는 臺北의 상이군인 종합병원에서

무보수로 사역하는 전도사의 일을 맡아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동현광은 매우 진지하게 이런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철저하고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하는데, 성경본문과 설명 내용을 먼저 편집하고 인쇄하여 매주 3번 집회를 가질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한결같이 정성껏 예배를 주관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모두 56차례나 진리를 선포하였으며, 후에 이 56편의 설교는 두 권의 선교 소책자로 정리되었다. 이 외에도 동현광은 저녁에 하는 성경공부 모임(查經班)에 참가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데 힘썼다.

그는 부인과 서로 사랑하면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선교에 헌신함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동역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민국 49년(1960) 8월 태풍이 심하게 불던 어느 날 이미 74세의 고령이었던 동현광은 우연찮게 넘어졌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므로 1주일 동안 누워서 치료받은 후에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이 때부터 그는 과로로 인해 의외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활동을 줄여 갔다.

민국 50년(1961) 동현광은

미국의 세계도덕개진운동대회(Moral Rearmament Conference)에 참석하려고 가는 길에 미국에 있던 자녀들을 방문하려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에 있는 동안에 중풍에 걸려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국에 돌아가서 조용히 요양하기를 바랬던 그는 미국 동부와 서부에 있는 딸들을 만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끝내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대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요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민국 60년(1971) 1월 10일 그는 결국 미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식하였으니 그때 나이 84세였다.

그의 유해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교회묘지에 안치되었다. 그가 생전에 친했던 제자와 친구들은 워싱턴에서 추도예배를 드리면서 이 뛰어난 신문기자로 외교관이었으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친 동현광을 추모하였다.

그가 안식한 해 1년이 지나서 대북의 교우들과 동역자들은 함께 모여 1주년 추도예배를 거행하면서 동현광을 기념하였고, 이와 동시에 <동현광 선생 추사록(追思錄)>을 출간하여 친구와 동역자들에게 기증하였다.

그후 동현광의 대북 친구들은 그가 민국 33년에 썼던 일기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는 하루 하루 비전을 독려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이 일기장은 서점에서 「만년장청(萬年長靑)」이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진되었으며 그 후로도 제5판까지 인쇄를 하였다.

「만년장청(萬年長靑)」, 이 한 권의 책은 특별히 청년들과 비기독교인의 심령을 정화시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했는데, 그의 생전의 전도의 성과보다 더욱 컸다 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

동현광의 일생을 돌이켜 보건대 그가 어려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이 평생 공직에 봉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야 될 길을 다 가고 아름다운 승리의 싸움을 싸웠으니 진정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남기지 않고 모두 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동현광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중에서)
번역 : 서울대 중국어성경반

복음을 위하여

중국의 복건성에서 태어난 송상절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홉 살 때에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였으며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의학도로서 26세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그는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학자로서 손꼽히는 인물이 되어 상해로 돌아올 때,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자랑거리를 모두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자기의 졸업장과 금메달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박사 학위증을 버리지 않은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는 중국에 돌아와서 화학과 성경을 가르쳤고, 말레이시아 등지를 순회하며 열정적으로 전도 활동에 힘썼습니다. 그가 1944년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이미 중국에는 복음의 불길이 사방에서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송상절 박사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유능하고도 겸손하며 능력 있는 설교자와 전도자로 자기 동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남김없이 쏟아 바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찾아 쓰신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에 적합하고 또 힘있는 일꾼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읍시다.

(『생명의 삶』 94년 1월호 중에서)



중국 기독교협회 회장 정광훈(丁光訓)

1915년 9월 상해시 태생.

1937년 상해 성요한대학 문학원 졸업.

1938년 상해 기독교 청년회 학생부 간사 역임.

1942년 상해 성요한대학 신학원 졸업, 상해 국제교회 목사 위임, 상해 성요한대학 신학원 강사 역임.

1946년 캐나다 기독교 학생운동 간사 역임.

1947~1948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 사범대학, 뉴욕연합신학원 문학석사, 신학박사 학위 수료.

1948~1951 스위스 제네바 세계 기독학생 동맹회 간사.

1951년 귀국, 상해 광학회 총무, 금릉 협화신학원 원장, 남경대학 부총장겸 종교 연구소 소장, 중국 성공회 절강성 교구 주교 위임,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위원장, 중국 기독교협회 회장, 강소성 정협(CCPCC) 부위원장, 유럽·미국의 6개 대학, 신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 제3차 전국 정협위원, 제5차 전국 정협 상무위원, 제7차 전국 정협 부위원장, 제6·7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전국 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위원 등 역임.

저서

〈중국 기독교의 간증〉, 〈오늘의 중국 기독교〉, 〈중국 기독교도의 소리〉 등

신화사, 상해 6월 26일.

오늘 오후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상해 목은당교회에서 성대히 거행된 축성예배에서 74세의 손언리(孫彦理)와 60세의 심이번(深以蕃)이 주교로 임명되었다.

상해 기독교 교무위원회의 1차 상무회의에서 선출된 이들은 중국 기독교 역사상 30년만에 최초로 임명된 주교이다. 중국기독교회에서 1955년 이래 처음으로 주교가 선출된 것이다.

1958년부터 중국 기독교는 교파 후시기로 접어들어 연합예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상 각 교파끼리의 단독적 교회체계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교파건 그들의 성직과 의례는 폐지시키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며 서로 존중하기로 했다.

교회의 한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중국 기독교회는 독립자주의 원칙아래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방침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의 새 주교 임명은 교회의 자치정책 강화에 중요한 절차로써 시행된 것이라 한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화동의 복건, 산둥, 절강성 등지의 기독교회들에서도 새 주교 선출에 관한 토론이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기독교 33년만에 최초의 새 주교 위임하다.

중국교회가 주교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세계 각국 기독교회와의 교류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회 관계자는 말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선출된 주교직은 행정적 성격을 띤 직무라기보다는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중국 기독교회에는 현재 6명의 주교가 있으며 이 중의 4명이 이번 축성예배에 참석하였다. 정광훈(丁光訓), 왕신음(王神蔭), 설평서(薛平西), 모극충(毛克忠)이 그들이다.

축성예배의 사회는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부위원장 왕신음 주교가 설교는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주석이자 중국기독교협회 회장인 정광훈 주교가 담당하였다.

이번 예배에서 위임된 손

언리는 목은당의 담임목사로, 1914년 생이며 1941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1944년 금릉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상해 기독교 교무위원회 위원장, 화동신학교 원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심이번은 상해 국제교회예배당 담임목사로 1928년 생이며, 그의 부친 심자고(深子高)는 원래 성공회 주교와 중앙신학교 원장을 역임하였다. 심이번은 1948년 금릉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후 1954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현재 기독교협회 부회장, 신학 교육 위원회 주임으로 봉직 중이다.

이번 예배에는 홍콩에서 홍콩기독교협회 책임자인 광광걸(鄺廣傑) 주교와 고소화(高荅華) 여사가 참석했고, 미국 연합 감리교의 고우은(高佑恩) 목사와 인도의 아시아 기독교협회 부총무인 조지·네오날드 박사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위 글은 <인민일보 88.6.28>자에 실린 기사로서, 중국 삼자교회 기독교계의 주교직이 갖는 비중을 짐작케 해 주는 자료이다.

중국 북경에 유행하는 귀족학교

李 紅

돈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사실상 권력이 있으면 돈 없이도 입학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근 몇 년 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소수의 부유계층이 있는데, 이들은 수종의 돈으로써 어떤 학교라도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다수의 서민들은 그저 멍청히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다.

각급 학교의 “몸값”은 다르다. 북경에서 일을 보다 몇몇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 중 한 친구의 아이가 금년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데, 이는 아이의 성장 과정 중 마땅히 축하해야 할 큰 일이었다. 그러나 친구가 이 일로 인해 오히려 한바탕 소동을 벌일 줄이야…….

이 때문에 우리는 대륙의 한 학교가 마구 돈을 받고 있다는 화제를 나누게 되었다.

대륙의 각 시의 중학교는 시 중점학교, 구 중점학교와 일반학교로 나뉘며, 일반학교는 다시 준 중점학교(합격자 점수가 구 중점학교와 비슷함)와 구분된다.

이상의 ‘중점학교’의 수는 아주 적어 한 구역 안에도 몇 학교에 지나지 않으며, 매년 국민학교 졸업생의 약 20% 정도만이 이런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배정된다. 국

민학교 또한 분류를 하는데 단지 시험이 없을 뿐 거주지역에 따라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 합격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비록 이렇게 명문화된 모집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외에도 각급 학교들은 자신들의 ‘몸값’에 근거하여 가격을 매기는데, 일반학교는 수천 원, 중점학교는 일만 원 이상이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이의 점수가 모자라거나, 배정에 불복하고 아이를 다른 학교로 보내고자 한다면 돈을 내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학교 문은 열렸지만 돈이 없이는 못 들어 간다.

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북경시 제일 실험국민학교는 시 중점 국민학교로, Deng Yingchao(鄧穎超)가 젊었을 때 이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성이 더해졌다. 이 학교는 매년 6개 반의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한 반에 50명씩 모두 300명을 모집한다.

교육국이 책정한 학생모집지역은 주민이 사는 아파트 두동과 인근 한쪽 도로변의 몇 가구인데, 매 가구의 주민의 진학아동이 매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때 이 학교에 매년 정식으로 입학 등록하는 신입생이 몇 명이나 될 지는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남는 인원수는 이 학교의 손에 쥐여지는



돈 주머니가 되는 것이다.

금년 여름방학 중학생을 모집할 때 이 학교의 입학 가격은 한 학생당 만오천 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당연히 정상적인 모집학생의 인원수를 한사코 제한하려 드는데, 한 명이라도 더 인원수를 비껴 놓으면 학교는 만오천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내 친구의 아이는 입학을 원하자마자 곧 변을 만나게 되었다. 그 친구의 집은 원래 이 학교의 작은 모집구역 내에 속해 있었다.

그 아이는 이전에 다른 시에서 국민학교에 다니다가 제작년에 북경으로 이사와서 전학해야 하기에 원칙상 이 중점국민학교에 가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러나 그 친구가 호적장

부를 들고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려 할 때 생각지도 않은 거절을 당했다. 그 학교가 전학생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개학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이의 학교 입학 문제가 커지게 되었고, 친구가 다급해져 있을 때 마침 운 좋게도 교육국에서 특별공문을 발표하였다. 각 학교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정상적인 전학생의 전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급히 신문에 발표한 교육국의 공문을 들고 이 학교로 찾아갔다.

그러나 덕망이 있어 보이는 나이 많은 한 교도주임은, 남아도는 자리가 없어서 그의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곡하게 설명했다. 이러쿵 저러쿵해도 소용이 없었다. 친구는 잠시 사기극을 벌일 생각이 떠올라

넌지시 농담조로 “만약 귀하의 학교가 내 아이를 받아 준다면 나는 이 학교에 십만 원을 찬조금으로 드리고자 하는데 어떨소.”라고 하니, 이 말이 나오자마자 엄숙하던 그 교도주임이 즉시 웃음 띤 얼굴을 하며, “당신의 의견에 대해 교장과 다시금 한번 연구해 보겠소.”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이런 큰 액수의 돈이 없으므로 아이가 그 중점국민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특별히 풍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이 학교에는 사방팔방, 성 남북 멀리에서 사는 학생들도 다니고 있었는데 집이 모집구역내에 있는 그 친구의 아이는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친구는 아는 사람을 끌어다 뒷문으로 해서 아이를 다른 일반국민학교에 집어 넣기는 했다. 그 친구는 기부금조로 그 학교에 교사휴식용 침대 두조를 제공해야 했다.

새로운 정책의 실시에 폐단이 많다.

금년 여름, 북경시 교육국은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중대한 개혁안을 추진했다. 즉 국민학교 졸업생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진학교사를 없애고, 소수의 우수학생이 학교의 추천으로 중점중학교에 가는 것을 제외하

고는 모든 다른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가까운 학교에 배정시키는 것이다.

이 안의 목적은, 국민학교 학생의 진학교사 입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사실 이런 개혁의 바람이 몇년 전부터 불기 시작했고 해마다 이것이 거론되다가 올해 드디어 추진되었는데 시행이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선,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수학생의 추천 진학문제다.

진학교사를 없앤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자녀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권리를 취소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추천으로써 직접 중점중학교에 들어갈 수는 있다해도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에 부정하고 부패한 관리들이 진을 치고 있고 더욱이 현재 우수학생 추천이라는 생사가 달린 중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국민학교 교장이 진정 공정하고 청렴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가까운 거리대로 중학교에 배정하는 문제이다.

어느 중학교로 배정될 것인가? 버스로 네 정류장이 되면 근거리 입학에 속하는데 이런 큰 범위 내에는 몇 개의 좋은 중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학교

의 우열의 구분이 있을 것이니 사실 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이라 하겠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의 아이를 더 이상적인 중학교로 보내려고 할 텐데, 이를 위해 뒤에서 무슨 일들을 벌이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하계 학생모집 실시 후, 각 중학교는 자신들의 액수를 불러내고, 어떤 중학교는 심지어 백 단위 숫자까지 상세하게 비쳤다. 예를 들어 북경시 제 31중학교는 비정상적으로 입학 배정된 학생들로부터 찬조비 7,200원 썩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사실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이번 계획은 실제적으로, 권력 없고 돈은 없지만 학업성적이 비교적 좋은 보통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심한 충격이 될 것이다. 그들이 본래의 진학교사 성적으로라면 이상적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지 하늘이 내리는 명령에 의해 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문 첫머리에서 이야기 했던 그 친구가 바로 이번 개혁 때문에 골치를 앓은 사람이다. 그의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친구 또한 아이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

에 돌연 경쟁시험의 기회를 잃었으니 어찌 초조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말을 빌면 필사의 힘을 다해서- 추천 입학이 되었지만 겨우 2류 중학교에 속하는 학교에 입학이 되었다. 그가 힘을 다 쏟은 만큼 그 절망감도 아마 그 자신만이 알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 그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듯 격분하며 말했다.

“만약 시험을 쳤더라면 내 아이가 더 좋은 학교에 붙을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

금전으로 입학하는 것은 소수에게만 유리하다.

이렇게 돈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사실 권력이 있는 자는 돈을 쓰지 않아도 입학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소수의 부유층들은 돈을 써서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많은 보통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한다”라는 풍조가 성행하여 이제껏 청렴하게 지내온 교사들이 더 이상 가난을 원치 않게 되니 그 눈은 자연히 학부형의 돈주머니에 쏠리기 마련이다.

중국대륙의 교육계에 요즘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머

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사립유치원, 사립국민학교, 사립중학교를 세우고 있고 사립대학까지도 설립 준비중이다.

새 귀족학교는 어떤 사람을 배양하나?

이러한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들의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수입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북경의 송문구에 있는 한 사립국민학교에 입학하려면 먼저 인민폐 2, 3만원을 내고 나중에 매 학기마다 3천 원씩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납입금은 연 수입 5천 원이 채 안되는 군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층에게는 천문학적 숫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기자가 취재한 노동자, 농민들이 고개를 가로 저으며 "우리 아이는 그런 학교에 못 가지요."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중국대륙은 9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므로 일반 중학교, 국민학교는 매 학기당 몇 십 원의 잡비만 내면 되는데 왜 이런 고액의 돈을 받는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인가?

운영자 측에 의하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립학교의 대다수는 이미 정원이 찼으며, 등록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큰



돈을 번 개인이나 외국투자회사의 고용원 일색이다. 그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학교는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 시설이 훌륭하고, 일류급 교사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 놓기만 한다면 학부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즉, 아이들이 이런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그 집안이 부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마치 몇 천 원에 허리띠 하나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 있는 티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출현은 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한 TV방송국은 전적으로 이 사실을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찬반

설이 엇갈렸다. 그러나 향간의 사람들은 이 사립학교를 이미 '신 귀족학교'라 부르고 있다. 이는 1950, 60년대 당시 전적으로 당 정치 간부의 자제를 위해 세워졌던 학교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붉은 귀족학교'라 불렀고, 학교 내의 학생들은 누구의 가장이 그 직위가 높고, 어떤 식의 군복을 입었고, 어떤 승용차를 탔다는 것으로 서로 비교하기에 열을 올렸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신 귀족학교'의 학생들은 무엇으로 서로 비교할까?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머릿속을 꼭 채울 것은 또한 무엇일까?

(『爭鳴』, '93년 9월호 중에서)

번역 : 김현주(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중국인의 인간관계, 그 실상

함기수

무릇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저마다의 성격, 스타일 등이 맞물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변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지역, 어느 특정인과의 관계는 이렇다, 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전제 자체가 극히 모호해질 수 있으며 장님 코끼리식 발상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자칫 너무 주관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위험을 우리는 감수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범주에서 구태여 대만과 홍콩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대륙의 중국인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이다. 나는 1987년 초부터 중국과의 농산물 비즈니스를 위하여 홍콩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완차이 거리에 있는 중국 대표부에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찾아가곤 했다. 물론 이 때만 해도 중국인과의 인간관계는 생각조차 못했었고 그냥 막연한 사명감으로 어떻

게 얘기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홍콩에서 버스를 타고 약 1시간을 가면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록마차우’라는 곳이 나오는데 망원경에 동전을 넣고 당시의 심천(深圳)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눈과 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 저 사람들도 뽕은 달리지 않았구나. 우리랑 똑같이 생겼구나.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그래도 저렇게 일하고 있구나”하고 신기해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두터웠던 장막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했다. 1988년 8월 내가 처음으로 상해땅을 밟았을 때의 그 감격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로부터 고작 5년,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그때가 마치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거대하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며 생활습관, 의식구조도 다르다. 그래서 30

여 개의 서로 다른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 편할 때가 많다. 그럴진대 중국은 이렇고 중국 사람과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한 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 동안 접하고 겪어왔던 중국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것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느낀 것은 크게 보아 상해, 광주(廣州) 등 남부 지방과 북경, 산둥, 동북 3성 등 북부지방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비즈니스 방식이다.

비교적 장사에 일찍 눈을 뜬 남쪽 사람들은 계약조건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치는 듯하다. 자칫 건조하게 느껴지지만 대신 명확하다. 물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경우는 다르지만 내가 접해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금은 영악하다 싶을 정도로 변신에 익숙했다. 장사는 장사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라는 사고방식, 계약조건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무작정 억지를 쓰는 법은 없다. 알미를 정도로 장삿속에 빠르다. 은근히 의리를 기대했다가

는 배신감을 맛보기가 일쑤이나 그렇다고 영원한 적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 자기네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다시 찾아 오곤 하는데 사람에 따라 이러한 명쾌함을 불투명한 끈끈함보다 높이 사는 사람도 많다.

북쪽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신의 또는 인간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한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길들여져 있고 나름대로의 보수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알뜰한 속임수나 우리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물론 최근 개방의 물결과 함께 이들에게도 서서히 사고의 변화는 찾아오고 있으나 아

직까지는 인간관계의 끈끈함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가 우선 된다는 것이 나의 느낌이다.

내가 홍콩에 있을 때 홍콩 중개상을 통하지 않고 중국과의 직접 교역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쓴 적이 있는데, 당시 내가 품었던 가장 큰 의문은 홍콩 중개상의 가격이 그들의 마진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은 가격보다 항상 싸다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의 거래선은 단순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에서는 어느 거래선, 어느 라인을 확보하느냐가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무역업자로서의 기능을 믿을 만한 바이어 또는 공급선을 확

보하는 데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게 마련인데 중국은 품목별로 회사를 구분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대외 수출입 창구를 지정, 모든 무역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었다. 즉 모든 농산물은 양유진출구공사(糧油進出口公司), 원유와 화학제품들은 화공진출구공사(化工進出口公司)하는 식이다. 따라서 내가 맡고 있는 농산물 비즈니스는 모든 사람들이 양유공사를 찾아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다르다는 것은 당시의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얼마 후에 나는 가까운 홍콩 친구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홍콩 중개상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한 중국인의 청객(請客)은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진다.



중국인은 인정미가 넘친다. 일단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무척 친절하다. 외국인을 가정으로 초청하여 함께 만두를 빚고 있는 모습.

들의 대부분은 해외 마케팅과 중국 마케팅을 이원화시키고 있었고, 내가 주로 접촉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해외 마켓팅쪽이고 실제로 중국 측을 관장하고 비즈니스를 끌어내는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는 중국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중국 내 양유공사에서 10년 이상 근무 했다가거나 하는 등 유관 부서에서 오랜 근무 경험이고 따라서 오랜 인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고용,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 유력인사의 해외 유학을 알선한다거나 여타의 재정을 관리해 준다는 식은 또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하여 생면부지의 내가 찾아가서 “옥수수 가격이 얼마나 되요?” 하는 것과 10년 이상의 인간관계를 가진 친구나 또는 과거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있던 이들과의 가격은 애초에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것이 성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비즈니스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엄밀히 말해 비즈니스 당사자와는 관계가 없고 모든 것이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주의국가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홍콩만 하더라도 친구 사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느냐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당시 이런 일도 있었다. 중국이 우리들에게 개방되면서 홍콩에 있던 우리들은 자주 중국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당시의 분위기가 중국과의 직교역을 강조하였던 때였던 만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회사와 직접 계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시장가격과 가장 근접해 있던 품목이 사료로 쓰는

소맥피로서 그 당시 시장 가격은 US\$ 100/MT이었는데 나는 산동성의 모회사와 US\$ 98/MT에 계약하는 데 성공했다. 그때 나는 그 회사의 총경리(總經理; 사장)이하 직원들과 계속적인 ‘건배’를 외쳐 대면서 홍콩 중개상을 배제하고 처음으로 한·중간의 직접교역을 우리가 해냈다고 즐거워 했다. 총경리 또한 그 동안 중간에서 홍콩 상인들이 취한 많은 이익을 직접 교역으로서 해소하고 이 첫번째 계약을 기점으로 우리가 신기원을 이룩하자고 술이 얼큰하여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계약이 드러나면 판매에 지장이 있으므로 적어도 우리의 판매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홍콩 중개상에게 비밀을 지켜 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던 총경리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네들 또한 오랜 홍콩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으니 도리어 나에게 부탁하노라고 했다. 계약을 맺고 홍콩으로 돌아온 지 정확하게 이들 후라고 기억한다. 우리의 주요 홍콩 거래선 중 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그는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했고 정확하게 우리의 가격, 선적기간, 물량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된 내력의 물량이며 자기네들은 US\$ 95/MT 정도에 상담하고 있었고, US\$

98/MT에 산 것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은데 우리가 더 원할 경우 US\$ 96/MT 정도에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나는 당시 무척 놀랐다. 너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고 그는 싱글거리면서 충경리 이하 그날 만찬에 참석했던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A라는 친구는 말만 많았지 실세가 아니고 그 친구 부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B라는 친구는 자기 회사 직원 누구의 학교 동창이라는 식으로 주절거렸다. 나는 이 계약에서 정확하게 톤(t)당 US\$ 6을 손해 보았다. 이후에도 나는 상해지역 등지의 사람들과 다른 상품들을 몇 건 더 계약해 보았으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농산물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거의 전량을 홍콩 중개상을 통해서 구매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홍콩 중개상들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고, 중국의 개방과 함께 한·중간의 직교역을 경제해 오던 차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교역의 조짐이 보이자 이를 초전에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음직하다. 즉 한국 시장은 일정한데 선경이 산동과 소맥피 5천 MT을 10월 선적으로 US\$ 98에 계약했다고 하면 그들은 그들

의 인간관계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보를 빼내고 역으로 중국과 협상에 들어가는데, 자, 한국의 선경 가격이 US\$ 98이니 적어도 이보다는 싸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번만 잘 해주면 다음 번엔 더 잘 해주겠다는 식으로 가격을 후려치고, 만에 하나 중국과의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그들 자신들이 출혈 가격을 내었던 듯하다. 내가 중국과 직계약만 하고 나면 한국 시장에서의 가격은 떨어졌고 나는 회사에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몰라 전전긍긍하곤 했다. 당시 홍콩 친구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직접 해 보라. 결국 너희들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 온다.

이미 중국과 10~20년을 장사해온 일본과 국제 곡물 메이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고 있다. 너희들은 아직 중국 사람을 줄 모른다. 그것은 같은 중국 사람끼리의 영원한 노후 우이다.”

그러나 세월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와 중국의 모든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홍콩에서 북경으로 옮겨 중국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알게 된 오늘에도 난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 당시에는 ‘자식들 웃기지 마라’고 코웃음을 쳤는데, ‘이제 너희들은 한국 장사는 끝이다’라고 동정까지 했었는데 나는 지금 북경에서도 홍콩 중개상





활기찬 상해 시가지 모습.

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그 가속도를 더하여 경제대폭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했던 작년도에 우리는 지금까지 최고의 직교역 실적을 올려 홍콩과의 간접거래 부분이 약 20%였는데 반해 중국 회사들과의 직접 거래액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직교역이 시작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의 지나친 경제 팽창을 견제한 긴축 정책, 인민폐 환율의 불안정 등으로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시 간접 교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생각지 못했던 직교역에 따른 문제점과 물량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인간관계의 중요함, 난세에 대처하는 경험 미숙의 틈을 비집고 홍콩의 중국인들이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본 중국인은 행동보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다. 좋게 보아 대륙적인 기질로 사소한 일에 신경을 안 쓰며 사려

가 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게으르고 의심이 많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언뜻 중국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속 생각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여기에 연유되지 않았나 한다. 정말 이들은 좀처럼 자기의 속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사이 각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무엇이든지 빨리 결론내고 싶어하는 속성에 익숙해져있다. 중국인과의 상담 시 '예스(Yes)나, 노(No)나'의 사고 방식으로는 낭패를 보기가 쉽상인데 이들은 도무지 결론을 내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해 보겠다' '잘 해 보자' '며칠 후 연락 주겠다' '거의 결론에 도달했다' 등등의 많은 말들이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황해 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거의 도착했다'라는 말을 들은 후 30분 이상 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답답할 정도로 여유 있고 끈질기게 상대방의 진의를 캐다. 사소한

가격 문제로 며칠을 끌고 조그만 조건 하나로 시골 공장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다. 이제 다 되었다 싶었을 때 또 다른 조건을 내걸어 다시 상담을 원점으로 돌릴 때면 우리는 그냥 뛰쳐 나오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중국인의 자존심은 대단하다. 거대한 중화, 고대 황화문명에서부터 유래하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혹자가 평하는 것과 같이 개방과정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자본주의 물질문화에 대한 일종의 콤플렉스성 반발일 수도 있다.

일상생활 또는 상담시 우리는 항상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생산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혹평, 식당이나 호텔시설에 대한 불평, 은연중 돈자랑을 한 다거나 중국을 돕고 싶다는 투의 거만한 태도는 이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틀림 없이 마음 속의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된다. 일부 한국인들과 왕래가 잦은 사람들에게 보듯이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극히 나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때 중국산 수산물 비즈니스 때문에 발해만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산동, 대련지역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때 한국의 파트너로서 부산에 모 수산물 회사 사장님과 친분관계를



중국을 알고 중국인을 이해하는 사람을 중국인은 좋아한다.

가진 적이 있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사업수단이 뛰어나시고 사고 방식이 합리적이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의 말씀이 지금도 꽤 인상적이다. 우리는 당시 한국 주중 수출품목이었던 피조개가 한국 근해 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중국산 피조개를 중국에서 일차 가공, 한국에서 재포장하여 중국 측이 원료와 가공을 맡고 우리가 기술 지도와 가공품의 전량구매를 분담하는 식이었다. 이때 제품이 생각대로 나오질 않자 우리측의 기술자가 중국의 여공들을 다그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봐, 자네 과거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기술을 배울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다그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었나? 우리 그때를 잊지 말자. 겨우 십 몇 년 전의 일을 벌써 잊고 이제 중국에 와서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하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려 하는가?”

중국인은 손님에 대한 대접이 지극하다. ‘호객(好客)’이라고 하여 정성으로 손님을 접대하고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한다. 그러는 가운데 더 가까워 지기 때문에 우리 주재원들이나 한국에서 출장 오는 분들이 과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이 술 마시는 방식은 우리와는 약간 달라서 항상 상대방에게 권하며 같이 마시고 마신 것을 확인하며 요령껏 마시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상대방이 완전히 취해야 대접

을 잘 한 것이 되고 유쾌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비즈니스 때 술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근 가라오케 등 대중 술집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조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녁 식사에만 술을 마시고 2차 3차 등은 없기 때문이다. 약 2시간 정도만 견뎌내면 저녁 9시부터는 취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일에 큰 지장은 없다. 물론 1시간도 못 견뎌 낼 주량이면 아예 못 마신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해해 주는 분위기이다.

격식과 예의를 따지는 데 두 번째라면 중국인들은 서러워할 것이다. 중국에 와 보신 분들은 누구나 경험했겠지만 식

사를 할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좌석 배치에 신경을 쓰고 술잔을 부딪칠 때에도 서로 상대방의 술잔 아래에 부딪치려고 애를 쓰며, 담배도 자기가 필 때 꼭 상대방에게 권하여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내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공산국가에서는 공장장과 공원이 똑 같고 모든 사람이 계급의 구분없이 평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들의 상관에 대한 예우는 너무나 깎뚫하고 지극하였다. 하여 중국인들은 예의바르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술 좌석 같은 데서 유쾌하게 떠들어 좌중을 웃기는 것까지는 좋으나 솔직한 인간관계를 만든다고 지나치게 자기의 내력을 자랑삼아 이야기 한다거나 중국인들에 대한 충고 등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내력이나 속 생각을 밝히는 것은 이들에게 경망스럽게 보이기 쉽다. 가볍게 보이는 사람을 생각 이상으로 싫어하는 경우를 나는 많이 보아 왔다.

14억 중국인, 이는 가공할 숫자이다. 어느 지역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인과의 인간관계는 우리와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보통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

다. 지금 중국은 변화하고 있다. 어눌하지만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어느 사이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각박한 사회생활 속에서 너무나 우리 식으로 생각하고 모든 이해관계나 대인관계를 우리의 잣대로 재어 우리의 범주 안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 하는가?” 가까운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한다면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중국을 알고 중국인을 이해하는 사람을 중국인들은 좋아한다.”

기도의 습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윗 역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였다고 시 55 : 17 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그의 개종자들에게 말하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다.

선교사들은 일이 쌓여서 시간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면 기도가 소홀해지게 된다는 사실인데, 한번 소홀해지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 이유는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어려운 많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선교』 중에서)

함기수/(주)선경 북경지사 과장

편집자주/위 글은 『中國研究, 대륙연구소 발행』, 1993년 가을호에 실렸던 것으로 대륙연구소의 허락을 받고 실었다.



중국대학 현황과 유학 절차

박명수

중국대학 개황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당시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205개소, 재학생수 117,000여 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대부분의 학교 가운데 외국인이 운영하는 교회학교와 사립학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진행과 60년대 말 중국 전역을 휩쓸었던 파괴적인 문화혁명의 발생 등 역사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중국은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즉, 1987년 말에 이르러서는 무려 1,063개 고등교육기관에 12만여 명에 이르는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모두 196만여 명의 총 등록학생이 있었으며, 1992년 말 현재 총 1,075개 학교에 약 210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1949년 중공정부의 수립 이후 중국의 고등교육제도는(1952~1953년까지 2년 간)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혁명조직의 개발을 위하여 소련의 소비에트 교육제도를 모방하는 교육제도로 개편됨으로써 오늘날의 대학제도로 정착되었다. 대학과 학부의 인문학부나 자연

과학부가 종합대학으로 통합되거나 선진전문 분야의 학과로 통합되었으며, 철강, 지질, 탄광, 야금, 수압공학 등의 명칭을 가진 공학대학들이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문분야별로 대학이 통폐합되면서 일시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184개소로 줄기도 하였으나 과학기술대학들은 질적, 양적으로 성장되었다.

실제로 자연과학 연구분야에서 대학에만 과학연구기관이 1,49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과학 연구인원만 4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철학, 사회과학 연구분야에는 222개소의 독립연구소와 544개소의 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부설되어 있으며, 연구인원만 약 7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1958년에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대약진 운동'(Great leap forward movement)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학을 설립토록 하자는 거국적인 교육장려운동이 벌어졌다.

이러한 교육진흥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의 결과로 1957년 229개소에 불과했던 고등교육기관의 숫자가 1년 뒤인 1958년에는 무려 1,289개소로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경제를 압박하는 등 학교 경영에 엄청난 곤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학의 난립으로 인한 학교 재정의 파탄과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하여 1961년에 시작된 정부의 대학 감축작업으로 인해 1,289개소에 달하던 고등교육기관이 1963년에는 407개소로 감소되는 등 고등교육의 질과 학술연구 성과가 급속도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1956년에 이르러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은 434개소에 학생이 674,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10년 간에 걸쳐 진행된 "문화혁명"(1966~976)은 고등교육기관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끼쳤다. 학부입학이 6년 간 중단되었으며, 어떤 학생이라도 외국유학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들도 중국유학이 허

용되지 않았다.

1969년에는 수백 개의 교육기관이 폐쇄되거나 병합되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농장이나 공장으로 보내져 육체노동으로 세월을 보내야 했다.

10년 간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만 무려 106개소의 대학이 사라졌으며, 1백만 명에 이르는 학부생들이 제적되는 등 상당기간 동안 전문인력의 심각한 부족을 겪어야 했다.

1976년 10월 문화혁명이 끝난 뒤부터 점진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한 중국의 고등교육체제는 1977년 국가입시제도의 부활과 대학원 교육이 재개되었다. 특히 1978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의 제1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이후 학위체제의 정비와 그리고 폐쇄된 대학들을 재설립하는 등 중국의 고등교육체계가 안정되면서부터 인재양성 및 과학연구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1922년 말 현재 총 1,075개소의 대학에 약 2백만 명의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이 중 정규대학인 대학이나 학원이 611개소, 전문학교인 전과학교(專科學校)가 345개소 그리고 단기 직업 훈련대학이 119개소 등으로 1949년에 비해 학교수는 약 4.2배 증가되었다.

또한 공학, 농학, 임업, 의학, 사범, 문과, 이과, 재정경제, 정치법률, 체육, 예술 등 11개 분야에 모두 850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들 과정에 대학원생이 11.5만여 명, 대학생이 133.5만 명 그리고 전과 학생이 73.1만 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대학 과정으로 TV방송대학, 직공대학, 농민대학, 관리간부학원, 교육학원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들 성인대학에만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1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국가가 대학시험을 주관하는 국가입시관리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입시제도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주관하였다.

그러나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혁명을 전후로 10여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77년부터 입시제도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의 학위체제는 1954년에 도입된 이래 1959년과 1965년 등 2차례의 제도개혁을 거친 후 1980년에 이르러 현재의 학위제도로 확립되었다. 즉 학사학위는 학부 졸업생에 한하여 수여되며,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2년 내지 3년 과정은 석사학위로, 계속되는 2년 내지 3년 과정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진다.

특히 중국의 석사와 박사학위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공인받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여

하도록 되어 있으며, 1981년 “중화인민공화국 학위규정”이 시행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현재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학 수는 238개소에 전공이 1,830개이고,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은 545개소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체계와 비슷한 6년의 초등교육과 6년의 중등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중국의 고등교육체계는, 종합대학이나 일반대학의 학부과정이 4년 과정인데 비하여 의과대학이나 일부 공과대학에서는 6년의 교육기간을 요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단기대학(전과학교:專科學校)의 수학년한은 일반적으로 2년 내지 3년의 교육과정을 요한다.

그리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중국의 대학원 과정은 2년 내지 3년 정도의 수학 기간을 요한다.



필재(박명수)가 중국 방문시 劉忠德 중국 문화부장관을 만나 저서 <해외유학가이드>를 증정하였다. -1993. 12. 21-



36개의 국가중점대학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학으로 근대 중국의 역사를 주름잡은 인물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북경대학.

대학개요

* 구분 :

大學 : 종합대학, 學院 : 단과대학,
專科學校 : 전문대학

* 수학연한 :

4년제, 5년제(이공계), 6년제(의과대)

* 학기 :

1학기(매년 9월 중순 ~ 1월 중순),
2학기(2월 중순 ~ 6월 중순)

* 총학교수 :

1,075 개 교

* 학생수 :

약 2백만 명(인구 1,000 명당 1인)

* 대입제도 :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은 중국의 현실적인 상황하에서 중국의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중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은 매년 7월 국가 교육위원회(National education Committee : 교

육부에 해당)의 주관하에 실시하는 전국통일 입학시험을 통해 대학정원인 약 60만 명을 선발한 후 그 성적순에 의해 일류대학으로 배정하는 입시제도를 가지고 있다.

* 한어수평고시(漢語水平考試: HSK) :

외국인이나 중국의 소수민족과 같이 한어(中國語) 학교에서 수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족의 대학(일반 중국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학능력 평가시험으로 매년 1월 15일, 6월 15일, 10월 15일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있더라도 입학이 유보되며 일정기간 내(문과는 2년, 이과는 1년 이내)에 요구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일부 일류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한어수평고시를 입학에 위한 필수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부설의 중국어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어수평고시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지역별 주요 대학

국립대학 (국가교육위원회 직속 국가중점대학 36개소 포함)

* 북경(北京) :

북경대(北京大), 청화대(清華大), 중국인민대(中國人民大), 북경외국어학원(北京外國語學院), 외교학원(外交學院), 북경이공대(北京理工大), 북경사범대(北京師範大), 북경의과대(北京醫科大), 협화외과대(協和醫科大), 북경어언학원(北京語言學院), 북방교통대학(北方交通大學), 북경과학기술대학(北京科技大學), 북경중의학원(北京中醫學院), 북경체육학원(北京體育學院)

* 상해(上海) :

복단대(復旦大), 동제대(同濟大), 상해교통대(上海交通大), 화동사범대(華東師範大), 화동화공학원(華東化工學院), 중국방직대학(中國紡織大學)

* 천진(天津) :

남개대학(南開大學), 천진대학(天津大學)

* 광주(廣州) :

중산대학(中山大學), 화남농업대학(華南農業大學), 중산의과대학(中山醫科大)

* 제남(濟南) : 산둥대학(山東大學)

* 서안(西安) : 서안교통대학(西安交通大學)

* 청도(靑島) : 해양대학(海洋大學)

* 하얼빈(哈爾濱) :

하얼빈 공업대학(哈爾濱工業大學)

* 남경(南京) :

남경대학(南京大學), 동남대학(東南大學)

* 무한(武漢) :

무한대학(武漢大學), 화중공학원(華中工學院), 중국지질학원(中國地質學院)

* 하문(廈門) : 하문대학(廈門大學)

* 성도(成都) : 사천대학(四川大學)

* 길림(吉林) : 길림대학(吉林大學)

* 항주(杭州) : 절강대학(浙江大學)

* 심양(沈陽) :

동북대학(東北大學), 요녕대학(遼寧大學), 중국 의과대학(中國醫科大學), 노신미술학원(魯迅美術學院)

* 장춘(長春) :

길림공업대학(吉林工業大學), 장춘지질학원(長春地質學院)

* 대련(大連) : 대련해운학원(大連海運學院)

기타 대학(지역별 주요 대학)

* 북경(北京) :

중앙민족학원(中央民族學院), 북경농업대학(北京農業大學), 중국법정대학(中國法政大學), 북경공업대학(北京工業大學), 북경사범학원(시중점대학,北京師範學院),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

* 상해(上海) :

상해공업대학(上海工業大學), 상해과학기술대학(上海科學技術大學), 상해해운학원(上海海運學院), 상해전력학원(上海電力學院), 상해의과대학(上海醫科大學), 상해중의학원(上海中醫學院), 상해외국어학원(上海外國語學院), 상해재경대학(上海財經大學), 상해대외무역학원(上海對外貿易學院), 상해음악학원(上海音樂學院), 상해체육학원(上海體育學院)

* 천진(天津) :

천진의학원(天津醫學院), 천진중의학원(天津中醫學院), 천진외국어학원(天津外國語學院), 천진상학원(天津商學院)

분야별 주요 대학

* 5대 한의대학 :

북경중의학원(北京中醫學院), 천진중의학원(天津中醫學院), 상해중의학원(上海中醫學院), 남경중의학원(南京中醫學院), 광주중의학원(廣州中醫學院)

★ 5대 미술대학 :

중앙미술학원(북경, 中央美術學院), 중앙공예미술학원(북경, 中央工藝美術學院), 절강미술학원(항주, 浙江美術學院), 노신미술학원(심양, 魯迅美術學院), 천진미술학원(천진, 天津美術學院)

★ 3대 음악대학 :

중앙음악학원(북경, 中央音樂學院), 상해음악학원(상해, 上海音樂學院), 천진음악학원(천진, 天津音樂學院)

★ 5대 체육대학 :

북경체육학원(北京體育學院), 상해체육학원(上海體育學院), 천진체육학원(天津體育學院), 심양체육학원(沈陽體育學院), 광주체육학원(廣州體育學院)

학비

가. 수업료

대학수업료는 중국대학의 수준이나 등급에 따라 수업료의 차이가 있다.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소위 일류대학은 학비가 연간 1,600~2,200 US\$ 수준이며, 그외 2류 3류 수준의 대학은 대략 연간 1,200~2,000 US\$ 수준으로 전공에 따라 구분된다.

나. 기숙사비

외국유학생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보편적으로 1인 1실 또는 2인 1실이 있으며, 기숙사비는 대학 또는 그 기숙사의 시설 내용에 따라 1일 2~6 US\$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다. 등록비

학교 등록시 대학에 따라 10~20 US\$ 정도의 등록비를 지불한다.

라. 기타

각 식비는 대학에 따라 1일 2~3 US\$ 정도가



소요되며, 교재비, 식당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지불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숙사에 설치된 외국인 유학생 전용식당을 이용할 경우 연간 약 800~1,000 US\$ 정도 소요되고 있다.

유학제도

가. 유학자격

(1) 학부유학생

수학기간이 4년인 학부유학생의 대학입학자격은 중국의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하고 만 25세 이하여야 한다.

(2) 석사과정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먼저 중국 대학의 학부졸업(학사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져야 하며 수학한 대학의 담당교수 또는 부교수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학부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

을 통과하여야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이수한 경우 출신학과와 특별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입학시험이 면제된다. 중국대학의 석사과정은 전공에 따라 수학기간이 2~3년으로 연령은 만 35세 이하여야 한다.

(3) 박사과정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는 자는 반드시 중국의 석사학위(Master's of Degree)에 해당하는 학위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수학연한은 2~3년 간이며 연령은 신청일 현재 만 40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석사학위를 취득할 당시의 담당교수 또는 부교수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박사과정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4) 편입학(석사이상)

중국대학의 석사 이상의 과정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은 중국의 석사과정 이상의 과정에서 수학한 학생으로써 장차 중국 대학의 주임교수의 지도 아래 독립적으로 수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연령은 만 45세 이하여야 하고 수학 기간은 1년 이하이다.

나. 신청서류

(1) 신체검사서 :

중국의 대학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혈액검사-AIDS포함) 후, 담당 전문가가 작성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부착).

(2)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출신학교 발행의 영문증명서가 필요하다.

(3) 추천서 2매 이상 (출신학교 담당교수 또는 부교수)

(4)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생검역당국(Health quarantine authorities)에 준비된 외국인 건강진단서 : 진단서는 공중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의사가 작성해야 하며, 신청자 사진, 병원인장, 혈액검사표가 있어야 한다.

건강자격조건에 미달되는 학생은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사람이 중국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간에 자비로 한달 이내에 중국을 떠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근래에는 많은 대학들이 우리 나라의 대학 병원급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5) 영어로 또는 영어로 번역된 공인받은 졸업장과 학교 보증 전학년 성적표 복사본.

다. 신청일자

신청하려는 매학년 학기 시작 이전 4월 30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의 국제협력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나 희망학교의 외사처(外事處)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추후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류가 해당학교로 배송되며, 신청자가 희망학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학교를 선정하여 신청자를 배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별한 입학절차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연중 아무 때나 입학신청을 받고 바로 입학자격을 심사하며 서류심사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있으므로 미리 유학 희망 대학에 입학신청서를 접수시키는 등 유학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라. 입학시험

(1) 신청서 제출 후, 과학·공학·농학·의학 전공 대학원생은 기초수학, 물리, 화학 표준시험을 치루도록 요구된다. 경영학을 공부할 학생들은 기초수학시험을 치뤄야 한다.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원칙상 학생 본국에 있는 중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이런 시험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

(2) 석사학위 취득희망자는 그들의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본, 추천서 검토를 통해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대학으로부터 입학이 허가된다.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허가를 받고 중국에서의 첫 해 교과과정을 끝내고 치루게 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들의 논문연구를 위해 계속 머물 수 있다.

반면, 그 자격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은 연구를 중지하고 수료증서를 받고 중국을 떠나도록 되어있다.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희망자는 최고학년 상급학생으로서 먼저 중국에 도착하여 공식적인 학위과정의 입학이 허가되기 이전에 중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치루어야 한

다. 이 시험에 실패한 학생의 경우에도, 석사과정의 적당한 수준에서 상급학생으로서 수학할 수 있도록 허가되기도 한다.

(3) 등록한 후 최고학년 상급학생들은 그들의 학과 지식과 어학 실력을 그들의 지도주임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생들은 보통 상급학생 신분으로 변경(유급)되기도 한다.

(4) 교양과목을 공부한 대학 학부생과 보통 상급학생들은 입학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 입학결정은 지원자의 이전의 공식 기록에 기초할 것이다.

마. 입학과 등록절차

(1) 국가교육위원회(SEDC)는 지원학생들의 대학과 학과 선택에 따라 관계되는 중국 대학에 지원자의 기록서류들을 보급할 것이다. 중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신청양식에 의하면 지원자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와 대학들 중 3개의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다.

어쨌든 SEDC는 외국인 학생들이 그들 관할이 아닌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조정할 수 없다.

(2) 입학허가를 결정하고, 입학통지서와 JW-202 양식(학생비자 신청서)을 합격한 지원자에게 보내는 것은 중국 대학이 시행한다.

(3) 합격한 지원자는 입학통지서와 JW-202 양식, 외국인 신체검사기록을 제시하는 대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학생비자(X비자)를 받을 수 있다.

(4) 중국의 학기는 매년 9월 1일에 시작한다.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들은 입학통지서에 준하여 9월 1일과 9월 5일 사이에 등록하도록 요구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자격이 박탈될 것이다.

바. 초보 중국어 과정

중국어를 모르거나 필요수준 이하 정도의 지식을 갖춘 학생들은 그들의 전공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어 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한다.

중어중문, 중국사, 중국철학, 중국예술사, 전통중국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은 초보 중국어 2년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과학, 공학, 그 외의 과목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나 상급학생들은 초보 중국어 1년 과정을 거치도록 요한다.

중국어에 있어서 적당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양과목을 공부하는 일반 상급학생들은 곧바로 그들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각 학교 내에 보통 어학과정의 강좌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개설될 것이다.

교양과목을 마친 선임상급학생과 고급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고급단계의 중국어 실력을 갖춘 자라야 하고, 그들 전공분야의 학업추진과 연구에 있어서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매체가 중국어가 아닌 학업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이라 해도 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일부 대학에서는 별도의 중국어 강좌를 이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 학사 일정과 평가

(1) 열심히 공부하길 원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들이 그들을 위해 규정한 학과와 학사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생이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입학시에 의견일치를 보았던 학과나 학습기간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학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월 1일 전에 학생후원자가 그 학교의 승인장

과 함께 신청서를 SEDC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대학학부 재학생들과 고급학위 취득 희망자들은 그 학교에서 개설한 정규 학사일정에 따라야 한다. 보통상급학생들은 지도교수가 배당됨이 없이 원래 승인된 과정만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임상급학생들은 배당된 담당교수의 정기적 지도 하에 주로 독립적으로 공부한다.

(4) 외국인 학생들은 수업출석, 강좌평가, 진급과 유급, 학사일정상의 정학과 퇴학, 결석 허가, 표창과 징계, 제재에 관한 각 학교의 법칙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 식사, 하숙, 의료

(1) 중국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식당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이 원한다면 중국인 학생들을 위한 간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다.

(2) 중국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제공한다. 보통 2명의 학생이 한 방을 쓴다.

(3) 중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병에 걸렸을 때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일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그들 학교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선정해 주기도 할 것이다.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지급해 준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관한 비용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치과, 안경, 분만이나 유산, 생리적 결함에 대한 정형외과 수술, 식이요법, 중국에 오기 이전의 만성병의 치료 그리고 외국인 학생의 중국법률과 규칙 위반으로 인한 상해나 사고에서 초래된 비용은 그 위반자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중국유학과 관련된 국내절차

가. 중국유학허가 및 절차

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이 중국유학을 희망할 경우, 입학허가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먼저 출신대학의 교무처(직장에서 중국유학을 보내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중국유학 허가추천서를 신청한 다음, 총장명의(또는 소속기관장)로 된 중국 유학허가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교육부 재외국민교육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된 중국유학허가서를 받은 다음 외무부 여권과에 특정국가(중국) 여행허가를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고졸자의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교육부 재외국민교육과에 중국 유학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 교육부 중국유학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유학(연수)목적 방문 신청서
- 유학(연수)목적 및 계획서
- 이력서(가족사항 포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3부
- 서약서, 추천서(기관장 또는 최종학교 학교장) 각 3부
- 초청장(입학허가서) 및 번역문 3부
- 국내 재정 및 신원 보증서 3부
- 호적등본 3부

나. 비자발급

교육부의 중국유학허가와 외무부의 특정국가 여행허가를 취득한 학생은 중국의 대학에서 접수한 입학통지(허가)서와 JW 202 양식, 건강진단서(대학병원급 이상의 국공립 종합병원)를 첨부하여 중국대사관 영사처에 학생비자(X비자)를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명수/「해외유학가이드」저자,
계성문화관광 대표

* 중국유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은 위 자료를 제공한 박명수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778-3773).

중 국 교 회 의 회 고



방지일

한 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대열에 끼여서 중국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다. 중국 교회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중국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고찰하여 봄은 그 의의가 있다.

중국 선교는 13세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여러 번 기복의 역사를 가진 바 있다. 이를 극히 간단히 살펴보아 나의 선교에 참고를 삼은 바 있었다.

경교시대(7세기 唐初시대)

중국역사에 강국으로 과시

했던 나라는 당나라이다. 거기서 수입해서 우리 민족의 구미를 당기는 고추의 이름이 唐草에서 나왔다고 하는 당나라이다. 그때 서구에는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신성로마제국이 배태되는 때였다. 중동에는 파사가 강국으로 떨치는 때, 唐 高祖가 등극하여 중외에 그 위세를 떨쳤다. 그때에 후파사인 아라본이 635년에 長安에 들어와 선교를 시작하였다. 太宗은 극히 환대하였고 高宗은 781년에 경교비를 세웠고 景寺를 여러 곳에 세웠다.

그러나 교세일로 왕성하던 경교가 얼마 못 가서 경교비 외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그 쇠퇴의 이유를 고찰해 본다면.

① 정교혼합(政敎混合)한 까닭이었다.

정치적 배경으로 교세를 확장함은 오래 못 간다. 太宗, 高宗, 玄宗은 그 배경이 되었으나 武宗(841~846)은 크게 박해하였다.

② 인재를 못 길렀다.

외국인 자기들만 포교하고 자국인의 인제는 전연 배양치 않아 실패를 하였다.

③ 혼합종교를 만든 까닭이었다.

절대 구속의 복음, 계시의 신앙을 현실의 비위에 맞추어 혼합종교를 만드니 경교비에 기록된 대로 우상종교로 전락되고 말았다.

천주교와 후경교(13세기 元朝時代)

元 世祖가 세력을 중외에

떨치던 때이다. 본시 자신은 불교도였는데 태후가 경교신자였으므로 그 감화를 받아 기독교로 전환하여 교황에게 선교사 100명 파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내적으로는 칙령을 내려 민으라고 강요하였다. 불복자는 예루살렘에 끌고가서 그 기름을 짜버리고 말겠다는 압력적 명을 내렸다.

당시 교황 니콜라스 4세는 1289년에 Corbino(若望)이란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이분은 조정에 출입하며 정권을 배경으로 선교하니, 북경 35년 선교에 대성황을 이루었다. 신도도 많아졌고 교당도 세웠다. 1307년엔 북경총주교직이 부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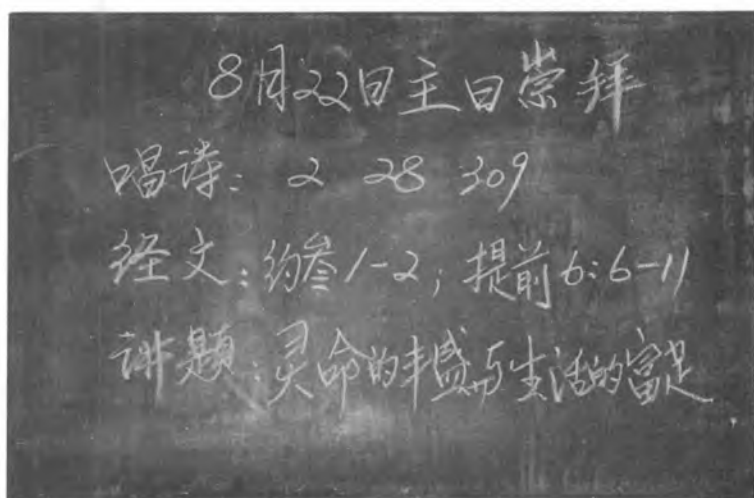
그때 후 경교라고 다시 계속하여 입국해서 역시 정권을 배경으로 성과를 얻게 되었으나 이런 권력 이용의 선교는 길게 갈 수는 없었다. 결국 다시 실패하고 말았으니

① 권력을 이용 포교한데서 쉽게 되어진 듯하나 정권이 무너질 때 같이 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② 형식에만 치우쳤다. 경교는 수리아어로, 천주교는 라틴어로만 하니 당시의 신도들은 진리를 얻지 못했다. 신앙운운하면서 세력에 아첨하고 그 세력을 써 보기도 하고 향락이나 몰두하였으니 오래 갈 수가 없었다.

천주교와 예수교회시대(明朝 16세기)

명종·신종 대제 시대에 Francis Xavier (聖方濟)란



중국 교회의 예배에는 주보가 따로 없다. 매주일 예배의 찬송가와 성경구절,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 흑판이 교회입구에 걸려 있다.

선교사가 증원에 선교하려고 남해 낙도 한섬에 와서 그 수속을 기다렸다.

그때 플추갈상회는 그 이익의 손해를 볼까 의심해서인지 그들의 방해로 그 뜻을 못 이루고 그 섬에서 기도하다가 생을 마치었다고 한다.

그 후에 이태리인 Matteo Ricci가 1552년에 입국선교하였다. 과학에 우수한 학자로서 명조 집권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신종에게 성자 성모상을 드렸고 또 악기와 시계(自鳴鐘)를 선사하기도 하였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그를 후대하였다. 조정을 제집같이 출입할 수 있었다. 주택을 급여받기도 했고 저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며 전도하게 되어 권력층에만도 290여 명의 신자를 얻었다.

이런 배경으로 교세는 나날이 확장되어 13성에 30여 포교근거지를 가지기도 하였다. 신도수도 12,000여 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교세도 장구할 수는 없었다. 이 시대의 실패의 이유도 상고해 본다면

① 정치 종교의 혼합이 실패

의 원인이었다.

② 종교와 과학의 혼합으로 순수한 구령보다 과학 교육이 앞선 격이었다.

③ 권력을 배경으로 흥망하였으나 정권의 변동으로 교회도 쇠퇴하였다.

④ 천주교와 예수회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新教時代(19世紀 清朝시대)

선교는 영국 선교사 모리슨으로 시작되었다. 모리슨은 동인도 회사가 중국선교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대서양을 거쳐 미국 뉴욕을 가서 미국배를 타고 1807년 광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미국 국무성의 소개로 미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 온 것이었다. 후에 동인도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비로소 영국인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당초에는 청조가 선교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곤란을 많이 당하였다. 후에 선교사도 많이 입국하여 여러 번 상신하였던 바 1884년 12월 道宣 황제가 선교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허가로서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에 교회당을 건축할 수는 있으나, 내국인에게서는 자유롭게 할 수 없이 제한된 것이었다.

그 후에 계속 선교사들이 입국하였고 또 구미 각국의 무역과 외교가 빈번해지면서 조약이 계속 체결되었으나 상호평등 조약이 되지 못하고 불평등 조약이었다. 따라서 불만중에 강요를 당하여 되는 일이라 그 조약 중에 포교 자유의 조건도 들게 되어 많은 선교사들이 각국에서 운집했다. 그래서 선교에는 크게 문이 열린 것이나 거기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지라, 선교사들의 지위도 탁월한 위치에 서 위세를 날렸다.

전성시에는 선교사가 8천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그들이 하는 사업으로 교육, 의료, 자선사업을 동반하는지라 4~5만 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기도 하였고, 그 많은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만 해도 대단한 숫자였다.

그러나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공고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 ① 선교사 중심의 교회였고,
- ② 정치적 불평등 조약 아래서의 포교였고,
- ③ 교육, 문화, 기관, 인물, 경제가 외국인 중심이요
- ④ 현지인들은 추종에 불과한지라 교회본연의 자세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운집 입국한 선교사는 해안지대에 밀집되어 있었고 내지(內地)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혁명적 선교정책 (20세기)

기성 선교사들의 선교정책에 대한 비판도 선교국에 높아져가게 되고 선교지의 호응도 그런지라 선교정책 개혁론이 각국에서 일어나 선교사들의 안일주의를 비판 하기도하고, 평신도 대표들의 조사원이 선교지에 오가기도 하였다.

그때에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목사는 분연히 일어나 內地會(Inland Mission)운동을 일으켜 지방으로 깊숙이 오지를 택할 뿐 아니라, 전적 희생할 선교사를 모집하였고 훈련시켜 대량적으로 오지 선교를 시작한 것이 근대 선교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선교의 호응은 대단하였고 피선교지의 환영은 더욱더하여 전과는 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로써 중국 본연의 교회상이 대두하게 되었다 할 만하였다.

中華基督教會 時代

1807년 모리슨의 선교 개시 이래 1907년 1백주년 선교기념대회를 계기로 中華에 기독교회를 단일화하자는 운동이 誠靜治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등이 주축이 되어 中華基督教會를 창설하게 되었다.

상당한 호응을 각 교파에서 받아 대교단을 이룩하게 되었다. 외국선교단체의 17선교회가 여기 가입되었다. 전국 21대회 117노회의 대교단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가입되지 않은 교회도 있어 교파는 교

파수대로 더 들어가는 정황이었다.

한 큰 교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성공이라면 성공이었고, 큰 교파가 거의 가입되기는 하였다. 우리 선교회도 일찍이 이에 호응하여 여기 가입하였다. 중화의 선진교회 선교단체 중 우리교회도 거기「朝鮮宣教會」란 이름으로 어깨를 겨룰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선교회는 중화기독교 총회산하 산동대회 산하 16교회 중 태양노회, 동해노회, 교동노회가 우리와 관계된 조직이었다. 목표는 自立, 自養, 自傳이었다.

총회는 매 4년에 한 번, 대회는 매 2년에 1차, 총회는 1년에 1차씩으로 개최된다. 총회 총대는 대회서 택하는데, 총회를 네 번 모였다. 제 1회, 2회 총대로 필자의 가친이, 제3회 총회엔 박성순 목사가, 제4회 총회는 蘇州서 모였는데, 필자가 총대로 갔었다.

총대는 선교사의 위가 아니다. 투표 선정하는데 서구 선교사, 중국 목사 중에 우리 소수의 선교사가 총대로 선정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총대가 21대회에서 4백50여 명 합숙 총회를 한다. 언어가 통일되지 않아 번역을 할 때도 있어 가관이었다. 표준말을 다 그리 잘 쓰지를 못하였다.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중국어문 선교회 교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내 머리에 주님의 은혜의 관을 씌우시다.

曾莎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우시니 길에는 기름이 떨어
지며.....」 (사 65 : 11)

이 성경구절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이다. 보잘 것
없고 짧은 내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생
각을 떠오르게 한다. 나는 마음
속 깊이 주님의 말씀에 동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
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라.> (롬 8 : 28)

내가 비록 22세가 지나서야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나의 일
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
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어그러지고 타락한
이성으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희미한 절망의 나락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나로 하여금 점차
진리를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
라 나 자신의 참 모습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자라나다.

나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에

의해 자라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 부모의 사
랑이 결핍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
었을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도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되
었다. 비록 부모님이 나를 자주
찾진 않았지만 나의 요구에 대
해서는 매우 엄격했고 게다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복잡해
서 외할머니께서는 늘 밖에 나
가서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
게 했으므로 어린시절부터 고
독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3세때부터 가정
교사를 초빙하여 내게 글씨를
가르쳤고, 국민학교 때는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인기를 얻게
되자 나 스스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게 되어 자연히 교만해졌
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자
학업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
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
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된

다. 그러나 당시 나는 매우 실의에 빠져 내가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달갑게 여기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적이 내려간 것 외에도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서 그 과목의 성적이 오르게 되었는데 아마도 사랑의 힘이었으리라.

1983년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불행히도 낙방을 했다. 철학, 정치 두 과목의 점수가 너무 낮아 총점을 깎아 내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나는 부득이 학원에 들어가 공부하여 다시 대학입시를 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마음대로 안 되었다. 다시 학원에서 2, 3개월을 공부하던 중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국영기업의 정식직원 모집이 있었고 부모님은 내게 응시할 것을 강요하셨다. 원하진 않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의 일은 비단점포의 계산대 근무였는데, 1, 2년이 지나자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전에 업신여기고 싫어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내 스스로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재무경제대학의 상업회계 전문과정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3년의 전문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러나 이 3년 동안 세상인심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걸 경험했고 직장에서는 학벌이 없는 상사가 나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견디기 어려운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삼 년을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나는 인생과 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사회의 음침한 면, 인간의 추악한 면만을 보게 되었고 직장의 상사를 적대시 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비록 당시의 내가 아주 의기소침한 상태였지만 도리어 내심 깊은 곳에서는 절박한 필요 같은 것이 내재해 있었다. 나는 오로지 서적에 의존해서만 내 마음의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다행히 서양의 사

회과학류 서적들이 몰려 들어와 나는 많은 책을 사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보았지만 나의 쓸쓸함과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다.

집회에 참가하다.

88년도 하반기에 이르러 나의 절친한 친구 중 하나가 자기는 이미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나에게 한 권의 성경을 주면서 그녀와 함께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하였다. 나는 당시 졸업논문을 쓰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 속에 거리낌이 있었다. 왜냐 하면 그 집회에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직접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고 그들에게 아부하

는 것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의 친구는 계속 내 옆에서 나를 설득하면서 그들 집회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와는 평소 만남은 없었어도 나를 위해 한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나는 이후에 서야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덕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굳혔지만 후에 나는 친구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늦게 도착하여 입구에서 신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들과 접촉하면서 나는 그들이 기도할 때의 간절한 모습에 이끌리게 되었다. 처음에 나는 그들이 허공을 향해 얘기하는 모습에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때 처음으로 외국인과 만나게 되면서 약간은 두려웠으나, 곧 그들이 나에게 준 인상이 내 종전의 관념과는 아주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외국사람들이 모두 특수한 임무를 가진 간첩이며 좋은 점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완고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들은 기도를 마치자 처음

으로 참석한 나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는데 이것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들의 정성에 이끌려 두려움이 없어졌고, 도리어 그들에 대한 일종의 신뢰와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드디어 세례를 받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매주일마다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한동안의 시간이 경과된 후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필요로 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드디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 주님을 믿은 후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성경공부였는데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내 마음 속으로부터 찾던 것들로,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나는 매일 4시간의 성경 읽기를 통해 믿음이 성숙되어 갔다.

이듬해 나는 세례 받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 이것을 교회의 책임자와 형제 자매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차가운 물로 세례를 받도록 주선을 해주었다. 감사한 것은 모든 과정이 순조로와 추운 물 속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니 정말 주님의 오묘한 은혜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했고 그들이 내게 가한 압력 또한 대단하였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었고 내 말을 반대하는 소리나 압력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나를 인도하여 주님을 믿도록 한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든 면에서 나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 주었으므로 나약한 나는 그들을 의지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성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와 동시에 나와 나를 인도해 주님을 믿게 한 친구를 제외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속해서 출국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다른 크리스천들은 알지 못했으므로 버림받은 양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성경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 성경께서는 우리들에게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셨고 그래서 나와 친구 두 사람은 계속해서 집회를 가졌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



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응답을 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점차 모임이 커지게 되었다.

주님의 사랑의 밭줄에 이끌리다.

나는 그때 이 작은 집회의 인도자를 맡게 되었다. 형제 자매들 중 나이도 가장 어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여러 면에서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 나를 도와 주셨다. 한 형제는 내게 성령에 관한 많은 서적을 보내주는 등 나의 성경지식과 영적인 방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예비와 인도하심에 따라 그 지역 시와 기타 지방의 많은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내게 다른 가정교회의 집회에 참가할 기회를 주셔서 몇 명의 지체들과 교제하게 하셨다.

이 밖에도 주님을 믿은 후 지금까지 나의 사상과 행위가 어긋나고 과격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예비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깨우치셨으며 그의 사랑의 밭줄로 시시각각 나를 끌어 당겨주셨다. 성경에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사 30:21)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깊이 체험한 것들이며 이 몇 년 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변화시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지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게 되었고 우리집에서 형제 자매들을 접대 하는 것도 허락하셨다.

현신의 길로 나간다.

주님을 믿은 지 2년째 되는 해에, 나는 내 자신을 헌신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받기만 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

일 년 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대륙에서 태어났지만 대륙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바라 건대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셔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다 고 하셨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없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나 자신을 헌신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금년 설날엔 외지로 나가 공부하고 훈련을 하며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강렬해졌다.

<들판의 곡식>이란 찬양은 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위하여 나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깊어지게 했다.

1. 들판의 곡식 점점 익어 가는데 거둬들일 일꾼이 보이지 않아 주인의 마음 초조해지네 초조하기가 불붙는 것 같으나 같은 마음 가진 자 찾을 수 없네. 많은 일꾼 보이지만

자기의 이익만 위해
시간 내고 힘을 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없네.

주님과 무리될 땐
사람은 있으나
주님이 필요로 할 땐
보이지 않네.
어찌 우리 주님
상심치 않으리요?

2.

산과 들 모두
길 잃은 양의 무리들
양 치는 이 보이질 않으니
배고프고 상처 입어 죽어가고
야수에게 채이고 삼켜지며
떠돌고 '흠어져 방황하는구나
양무리 흠어져 잃기도 하는데
당신은 핑계 대고 도피하니
어찌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리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의 뜻에
몇 명을 찾을 수가 없네.

후렴
누가 주님 뜻에 합당할까?
누가 주님 뜻에 합당할까?
누가 주님의 사용하심에
합당할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까?

이 찬양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내가 여기 있

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내가 지
혜로운 결정으로 주님을 믿게
된 이상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선택일 것
이다. 모든 생명을 지혜와 반복
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드린다
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바 없으니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나의 봉사하는 일에 관해서
계속적인 성령의 감동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 형제 자매들의
격려와 전적인 지지 그리고 환
경의 보증 등이 뒤따랐다.

나는 거의 일 년 동안 직장
에 나가지 않았으나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
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셨고 나
는 앞으로도 이런 믿음을 가지
고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앙
망할 것이다.

직장을 그만둔 후, 한 형제의
소개로 8개월 간의 단기과정을
공부하고 졸업한 뒤 일정기간
을 조용히 보내려고 집회 이외
의 오전과 저녁시간에 성경 읽
기와 기도시간을 갖고 오후엔
영어를 배우기로 했다.

그러나 겨우 이틀만을 시행
했을 뿐이다. 왜냐 하면 매우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심방을 필
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자
매들은 실제적 곤경에 처하여
도움과 해결을 필요로 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나의 모범이 되었다. 사도행
전 3장 1절에 『제 구시 기도시
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나와 있다. 그
분들은 필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입구에서
절름발이 한사람을 만나자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종교의례와 사람을 살려내는
관심의 표현을 비교할 때 그들
은 아마도 후자를 중시했던 것
같다.

초신자를 대상으로 1대1 양
육·훈련하는 것에 많은 시간
을 보내야 했지만 나는 기꺼이
이런 일들을 하였다. 왜냐 하
면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니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들 외에도 나는 지금 멀리
서 온 형제 자매들을 접대하고
있으며 외지 형제, 자매와의
교제와 서신왕래를 계속하고
있다.

나의 큰 바람은 체계적인 훈
련과 신학방면의 훈련을 받는
것이다. 왜냐 하면 주님 섬기
는 일이란 한평생의 일이기 때
문이다. 다만, 더욱 깊이 주님
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
할 때 영원토록 깨끗하게 주님
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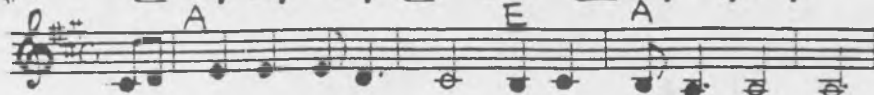
(『中國與教會』 97期 중에서)

번역 : 이성철(중국어문선교회 회원)



你們要去要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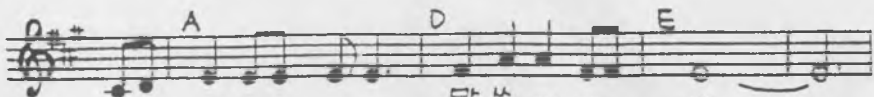
갈리리 마을 그 숲속에서



在加利利樹林裡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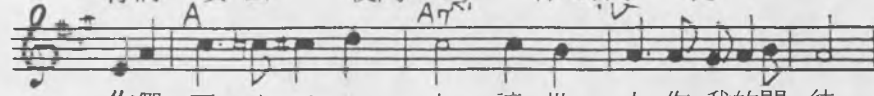
我主再次向差十一門徒顯現



對他們說最後的吩咐吩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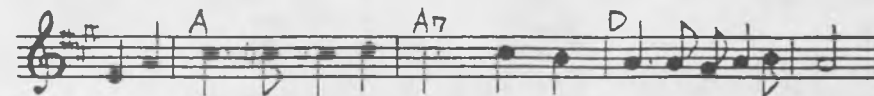
你們要去使萬民作我門徒



你們要去要去讓世人作我的門徒



那一切的靈魂正期待你的回應



你們要去要去讓他們遵守我的道



因為我常與你們同在直到永遠

발음: zài jiā lì lì shù lín lǐ miàn

wǒ zhǔ zài cì xiàng chāi shí yī mén tú xiǎn xiàn

duì tā men shuō zuì hòu dì fēn fù fēn fù

nǐ men yào qù shǐ wàn mín zuò wǒ mén tú

nǐ men yào qù yào qù ràng shì rén zuò wǒ dì mén tú

nà yī qiè dì líng hún zhèng qī dài nǐ dì huí yīng

nǐ men yào qù yào qù ràng tā men zūn shǒu wǒ dì dào

yīn wèi wǒ cháng yǔ nǐ mén tóng zài zhí dào yǒng yuǎn.

主的晚餐

路廿二17-20; 約十三33-38; 十四; 太廿六30, 36-56

叛徒猶大離開後，耶穌拿起餅，祝謝了，擘開，分給門徒。他說：「這是我的身體。」他們吃過餅後，又給他們杯喝。

주님의 만찬

(눅 22 : 17~20, 요 13 : 33~38, 14장, 마 26 : 30, 36~56)

반역자 유다가 떠난 후,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들이 떡을 먹은 후, 또 그들에게 마실 잔을
주셨다.

你們每個都喝它，
因為這是我的血，是為付
你們罪的代價而流的。我去了以後，你們要這樣做，為的是紀念我。
“너희는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여라. 이는 나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這樣，耶穌在上帝與人之間，訂下了新公約。人奉耶穌的名拿起餅和杯時，要紀念上帝怎樣藉着祂的兒子，把人從罪的奴役中解救出來。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약속을 정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과 잔을 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의 노역중에서 구해 내셨던가를 기념하려는 것이다.

"잠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再過一會兒，我要離開你們了，
你們不能跟着我。但我去之前，
要提醒你們，務要彼此相愛，好
像我愛你們一樣。

主，爲什麼我不能
跟着你？你知道，我把一生
都給了你。"주여! 왜 제가 당신을
따라 갈 수 없습니까? 제 인생을
모두 당신에게 드렸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門徒想到耶穌要離開他們，很
是懼怕。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매우 두려웠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彼得，在雞叫之前，
你要三次不認我。

不認我主？永
遠不會！我的佩
刀已準備好，誰
要動手傷害他，
我就給誰顏色
看。

"나의 주를 부인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 내 칼을
이미 준비해 놓았으니 누가
감히 그를 해치려 든다면
내가 그에게 맛을 보여줘야지."



不要害怕。相信上帝，
也應相信我。要是你們愛
我，就遵守我的誠命。我
就要求上帝派聖靈來安慰
你們。聖靈會永遠跟你們
在一起。來吧，現在要走了。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구하겠다. 성령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지금 떠나야 한다."





나의 中國 유 학생 생활

김경희 저/ (주)시사 영어사/ 값 4,000원



이 책은 재미교포 김경희씨가 중국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적은 글이다.

그는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약 9개월간 미국 예일대 법대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중국의 호북성에 있는 무한대학 법학원에서 연구를 하였다.

9개월이라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는 수박 겉 핥기 식의 이해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글의 작가는 중국유학 준비단계 때에 알게 된 중국인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 중국사회의 여러 면을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외국인으로서 중국을 연구하는 데 따르는 자료구입의 어려움 등을 말하고 있다.

또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양자강 삼협, 북

경, 무당산, 심천, 할빈, 천진, 낙양, 개봉, 정주, 남경, 소주, 상해 등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들과 그 지역의 특색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1988년도에 발행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오래된 점도 있지만 여성만의 독특하고 섬세한 시각으로 중국의 여러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중국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캠퍼스를 통해서 중국선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추천한다.

빛으로 소금으로

레베카 피펫 저/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값 3,000원



이 책은 기독교학생회(IVF) 간사로 수년간 캠퍼스 사역을 한 바 있는 레베카 피펫이 쓴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도할 때의 인격적인 접근방법, 대화 기술,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개인적인 전도뿐 아니라 공동체의 전도에 대해서도 적절한 균형과 감각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경험담과 함께 권면을 잊지 않고 있다.

전도란 어떤 전도의 방법과 원리를 암기하고 틀에 박힌 공식이나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활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의 삶과 가치관, 생활방식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실려 있다.

7, 8장은 예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대화 기술을 배우는 실제적인 문제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세주로 경배하게 하신 합당한 근거를 이용하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우리가 정말 자유한 가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다.

세계선교와 케임브리지 7인



존 폴록 저/
한국기독교대학인회원
성경원기사/값 2,000

이 책은 약 100년 전, 하나님께서 중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부르시고 준비하신 재능 있고 용기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이다. 이들이 보장된 장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교사의 삶으로 헌신하기까지의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한 순간의 충동이나 열정에서 비롯된 것 이라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분을 인생의 온전한 주로 섬기기로 결심한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이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동역자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이들을 준비시키신 과정들이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결단했을 때 변한 것은 이 젊은이들 자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거듭났고, 또 많은 대학생들에게 헌신에의 도전을 주어 대학생 선교운동의 시초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준비되기까지의 이면에는, 재능과 능력을 갖춘 대학생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기를 기도하던 중국대륙의 선교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케임브리지 7인을 준비시키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삶을 헌신하는 자들을 쓰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때 비로소 당신에 대하여 행동하시며 그 때에 당신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식사 때에 식사하지 않으면 먹을 기회를 놓친다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에서는, 특히 호텔에서는 餐廳(찬팅)의 식사시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아침은 대개 7시 반경부터 8시경까지, 점심은 11시 반경부터 1시경까지, 저녁식사 6시 전후부터 늦게는 8시경까지가 대부분의 영업시간이다. 각각의 호텔에서 그 폭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선은 어느 곳이나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확실하므로 식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미리 프론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리의 식당에서도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있는 곳은 드물고, 대부분 아침·점심·저녁의 식사 때만 영업하는 곳이 많으니까 식사는 제 시간에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거리에서 즐기는 중국 맛의 이모저모

중국은 인도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역이나 공원 등에는 반드시 노점이 선다. 그리고 길 모퉁이에는 한 구역에 하나 정도의 작은 가게가 작은 간판을 수줍게 내걸고 문을 열고 있다. 드럼통 하나로 장사하는 구운 감자를 파는 가게, 보온병에 넣은 차를 팔려고 길모퉁이에 앉아 있는 노인, 작은 리어카에 아이스크림을 얹어 놓고 있는 노파, 랜턴과 작은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만들어 파는 사람, 사과나 배 등을 넣은 대나무 바구니를 天秤(티엔칭)으로 짚어지고 장사하는 사람, 찜통을 몇 단이나 쌓아올려 놓고 만두를 파는 가게 등 시내 어디서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거리의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小吃店(시아오츄디엔)에서는 가게 앞의 작은 칠판에 今天供座(진티엔공주어;오늘의 요리)라고 쓰여져 있는데 식사 때라도 되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가격도 싸놓았으니까 그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갖가지 진귀한 음식을 먹는 데는 튼튼한 위장과 식욕이 필요하다.

맛보다 호기심이 앞서 생겨나는 곳이 중국이다. 광주(廣州)에서는 고양이와 비둘기, 아르마딜로, 哈爾濱(하얼빈)에서는 사슴의 코, 곰 발바닥, 플라잉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꼬치 구이, 멍키 헤드라는 이름의 진기한 음식이 많다. 이러한 요리는 포장마차쪽이 훨씬 분위기가 있다.

상해(上海)에서는 취향을 바꾸어 프랑스 요리에 도전해 보도록 한다. 錦江飯店(진지앙판디엔) 가까이 있는 '紅房子(홍팡즈)'라는 양식집이 권할 만하다. 다행히 영어가 잘 통한다. 그 외에 南京東路(난징동루)에 있는 이슬람 요리집이나 광동요리집 '新雅(신야)'도 음식이 맛있다.

노상에서 사먹을 수 있는 가벼운 음식

● 饅頭(만터오 ; 만두)

우리의 만두와는 달리 속이 없는 찐빵이다. 화북·동북 지방에서는 이것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둥근 모양이 아니고, 소용돌이치는 모양의 것은 花卷이라고 한다.

맛 보는 중국 요리

상해나 남방지역에서는 속이 있는 것도 만두라고 부른다.

●包子(빠오즈 ; 찐빵)

속을 넣은 찐빵. 속의 종류에 따라 ‘**包(빠오)’라고 한다. 보통 包子라고 하면 고기를 넣은 것이다. 설탕을 넣은 것은 糖包(탕빠오)이며, 한입 크기의 것은 小龍包(시아오롱빠오)이다. 상해의 유명한, 수프를 넣은 小龍包(시아오롱빠오)는 湯包(탕빠오)라고 한다. 시루에 넣어서 파는 것도 있다.

● 그 밖의 음식

餅子(뽕즈), 年糕(니엔카오), 油條(요우티아오; 중국식 막대 모양의 파이) 등이 주식이며 豆漿(또오지웅)은 두유로 달콤한 맛이 있다. 油條(요우티아오)를 담가서 먹는다. 蛋糕(판카오)는 카스테라, 水果(뽕구어)·冰棍(뽕쿤)은 아이스크림, 冰激凌(뽕지링)은 아이스크림, 烤地瓜(카오디꾸아)는 구운 감자, 糖葫蘆(탕후루)는 산사나무 열매나 감귤 등을 엿처럼 만든 것이다.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이 가득하므로 꼭 맛보기 바란다.

● 면 종류

중국의 국수는 우리의 국수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머리에 넣어두자.

가장 대중적인 것은 접시에 기름을 떨어뜨려두고 면을 따로 삶아서 수프와 함께 넣는 것이다. 그 밖의 프라이팬에 처음부터 수프, 국수, 건더기를 넣고 양념과 함께 삶은 것과 국수 튀김 요리도 때때로

볼 수 있다. 주문 방법은 한 그릇을 원하면 1碗(이완)이라고 말하면 된다.

중화요리는 야채가 부족하니 과일로 비타민C를 보충한다.

● 과일류

사과·배·귤(오렌지)·포도·참외 등 각 계절 별로 과일이 나온다.

국영(國營)과일상점에서부터 자유시장에서 파는 사람까지 파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가격은 국영상점이 싸지만, 물건은 자유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질과 맛이 모두 뛰어나다. 때로 좋은 물건이 나오면 가게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기 때문에 줄을 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맛있고 신선한 과일을 사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파는 과일행상에 가서 사는 것이 좋다.

중국에서는 좀처럼 생 야채가 없으므로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쉽다. 거리를 걸을 때 가방에 비타민C 정제를 2~3개 넣어 두었다가 먹으면 목이 건조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세계를 간다-중국」 중에서)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종교

● “동북 신학원 재건을 돕자”

중국 동북지역에 위치한 조선족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북신학원의 재건을 위해 한국 교회 안에 조직된 동북신학원 후원사업회는 신축교사 건립과 내부 설비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현재 중국 내에는 모두 13개의 신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새교사 건축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북신학원이 사용중인 옛 여자 기숙사는 매우 비좁고 낡았을 뿐만 아니라 심양시 도시계획에 포함돼 94년까지는 새로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국민일보 93.11.18)

● 흑룡강성에 신학교 세운다.

중국 흑룡강성 기독교계 지도자와 인민정부 종교사무국 직원 등이 예장(고신)총회 초청으로 내한, 흑룡강성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정식 합의했다.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에는 흑룡강성 기독교협회 부회장 손조귀 목사, 하얼빈시 기독교협회 부회장 진덕신, 여덕지 목사, 하얼빈시 남강교회 조선족 담임 이미란 목사와 흑룡강성 장악 종교국장, 장개봉 종교국 기독교처장, 하얼빈 종교사무국 마영영 부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흑룡강성에는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나 교계 지도자들은 5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93.11.23)

● 상해에서 성대한 찬양예배를 거행했다.

9월 12일 오후 상해시 중심지에 있는 목은당(沐恩堂)에서는 121개의 교회에서 온 약 500명의 성가대원들이 함께 모여 찬양예배를 드렸다. 모두 한 곳에 모여 각 교회마다 찬송을 드리고 서로 배우고 경험도 교환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한층 더 높였다. 성가대는 목소리로 주님께 봉사하니 이 또한 예배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상해 교회는 이 사역을 매우 중시하여 예배가 마친 후 유명한 합창단의 지휘자인 마혁순(馬革順) 교수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강좌도 실시했다.

(天風, 11월호)

● 대마참 가정 교회의 소식

92년도에 광주 대마참교회와 성도들이 공안원에게 수차례 신문과 간섭을 받았다. 10월에 대마참교회의 어느 사역자는 만오천여 권의 성경과 신앙서적을 빼앗겼다. 12월에는 성도들이 공장에서 작업중에 수사를 당하여 신분증과 세례기념사진이 몰수됐다.

93년 6월 3일에 다시 공안원의 뺑박을 받는 등 근래 들어 공안원의 엄청난 방해와 박해의 압력이 점점 더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으로 인해 교회는 더욱 부흥해 가고 있다. 지금은 매주 4차례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인원수는 약 1,200여 명이므로 매번 집회 때마다 대단히 붐빈다.

소식에 의하면 대마참 가정교회는 내년도에 도시재개발의 계획에 따른 철거지역에 해당된다. 임헌고 선생은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

(南華早報 1993. 8.10)

● 하남의 크리스천 천 명이 체포되다.

홍콩의 한 목회자가 신문 잡지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하남성에 있는 공안원이 천여명의 가정교회 성도들을 체포했다. 불법 집회라는 죄명으로 한 사람 당 5백 원~천 원의 벌금이 강제로 징수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벌금을 내지 못하여 감금 당하고 매를 맞고 전기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끓는 물을 머리에 퍼붓는 등 잔혹한 행위로 경고를 당했다.

관련된 공안원에 의하면 벌금의 일부분이 하남성의 공공기금으로 쓰이게 된다는데 이 발표는, 지난 3월 『섬서성의 백명의 크리스천이 체포당했고 그 중 한 명은 공안원에게 맞아 죽었다』고 한 익명의 홍콩목사가 발표한 사건 이후에 또한 차례 벌어진 사건으로 역시 외국에서 떠들썩하게 되었다. UN인권 조직은 중국정부당국을 향해 이 사건을 규탄하며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조사에 나섰다.

(南華早報 1993. 7. 25)

● 이남에서 농촌형 성경학교를 개최하다.

하북성 영년현에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절실한 기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93년도에 “聖經學校”가 창설되었다. 이 학교는 농촌형 학교로서 농번기에는 방학하고 1년에 8개월 동안 공부하며 2년에 거쳐 체계적인 성경을 공부한다.

이 학교는 믿음과 기도로 시작되었다. 한 형제님이 다른 학교에서 안 쓰는 헌 책상 70개를 기증하였고 또 한 형제님은 한 트럭의 연탄을 보내왔으며, 각 교회당마다 차례대로 매년 2 번씩 주일에 헌금한 돈을 이 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93년 8월 4일은 등록일이었는데 그날 따라 큰 비가 내려 학생들은 모두 비에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추어 왔고 도시락과 학용품들을 준비해 왔다. 그들은 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 이후에 신세대 농촌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天風, 11월호)

한중관계

● 중국여행 완화, 복수여행기간 2년으로

외무부는 24일부터 중국을 여행하는 경우 복수여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자격도 현행 2만 달러 이상 상거래 진행에서 2만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등 허가기준을 크게 완화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일보 93.12.24)

● 중국 산둥성~한국 항공로 연내 개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山東省은 省都인 濟南 및 靑島와 한국간을 연결하는 항공로를 올해 개설할 예정이라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大公報가 8일 제남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산둥성정부 口岸辦公室의 방덕귀 副주임이 『산둥성은 이들 2개 市와 한국간에 여객 및 화물 항공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4.1.10)

● 대중투자 합작선과 불화 많다.

지난 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리 나라 업체들의 對中투자가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등 투자 진출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상당수 업체가 중국 합작선과의 불협화음이나 조선족 고용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애로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최근 중국 내의 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중국 투자 애로요인과 대응방안』이란 對中투자가이드를 발간, 중국 진출을 원하는 업체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5일 무공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중국측 합작선과의 불협화음 △중국 지방정부의 비협조적 태도 △조선족 및 중국 현지인 고용에 따른 노무관리 미숙 △현지 생활여건 및 상거래 관행의 파악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94.1.5)

● 중국 교포처녀에 속은 「백년가약」, 농촌총각 「무효訴」 잇달아

중국 교포여성들이 한국 농촌총각과 결혼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가출하는 이른바 위장결혼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들 농촌총각들의 혼인취소 또는 이혼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중국교포처녀와 결혼한 한국남자들이 최근 2개월여 사이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의 이유로 모두 9건의 혼인취소 또는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93.12.2)

● 서울-북경 직항로 3월 개설

한중 양국은 3월중에 서울-북경간 직항로를 개설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북경에서 그 세부사항에 관해 막바지 실무협상을 진행중이다.

양국은 그러나 취항항공사 숫자와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94.1.22)

● 중국, 의회권한 대폭 강화

중국은 정부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와 각급 지방의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國家人民監督法」을 제정중이라고 홍콩 스탠더드紙가 25일 1면 머리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민이 국가를 감시한다는 취지의 「국가인민감독법」은 전인대가 제안했고, 중국공산당의 정책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빨리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93.11.26)

● 공공형량 국유사(國有社)

직원 중국 5명 처형

중국 당국은 최근 국유상점의 총책임자로 지난 87년부터 육류가공공장의 한 직원과 짜고 육류를 빼내는 수법으로 3백74만원(한화 약 5억2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雲南省 昆明市 시산지역 식품회사 산하 상점 책임자 리 탄젠을 비롯한 5명을 처형했다고 중국공산당기관지 人民日報가 28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이들에 대한 사형을 최종 확정, 최근 형이 집행됐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강력히 전개하고있는 反부패투쟁의 일환으로 부패사범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응징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93.11.30)

● 중국 입법부「정부감시」강화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비롯한 省대표대회 市대표대회 등 각급 입법기구의 정부감시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인민감독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홍콩의 영자지 스탠더드가 25일 보도했다.

스탠더드는 喬石 상무위원장이 이끄는 全人大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은 이미 당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全人大를 포함한 각급 입법기구의 정책결정 영향력 등 실질적 지위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93.11.26)

● 중국 대대적 세제개편

중국은 1일 국유기업에 대한 세율을 대폭 낮추고 중앙정부의 稅收증액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세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49년 중국대륙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래 최대규모로 평가되는 이번 세제개혁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 소속 국가세무국의 최고위 경제전문가인 장중청은 이날 열린 국세관계회의에서 이같은 대규모 세제개혁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번 세제개혁은 부가가치세(VAT)·소비세·매출세·부동산세·주식세·상속세·증여세 등을 재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3.12.2)



● 도시주택 사유화 중국 곧 착수키로

중국은 시장개혁정책의 하나로 도시지역 주택에 대한 전국적인 사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중국관영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중국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 달 30일 개막된 관련회의에서 당국은 이미 주택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곧 전국적으로 이같은 주택개혁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93.12.2)

● 홍콩식 자유무역항, 중국 천진지정 검토

중국정부는 天津을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같은 계획이 최근 天津시에서 열렸던 고위 관계자 세미나에서 제기됐다면서 이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李泊溪 발전예측부장의 말을 인용, 『天津시 정부가 중앙정부에 天津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는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93.12.21)

● 중국, 최저임금제 도입

중국정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 임금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스탠더드紙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노동부가 최근 각 도시 및 省정부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오는 7월 이전까지 지역별로 평균 임금의 절반을 넘는 수준에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4.1.8)

● 중국, 환율통일 실험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廣東省 汕頭경제특구와 福建省 廈門경제특구에서 처음으로 人民幣의 환율통일을 실험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영자지 더 스탠더드와 星島晚報가 20일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정통한 중국의 금융계 소식통들을 인용, 朱鎔基가 행장인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이같이 결정했으며 國務院이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93.12.21)

● 중국~러시아, 공동 자유무역지대 추진

중국과 러시아는 22일 극동의 양국간 국경지대에 공동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동 자유무역지대 설립 방안은 최근 러시아가 중국의 6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한 데다 양국간 국경무역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일보 93.12.24)

● 중국 “국유기업 자율경영”

중국은 경제개혁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국유기업들을 정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서구식으로 자율 경영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한 고위관리가 24일 말했다.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왕종유 위원장은 人民日報와의 회견에서 국유기업 개혁으로 『우리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경쟁요소』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으로 국유기업들은 경영실적에 대해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되며 정부의 통제는 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93.11.25)

● 대학생들 모택동 찬양일변
도에 식상

중국의 젊은 대학생들은 모택동이 당시 중국민중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를 잘 파악, 혁명으로 승화시킨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모사상 학습이나 어록 공부에는 더이상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또 毛는 물론 현존하는 절대권력자 등소평에 대해서도 걱정적이고 휘황찬란한 평가나 찬양이 주어지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끼고있다.

중국청년보가 최근 보도한 대학생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毛와 鄧을 「각기 중국의 두 시대를 창조, 毛는 중국민인을 일으켜 세웠고 鄧은 중화민족을 부강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중립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1천7백 명이 응한 것으로 보도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毛가 태어난 연대나 사망한 시기를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8%는 「毛주석 어록」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있다.

또 응답자의 34%는 毛에 관한 서적은 한번도 본 적이 없고 毛관련서적을 본 학생들도 「毛澤東의 수수께끼」등 흥미본위 풍자서적 일색이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93.12.16)

● 중국 밀항자 조류

92년도에 중국 경찰 당국은 2만여 명의 해외도피자들을 체포하였다. 93년도에 이르러 4월까지 불법 출국한 자는 근 2천여 명이다. 이들의 대다수가 중국 동남 연안지방, 특히 절강, 복건성에 많다. 그들은 모두 비밀 조직을 통해 도피하는데 출국 가짜증명의 수수료가 인민폐 5만에서 최고 2만 미국 달러까지 한다. 그리고 引帶出國 비용이 최고로 15만 인민폐가 지불된다.

한 해외도피자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밀항조직에게 약 2만5천에서 3만5천의 미국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만약 돈을 지불할 수 없다면 미국 압박가 조직에 가입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밀항선은 약 백일 정도 걸리는데 선상(船上)의 위생조건은 매우 나쁘고 충분한 물과 양식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구타와 강간 사건도 있다. 이들 밀항선은 풍랑을 자주 만나 배가 뒤집혀지기 쉽기 때문에 밀항자들은 모두 생명의 위협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 뉴욕에 상륙한 밀입 사건 중 8명이 목숨을 잃고 20여 명이 실종된 사건도 있었다.

(明報 93. 6. 8)

● 대륙의 식품 오염이 심하다.

중국 당국의 위생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식중독, 식품오염 및 기타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 심각하다. 식품 안전위생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행상에서 파는 식품들은 더욱 심하다. 이밖에도 어떤 중간상인들이 위생부의 감독 허락을 안받고 도시에서 유통기간이 넘은 식품들을 농촌에 넘겨 팔았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린 이 식품은 식품 위생법에 위반된다. 식품 제조 과정에 있어서도 기본 생산위생조건에 미달한 음식속에 이물질, 모기와 파리등이 검출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저질 식품들은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빈농에게 환영을 받아서 농민들의 건강에 크게 해를 끼친다.

(星島日報 1993. 6.23)

● 중국내 교포 2-3세에 한글 교육

국내에 뜻있는 이들이 중국연변에 세운 「연변조선족 과학기술대학」(총장 金鎮慶)이 중국내 우리 2-3세를 위한 한글(조선어)교육에 나섰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고등중학교(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 교장 전원을 2월24일~26일 학교로 초청해 올바른 한글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조선족 인력양성에 관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시 귀국한 김 총장은 중국에는 길림 등 동북 3성과 내몽골을 중심으로 조선족 고등중학교가 56개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 이들 학교의 교장들을 모두 초청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해 개교한 연변과기대를 운영해 보니 우리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일이 「우수한 조선족 인력 배출」의 선결 과제를 깨달아 이같은 기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3. 2. 1)

● 홍콩 매매춘 근절활동 활발

홍콩의 여성기독교협의회는 홍콩의 매매춘과 관련된 여성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다. 현장경험, 자료수집, 자료화 세부분으로 구성된 이 준비위원회는 정보를 수집하고 목회사역을 위한 훈련기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핫라인이 설치되었고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매매춘 지역을 방문하는 현장경험 활동이 시작되었다.

많은 프로그램의 서비스가 법률조언, 건강적격심사, 일시적인 쉼터, 상담, 후원회 그리고 기술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개될 것이다.

이들은 홍콩의 성 산업과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서비스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크리스찬신문 1993. 1.29)

● 중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세계 으뜸

중국은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 세계 차량대수의 2%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가 18일 보도.

이 신문은 지난 92년 중국에서 발생한 도로 교통사고의 사망자가 전세계의 15%인 6만명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자전거가 관련된 경우가 전체 교통사고의 60%에 이른다고. (동아일보 1993. 1.20)



근래 들어 중국에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증권거래 장면

● 중국전역 점-운수-관상 열풍

사회주의체제하의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제받고 있는 점과 운수, 풍수, 관상, 수상, 점성이 열풍처럼 번지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94년 갑술년을 맞아 더욱 두드러질 것 같다고 홍콩의 明報가 3일 새해 특집기사로 보도.

중국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3대 주요고객은 국유위주의 공산주의하에서 어려움과 위험부담이 많은 개인 및 사영기업 등의 소유주를 비롯, 정치풍토의 변화기에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관리들 및 혼외정사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녀들이라고 明報는 분류.

(동아일보 94.1.5)

● 전국 각 종목의 농민세를 폐지했다.

정부 당국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고 세금 증여를 마구잡이로 요구하자 가혹한 세금수탈에 항의하여 하남성에서 몇 건의 농성 데모가 발생했다.

하남성 이외에도 서남쪽의 10성의 정부가 농민에게 돈을 요구하며, 전신환의 송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농성이 일어났다. 제일 심각한 곳은 사천에 있는 인수현이었다. 만여 명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원인도 농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었다.

(星島日報 1993. 6. 2)

● 심천 화재 171인 사상, 근 백 명의 실종자가 발생.

심천 蔡湧 완구공장 화재로 인해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심천 시청은 全市內에 발령을 하여 모든 공장과 기업단지는 긴급 방침을 세우고 비상출구와 방화검사에 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청보고에 의하면 사고 난 공장은 모 홍콩 사업자가 단독으로 투자한 연료가공기업이다. 정부 당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고로 81명이 사망, 31명이 다쳤다고 한다. 배상문제는 책임소재를 상세히 수사한 뒤 누가 배상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明報 93.11.24)



“성공이다! 땅굴을 다 뚫다.”
 “어? 어느 죄수가 감히 탈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저 밀폐식 공장의 노동자인데
 화재탈출용 땅굴을 뚫을 뿐인셈!”

중국을 위한 중보 기도

1. 우리 교포가 밀집해 있는 동북 3성(흑룡, 요녕, 길림)의 기독교협회가 한국 교회의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다.

♣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2. 하남성을 비롯한 각처에서 아직도 박해와 위협이 그치지 않고 있다.

♣ 주님께서 아직도 고난받고 있는 전도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 복음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시도록.

3. 하북성에서 최근 농촌 성경학교가 2년 과정으로 개설되었다고 한다.

♣ 주님께서 이러한 성경학교를 각처에 일으키시고 이 학교를 통해 젊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도우시길.

4. 서울과 북경간의 직항로가 3월에 개설될 예정이고 중국여행 자격규정이 완화되는 등 중국 출입의 기회가 더욱 용이해 지고 있다.

♣ 주님께서 이 왕래의 길을 따라 효과적으로 복음이 중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5.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 주님께서 특히 크리스천 기업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중국 내에서 모범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를 통해 복음의 터전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6. 중국 유학의 길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 이미 진학해 있는 유학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결신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길.

7. 중국은 지금 직장을 찾는 수많은 유동 인구가 도시마다 몰려들고 있어 도시문제와 작업환경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고 한다.

♣️ 중국이 이 많은 노동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시고, 이 과정 중에 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중국정부와 기업인들이 양심적으로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시길.

8. 세계 각처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가 유학을 하고 있다.

♣️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와 양육받을 기회를 주셔서 이들이 중국을 위로부터 복음으로 변화시킬 힘이 되게 하시길.

9. 홍콩의 중국 귀속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홍콩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 주님께서 홍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홍콩이 중국 복음화에 계속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시길.

10. 중국의 농촌 현실은 과도한 세금과 노동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폭동까지 일으키고 있다.

♣️ 주님께서 중국의 농촌이 피해화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특히 농촌을 위해 일할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시도록 도와시길.



유가지로 또다른 출발을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중국을 주께로”가 성장해 왔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 잡지매체의 변화에 발맞추고, 중국선교에 있어 보다 심도 깊은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가지로 전환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지는 다음호부터 잡지등록과 동시에 유가지로 면모를 바꾸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그리고 변함없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 중국어문선교회 정기기도회

기존에 있었던 매월 정기철야기도회가 '94년부터 정기저녁기도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정기기도회로 모입니다.

중국어문선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중국의 영혼들과 중국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도회는 2월 7일, 3월 7일, 4월 4일…….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 Tel. 594-8038, 533-5497.

▶ 제4회 HOPE CAN SCHOOL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학교) 개강

주로 모슬렘과 공산권인 CAN(Creative Access Nation: 창의적 접근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전문인 선교 관심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HOPE CAN SCHOOL"을 개강합니다.

강의 내용은 창의적 접근지역에 대한 소개 및 선교의 필요성, CAN에서의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전략, 선교를 위한 준비와 훈련, 선교사의 자질과 갖추어야 할 부분 등.

기간은 1993년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매주 월요일 저녁 7시)입니다 (회비 20,000원).

연락 및 자세한 문의는 서울 강남 우체국 사서함 1052호(우편번호 135-610) Tel. 533-6057, Fax. 595-7809.

▶ 이슬람 강좌 안내

한국이슬람연구소가 주관하는 이슬람 강좌를 3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대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개최합니다.

회비는 50,000원이며, 3월 19일까지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Tel. 532-7574, 596-0470.

▶ 청소년교육선교회

제1기 지도자 아카데미

청소년교육선교회에서 제1기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2월14일부터 18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장소는 녹번동 영광교회입니다.

청소년 지도자(교사, 전도사, 부모)를 위한 전문 강좌로 회비는 40,000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Tel. 276-1009, Fax. 276-1070.

▶ 중국어문선교회

전문인 선교중국어 훈련 세미나

전국의 크리스천 대학생, 중국선교를 준비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오전 9시~오후 6시) 중국어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중급 정도의 중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30,000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 Tel. 594-8038, 533-5497 (담당 : 김성순 간사).

우리는 이렇게 일합니다.

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육사업:** 선교지망자들을 위한 중국어학훈련,
선교 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연구사업:** 정기적으로 선교세미나 개최, 선교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최근중국동
향에 대한 정보 수립 및 자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번역 및 출판사업:** 각종 선교책자 번역, 회지
발간 및 각종 관계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 ▶ **방한중국교포사업:** 전도집회 및 “사랑의 집”에
서 제자화 양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분은

1.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2. 후원금을 약정하여 매달 혹은 수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신 달란트를 드려 손과 발로 뉘 수 있습니다.
4.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능이 아닌 성실한
헌신입니다.
먼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할 일을 찾게 될 것
입니다.

중국을 주께로

1994. 1/2. 통권 26호
중국선교 전문지

발행·편집인 / 박 성 주
편집장 / 석 은 해
편집기자 / 한 영 해
편집디자인 / 정 광 숙

중국을 주께로

1994.1/2월호 통권26호
발행일: 1994년 1월 20일
발행처: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594-8038, 533-5497
팩스/ 599-2786

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308호)
전화/ 032-872-0742

사랑의 집: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873-2570

송금 온라인 번호
지로번호: 7602362

섬기는 사람들

고 문/방지일 목사·김지일 장로
대 표/박성주 장로
총 무/이요한
행정실/장희락

사무간사/강영옥
재정간사/임화평
기획간사/전하리
홍보협력간사/김정하
해외협력간사/루디아
교육부 운영위원/김성곤
간 사/김성순
협력간사/안거안
연구부 운영위원/석은혜
협력간사/배다니엘

출판부 운영위원/석은혜
협력간사: 한영혜
편집디자인/정광숙

훈련원 운영위원/장희락
간 사/김바울
전임강사/방주·우신하

선교부 운영위원/정선영
간 사/기드온·이모세

인천지부 운영위원/우신화
간 사/주미애
협력간사/김성수

사랑의집 운영위원/박애린
간 사/이순덕·서세은

파송연구원/주안도
파견간사/김광석·윤승일

파송선교사/박애린(국내)·예보람(해외)
정선영(본부)·강성광(홍콩)
협력선교사/주성지·고대위



선교도서안내

선교도서

- | | |
|------------------------------------|--------|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 3,000원 |
|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3,500원 |
|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서원) | 4,800원 |
|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 1,500원 |
| 5.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 1,500원 |
| 6. 神愛世人 | 1,500원 |
| 7. 만 남 | 2,000원 |
|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 | 1,500원 |

교재

- | | |
|------------------------------------|------------------|
| 1. 中國語 聖經
(신약+시편+잠언: 주음부호) | 7,000원 |
|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 1,500원
1,000원 |
| 3. 經文背誦
經文背誦 Tape | 1,500원
1,000원 |
| 4. 初級中國語 1
初級中國語 1 Tape(10개) | 3,500원
6,000원 |
| 5. 初級中國語 2
初級中國語 2 Tape(10개) | 3,500원
7,000원 |
| 6. 我的第一本聖經
我的第一本聖經 Tape | 2,500원
1,000원 |
| 7.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 10,000원 |
| 8. 信仰讀本
信仰讀本 Tape | 5,000원
1,600원 |

*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담당: 김성순 간사)
(전화 594-8038, 533-5497)

세계속의 카타딘 정수기

그 명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스위스까지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을 하

1. 품질보증

- 세균 적리 아메바, 살모넬라, 콜레라, 이질, 위상염균, 비브리오, 바이러스 완전 100% 제거되며 병 사들까지도 제거됨
- 염소,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은 완벽히 제거하며
-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 미 하버드대학, 미 육군연구소, 미 환경보호청, 미시간대학, 스위스 바젤대학, 스위스 중앙연구소, 미 예일대학,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서울의대, 서울시 종합기술연구소 등 세계 유명 시험기관에서 입증.

2. 세계적인 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고객은; Coca-Cola, Pepsi-Cola, Heineken, McDonald's, Red-Cross, Lotte Hotel, Swissair, Esso, Shell, Dole, Mobil, Philips Petroleum, Unionoil, Statoil, Amoco Norway, Jebsen Drilling, Texaco, USSR Shipping lines, India shipping, Mitsui, Nedlloyd, Hapag-Lloyd, Ben Line, British Petroleum, 외 1,500여개의 정수장과 3,000여개의 세계 유명 음료업체
- 국내는 한라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제주생수, 현대상선(주), 한국해운(주) 등 외

3. 경제성

- 필터의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만 년구적 (타입제 1년 정도)
- 필터의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타입제 1만 리터)
- 5인 가족 년간 유지비 4만원선 (타입제 40만원 이상)
- 생수 이용시 보다 경제적이며 사용시 세균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음.

4. 사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의 제품 종류는;
 - 가정용 • 등산용 • 생수회사용 • 음료회사용
 - 대형호텔용 • 수도국 정수장용 • 제약회사 시설용 • 종합병원용 • 가두리 양식장용
 - 선박용 • 주유회사용 • 비행기시설용
 - Tablets • Spray • Powder 등 다양하며 정수 시스템을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음.
- 타회사 제품의 주종을 몰이하며
- 열성과 애기가 있는 대리점 사업주는 카타딘 정수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됨

“요주의” 허위 선전 업제 고발

모 정수기 업체에서는 전기분해이나 TDS를 가지고 다니며 허위선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으로 소비자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실 수요자에게 눈속임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속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번없이 121번)

속임수에 의하여 정수기를 선택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02)582-4505



대리점
개설문의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달라도
모두가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위스키가콜라



독일펜시콜라



맥도날드사



국제적십자사



스위스항공



스위스항공



하이네켄



카타딘코리아

KATADYN KOREA CO., LTD.